

정책연구

2025-32

정읍시 체류인구 정주화를 위한 인구정책 방향 연구

Population Policy Roadmaps for the Settlement of the Floating Population
in Jeongeup

이지선 이주연 전희진 최지훈



설립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 용역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연구진 소개

이지선

동아대학교 경영학 박사
울산연구원 전문연구원
울산연구원 전문위원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주연

전북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
부산대학교 노인생활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전희진

University of Michigan 사회학 박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21 사업단 박사후 연구원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지훈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
전북연구원 연구원

정책연구

2025-32

정읍시 체류인구 정주화를 위한 인구정책 방향 연구

Population Policy Roadmaps for the Settlement of the Floating Population
in Jeongeup

이지선 이주연 전희진 최지훈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 구 책 임	이지선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2장, 3장(2절, 4절), 4장, 5장, 6장
	이주연 책임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3장(3절, 4절), 5장
공 동 연 구	전희진 책임연구위원	제3장(3절)
	최지훈 연구원	제1장(3절), 3장(1절)

자 문 위 원	허문경 우석대학교 스마트관광학과 특임교수
	최영기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김희진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본부장

연구관리 코드 : 25JU34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약

SUMMARY

1.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배경 및 목적

-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기존 주소지 중심의 정주인구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인구 기반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정읍시는 우수한 자연·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인구는 가을철 단풍 관광 시기에 편중되어 있고 낮은 소비 파급력을 보여, 단기 체류 구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정읍시 체류인구 구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기적 체류인구를 정기적 체류인구로 전환하고, 나아가 이들이 정주인구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 (통계자료 분석)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생활인구(체류인구)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정읍시 및 전북 내 인구감소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정읍시의 현 상황을 파악
- (심층면접조사 및 전문가 자문) 비정기적 체류인구(관광, 숙박인구)와 정기적 체류인구(통근인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 진행 및 전문가 자문조사를 통해 단순 방문에서 정기적 체류로의 전환, 정기적 체류에서 정주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 및 정책 수요를 파악
- (빅데이터 분석) 이동통신 및 신용정보 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기적 체류인구의 유입 행태 및 소비 특성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지역별 생활 인프라 데이터와 연계하여 정주 여건 및 인프라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

2. 결론 및 정책제언

■ 비정기적 체류인구→정기적 체류인구→정주 인구로의 전환을 위한 인구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안)

- 정읍시 비정기적 체류인구를 정기적 체류인구로 전환하고 이들을 향후 정주 인구로 단계적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스쳐가는 방문에서, 스며드는 생활로: 정읍 라이프 이음**”이라는 인구정책 비전 아래 (1) 체류시간 연장, (2) 도시 매력도 증대, (3) 지역 애착도 (4) 정주 탐색 기반 마련, (5) 맞춤형 정주 인프라 확충, (6) 생활 공동체 기반 형성이라는 전략을 실시해야 함
- 이를 위해 첫째, **체류시간 연장을** 위해 빈집 및 노후 시설 등 유휴 자원 재생,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교통편의 시스템 도입, KTX 연계 야간 체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당일 방문을 1박 체류형으로 전환해야** 함. 둘째, 도시 매력도 증대를 위해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정읍시의 고유 역사·문화 자원을 동선화 한 게임화, 인문학 산책로 조성) 및 디지털 보상 연계를 구축(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미션 리워드 체계 구축)하여 **사계절 체험형 콘텐츠의 상시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함. 셋째, 지역 애착도 형성을 위해 참여 기반 프로그램(정읍 전통주 빚기를 통한 지속 방문, 단계별 관계인구 전환 시스템)을 마련하여 **방문객이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재방문·정기 체류로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함. 넷째, 정주 탐색 기반 마련을 위해 주요 유입층인 4050대 중장년층의 니즈를 고려한 정읍 시민으로 살아보기 체험과 수요자 맞춤형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정주에 대한 심리적·정보의 한계 장벽을 해소해야 함. 다섯째, 맞춤형 정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읍 메디-힐링 멤버십(정읍 한방산업 및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건강 서비스)과 고품격 다이닝 솔루션(고품질의 정읍 축·농산물 정기배송, 산단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파인 다이닝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기적 체류인구의 실질적 생활 체감 만족도를 **충족시켜야** 함. 마지막으로, **생활 공동체 기반 형성을** 위해 문화·인적 교류 네트워크 형성(관심사 기반(와인, 골프, 인문학 등)프리미엄 동호회)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정착 멘토링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지역 내 사회적 연결성을 확대해야 함

차 례

CONTENTS

요약	i
----------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나. 연구 목적	8
2. 연구 내용 및 방법	9
가. 연구 내용	9
나. 연구 방법	11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4
가. 선행연구 검토	14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제한점	25

제2장 생활인구 제도 및 인구정책 현황 분석

1.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제도	29
2. 중앙 및 정읍시의 인구 관련 정책 현황	30
가. 중앙정부 인구 관련 정책 현황	30
나. 정읍시 인구 관련 정책 현황	39
3. 체류인구 개념과 조작적 정의	47
가. 체류인구 개념 도입 배경	47
나. 체류인구 개념의 국제적 맥락	47

다. 체류인구 개념 정의	49
라. 체류인구의 조작적 정의	50
4. 요약 및 시사점	51
가. 연구결과 요약	51
나. 시사점	52

제3장 정읍시 체류인구 현황 및 특성 분석

1. 정읍시 체류인구 현황 분석	57
가. 정읍시 체류인구 현황	57
나. 정읍시 체류인구 주요 특성 현황	73
2. 빅데이터 기반 정기적 체류인구 특성 분석	75
가. 분석 개요	75
나. 분석 결과	75
3. 심층면접 및 전문가 자문 기반 체류 인구 특성 분석	90
가. 조사 개요	90
나. 결과 분석	95
4. 요약 및 시사점	109
가. 정읍시 체류인구 현황 분석	109
나. 빅데이터 기반 정기적 체류인구 특성 분석	110
다. 심층 면접·전문가 자문 기반 체류 인구 특성 분석	113

제4장 빅데이터 기반 정읍시 정주환경 여건 및 체류인구 특성 연계 분석

1. 체류인구 정주환경 여건 분석	121
가. 분석 개요	121
나. 분석 결과	125
2. 체류인구 특성과 정주환경 여건 연계 분석	131

가. 분석 개요	131
나. 체류인구와 정주환경 연계 진단 및 대응 방향	132
3. 요약 및 시사점	137
가. 체류인구 정주환경 여건 분석	137
나. 체류인구 특성과 정주환경 여건 연계 분석	138

제5장 정읍시 체류인구 정주화 인구정책 방향

1. 정읍시 체류인구 정주화 인구정책 기본 방향	145
가. 방향 설정	145
나. 비전과 목표	146
다. 전략	146
2. 정읍시 체류인구 정주화 인구정책의 세부 추진 과제	153

제6장 요약 및 제언

제6장 요약 및 제언	167
-------------------	-----

참고문헌	175
------------	-----

영문요약 (Summary)	177
----------------------	-----

부록	183
----------	-----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지역 자본에 대한 체류인구의 영향	4
[표 1-2]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정주화·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검토	16
[표 1-3] 데이터 기반의 체류인구(관계인구) 정주화·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검토	20
[표 1-4] 정주환경 및 생활 인프라 개선 관련 선행연구 검토	24
[표 2-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요약	31
[표 2-2] 25년 고향올래 사업 선정 지자체별 주요 사업 내용	36
[표 2-3] 25년 생활권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선정지	38
[표 2-4] 2025년 정읍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전략별 세부사업	42
[표 2-5] 체류인구 유형 및 개념 정의	50
[표 2-6] 체류인구의 조작적 정의	51
[표 3-1] 정읍시 생활인구 규모 추이	57
[표 3-2] 정읍시 성별 생활인구 규모 추이	59
[표 3-3] 정읍시 연령대별 생활인구 규모 추이	60
[표 3-4] 전북 인구감소지역별 생활인구 규모	61
[표 3-5] 정읍시 체류인구의 체류일수별 현황	64
[표 3-6] 정읍시 '24년 4/4분기 체류인구 유입 시군구 상위지역(타시도)	68
[표 3-7] 정읍시 '24년 4/4분기 체류기간 유형별 규모	69
[표 3-8] 정읍시 '24년 4/4분기 성별·연령대별 단기숙박 체류인구 현황	70
[표 3-9] 정읍시 '24년 4/4분기 성별·연령대별 장기숙박 체류인구 현황	72
[표 3-10] 정읍시 체류인구 주요 특성 현황	74
[표 3-11] 체류인구 특성 분석 관련 활용 데이터	75
[표 3-12] 정기적 체류인구 소득분포 현황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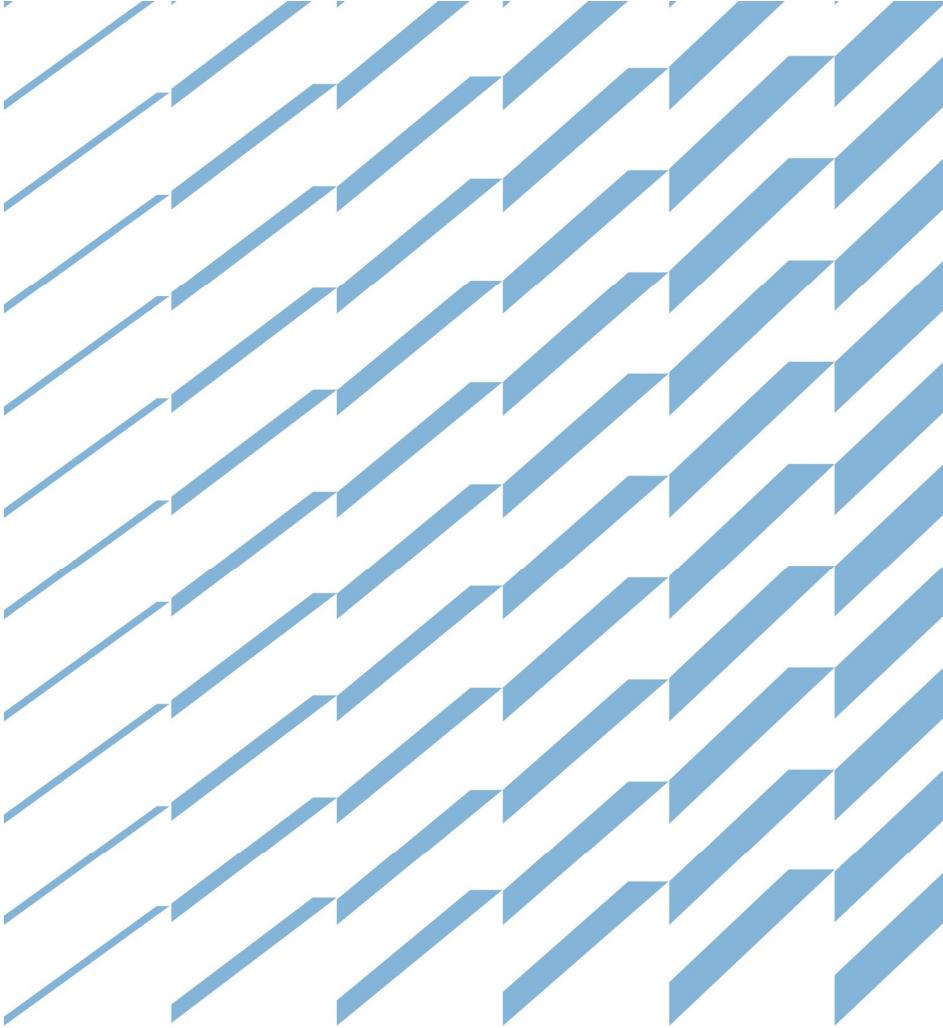
[표 3-13] 정기적 체류인구 성별 소비력 현황	78
[표 3-14] 연령대별 직장인구 유입 규모에 따른 인구 유입 지역 순위	89
[표 3-15] 비정기적 체류 인구 대상의 영역별 세부 조사 내용	91
[표 3-16] 정기적 체류 인구 대상의 영역별 세부 조사 내용	92
[표 3-17] 전문가 자문의 영역별 세부 내용	93
[표 3-18]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비정기적 및 정기적 체류인구의 일반 현황 ·	94
[표 3-19] 비정기적 체류인구 대상 심층면접조사 주요 분석 결과	95
[표 3-20] 비정기적 체류인구의 장기 및 정기적 체류 인구화 방안에 관한 전문가 자문조사 주요 분석 결과	99
[표 3-21] 정기적 체류인구 대상 심층면접조사 주요 분석 결과	103
[표 3-22] 정기적 체류인구의 정읍시 정주 인구화 방안에 관한 전문가 자문조사 분석 결과	105
[표 3-23] 빅데이터 기반 정기적 체류인구의 특성 진단에 따른 정책 방향 ..	113
[표 3-24] 체류인구 유형별 실태 진단 및 전환 요건에 따른 정책 방향	116
[표 4-1] 빅데이터 기반 정주환경 여건 분석 활용 데이터	121
[표 4-2] 정주환경 지표 설정 기준	122
[표 4-3] 정읍시 행정동별 정주환경 분석 결과	125
[표 4-4] 정주환경 요소별 지수 도출 결과 순위	129
[표 4-5] 비정기적 체류인구의 정기적 체류화를 위한 정주 환경 연계 방향 요약 ..	133
[표 4-6] 정기적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정주환경 연계 방향 요약	136
[표 4-7] 체류인구 특성과 정주환경 여건 연계 분석 기반 정책 방향	141
[표 6-1] 정읍시 인구정책 세부 추진과제 요약 및 기존 사업과의 비교	167
[표 6-2] 재원별 세부 투자 및 배분 계획(안)	171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생활인구의 구성	3
[그림 1-2] 정읍시 체류인구 현황(2024년)	5
[그림 1-3] 전북 인구감소지역별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 비중 현황	6
[그림 1-4] 연구 추진체계	13
[그림 2-1] 고향올래 사업 주요 기능	35
[그림 2-2]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개념도	37
[그림 2-3] 정읍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비전, 목표, 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체계	46
[그림 3-1] 정읍시 생활인구 규모 추이	58
[그림 3-2] 정읍시 성별 생활인구 규모 추이	58
[그림 3-3] 정읍시 연령대별 체류인구 규모 추이	59
[그림 3-4] 정읍시 연령대별 체류인구 배수 추이	61
[그림 3-5] 전북 인구감소지역별 생활인구 규모	63
[그림 3-6] 전북 인구감소지역별 체류인구 추이	63
[그림 3-7] 정읍시 체류인구의 체류일수별 구성비	64
[그림 3-8] 정읍시 체류인구의 평균 체류일수	65
[그림 3-9] 정읍시 체류인구의 평균 체류시간	65
[그림 3-10] 정읍시 체류인구의 평균 숙박일수	66
[그림 3-11] 정읍시 체류인구의 최근 3개월 내 재방문율	67
[그림 3-12] 정읍시의 유입유출 현황	67
[그림 3-13] 정읍시 '24년 4/4분기 체류기간 유형별 분포	68
[그림 3-14] 정읍시 타시도 거주자 체류비중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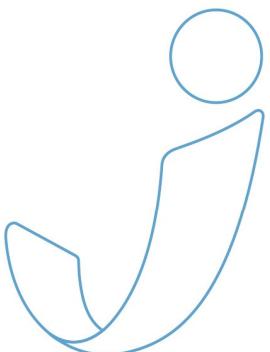
[그림 3-15] 정읍시 단기숙박 체류인구 추이	71
[그림 3-16] 정읍시 장기숙박 체류인구 추이	72
[그림 3-17] 정읍시 '24년 4분기 체류인구 주요 특성 현황 비교	73
[그림 3-18] 정기적 체류인구 연령대·성별 분포 현황	76
[그림 3-19] 정기적 체류인구 연령대별 소득분포 현황	77
[그림 3-20] 정기적 체류인구 연령대별 소비력 현황	79
[그림 3-21] 정기적 체류인구의 연령대별 평균 소비력 및 중위 소비력 분석 결과	80
[그림 3-22] 정기적 체류인구의 자택 소재지 분석 결과	81
[그림 3-23] 연령대별 정읍시 정기적 체류인구 자택 소재지 분석 결과	82
[그림 3-24] 정읍시 직장인구 지역별 분포(전체)	83
[그림 3-25] 20대 직장인구 지역별 분포 현황	84
[그림 3-26] 30대 직장인구 지역별 분포 현황	85
[그림 3-27] 40대 직장인구 지역별 분포 현황	86
[그림 3-28] 50대 직장인구 지역별 분포 현황	87
[그림 3-29] 60세 이상 직장인구 지역별 분포 현황	88
 [그림 4-1] 정주환경 지수 산출 관련 산식 및 설명	124
[그림 4-2] 주거환경 지수 지역별 차이	126
[그림 4-3] 산업환경 지수 지역별 차이	127
[그림 4-4] 교육환경 지수 지역별 차이	127
[그림 4-5] 의료·복지환경 지수 지역별 차이	128
[그림 4-6] 문화·여가 환경 지수 지역별 차이	128
[그림 4-7] 정주환경 종합지수 지역별 차이	129
 [그림 5-1] 정읍시 체류인구 정주화 인구정책 방향(안)	152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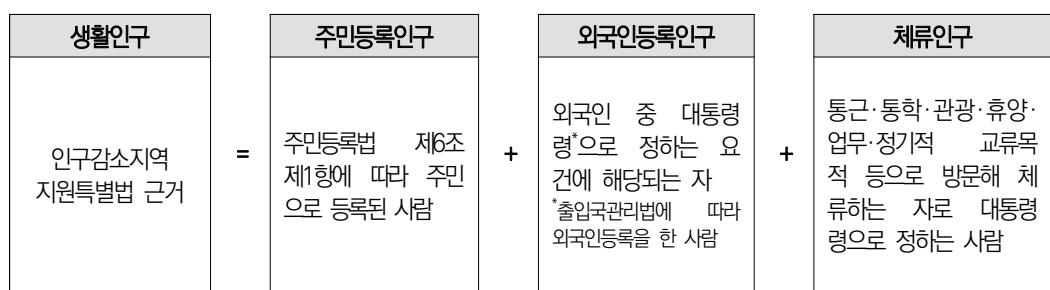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생활인구 기반 정책 전환의 대두

- 저출생, 자연 인구감소,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유출 등 지방은 인구감소에 더해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이에 지방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기존의 주소지 등록 정주인구 중심에서 벗어나, 인구 이동성 반영과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르며 활동과 소비하는 생활인구 기반의 정책 전환이 필요함
 - 생활인구는 지역에 등록된 정주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 이외 관광, 통근, 통학 등의 사유로 해당 지역에 일정시간 이상 머무르며 활동하는 비정주 인구인 체류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2022),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

[그림 1-1] 생활인구의 구성

2) 지역경제의 주요 인적자원인 체류인구

- 체류인구는 일정시간 지역에 머무르며 이동·소비·여가활동 등을 하고, 상업시설·교통수단·공공 서비스 등 생활기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지역 환경에 실질적인 체험과 공간 친숙도를 축적하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체류 경험들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여 비정기적 체류, 나아가 정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기반이 됨
- 더불어 체류인구는 지역에서의 소비와 활동,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본을 축적하는데 기여하는 인적자원으로, 지역 활력 유지와 지속 가능한 인구구조 형성에 기여하는 핵심 인구군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님
 - 이들은 지역에서 판매되는 상품·서비스·문화·체험활동 등에 대한 수요를 증가 및 다양성을 증대시킴. 또한 관광 시즌의 연장과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및 사회 활력을 증진

[표1-1] 지역 자본에 대한 체류인구의 영향

유형	영향
경제자본	일자리 창출, 로컬제품 구매 및 로컬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로컬비즈니스 지원, 주택 수요 증가, 금융자본 유치
자연자본	자연 보호 및 보전 활동에 대한 지역 내 수요 증가, 자연자원의 관리 및 지원 강화
건설자본	지역 기반시설 활용도 증대, 정주인구만으로는 유지가 어려운 공공시설 운영 기반 확보
사회자본	커뮤니티 활성화, 외부 인구와의 교류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확대, 지역사회 구성원의 상호작용 기회 확대
문화자본	문화 활동/이벤트/시설 지원, 지역문화 상품화, 이문화간 상호작용
인적자본	노동력 및 기술 유입, 지역 내 새로운 기술과 혁신 촉진, 행정서비스 유지 기반 인구구성에 기여
정치자본	개발 대응/유치를 위한 지역조직 개발, 교통시스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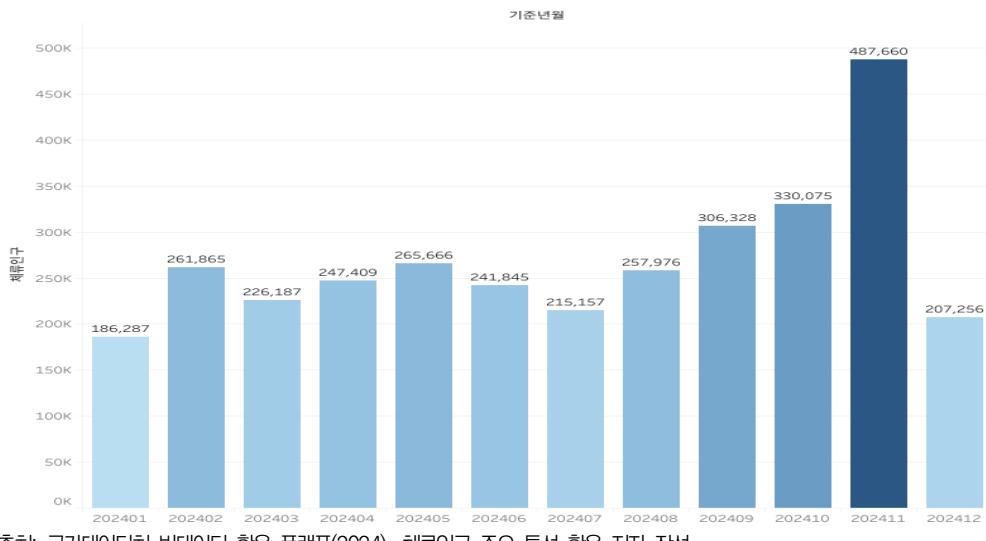
출처: 국토연구원(2022), 인구감소시대, 체류인구를 활용한 지역유형별 대응전략 연구

3) 정읍시 체류인구의 구조적 제약과 정책적 보완 필요성

- 정읍시의 경우, 자연·문화 자원과 광역교통 인프라를 갖추어 있어 외부 체류인구 유입 기반을 일정 수준 확보하고 있음. 또한, 귀농귀촌 유치지원, 농촌유학, 농촌체험 워케

이션 등 다양한 체류기반 정책이 축적되어 있어 체류인구의 정주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여건도 확보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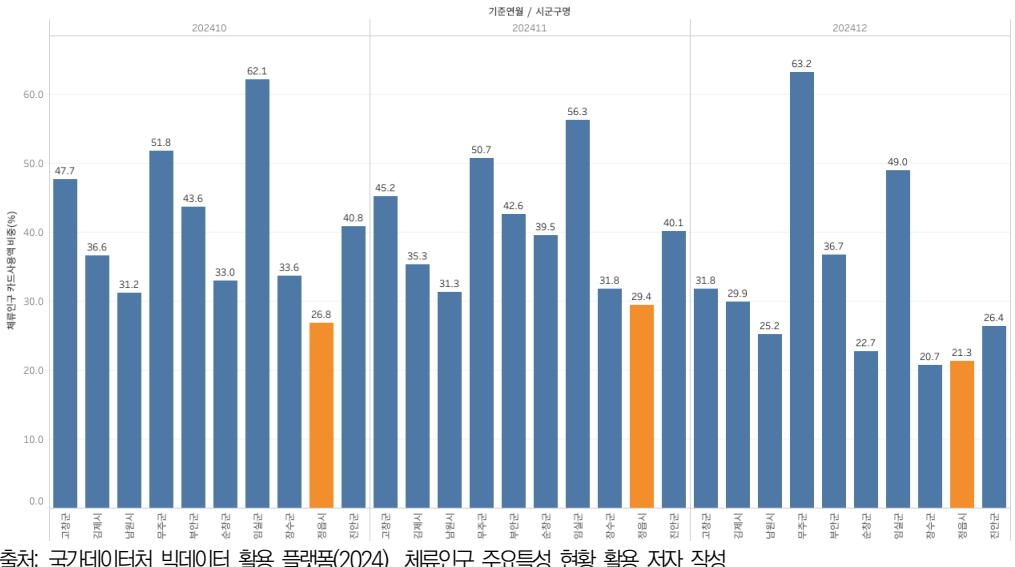
- 그러나, 정읍시의 체류인구는 통근·통학 인구 이외 특정시기(가을철, 10~11월)에 집중되는 계절적 편중 현상을 보이며 반복 체류 및 생활환경 체험 기회 축적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러한 단기·계절형 체류 구조만으로는 장기적인 인구 유입과 정주 전환을 유도하는 것에는 일부 어려움이 있음



출처: 국가데이터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2024), 체류인구 주요 특성 활용 저자 작성

[그림 1-2] 정읍시 체류인구 현황(2024년)

- 정읍시 체류인구는 가을철(10~11월)에 뚜렷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이는 단기관광 목적의 체류 수요가 내장산 단풍 관광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체류 구조는 비수기 체류 수요의 급감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 및 공공서비스 수요의 계절적 불균형과 체류인구 유입 지속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더불어 정읍시는 전북 내 타 인구감소지역 대비 체류인구의 카드소비 비중도 낮아, 체류인구의 지역경제 파급력 또한 제한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체류인구의 상당수가 단기체류에 그치면서 지역 내 소비활동이나 상권 이용이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시사함



[그림 1-3] 전북 인구감소지역별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 비중 현황(2024년 4분기 기준)

- 정읍시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의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단순히 체류인구의 유입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우며, 체류의 질적 수준과 지역 소비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체류인구의 체류목적, 체류행태,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 등 전반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지역의 주거·환경·일자리 등 정주 여건과의 부합 정도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정읍시 체류인구의 계절 편중과 소비 전환의 제약을 고려할 때, 가을철 단풍 관광을 위해 단발성으로만 방문하는 관광인구를 지속적으로 정읍시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즉, 이들을 정기적 체류인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과 향후 정기적 체류인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활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향 마련이 필요함
 - 일례로 하민지 외(2024)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체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류 단계별로 목표를 수립 및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방문·체류인구 확대, 체류활성화지역 조성, 계절인구 확대 등과 같은 체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더불어 일본은 지방으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단순 귀촌 이주나 단기 관광형 체류자가 아닌 지역과 지

속적 관계를 맺고 지역에 기여하는 ‘관계인구’ 전략을 추진 중임. 이는 단순 방문에서 일시적 체류, 지역 연계형 체류를 거쳐 정주 단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인구 집단으로 작동함. 이러한 해외사례는 정읍시 역시 체류인구를 단계별 및 전략적으로 관리·유도하는 것이 실제 정주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뒷받침함

4) 체류인구 및 정주환경 진단을 위한 세부 분석의 필요성

- 한편, 국가데이터처에서 공표하고 있는 체류인구 정보는 일정 수준의 통계적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나, 체류인구의 세부 특성·반복 체류·직주 근접성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관광인구와 같은 비정기적 체류인구 정보의 경우 단순히 해당 관광지에 유입되는 관광인구 유입량 정보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며, 재방문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방문 동기 및 체류 만족도 등에 대한 정보는 부재함. 그러므로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이들에 대한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정기적 체류인구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함
- 더불어 정주화 가능성이 높은 정기적 체류인구인 통근·통학, 직장인구 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은 이들의 실질적인 체류 행태를 시공간 단위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체류인구 정주화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과학적인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함
 - 체류인구의 인구·통계학적(연령대, 직업) 정보와 신용정보(평균 소득수준, 평균 카드소비금액)를 기반으로 이들의 니즈(needs)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관련 정책 방안을 도출 가능
 - 이들이 실제로 어디로 많이 유입되었는지 공간적 분포를 파악함으로써 정주 인프라 구축의 우선순위 지역을 선정하고 교통망, 상업시설, 공공 서비스 등의 배치 전략을 수립 가능
- 아울러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 인프라(주거환경, 의료·복지 인프라, 교육시설, 산업, 생활 편의시설, 문화시설 등) 분석은 해당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계량적으로 지표화하여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유용함

나. 연구 목적

■ 비정기적 체류-정기적 체류-정주화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본 연구는 정읍시 체류인구가 특정 계절에 집중된 단기·관광형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비정기적 체류인구를 정기적 체류인구로, 나아가 정기적 체류 인구가 정주 인구로 전환될 수 있는 단계별 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첫째,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비정기적 체류인구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단기 체류에서 정기적 체류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요인(방문·체류 동기, 만족도, 재방문 의사, 정주 인식 등)을 파악하고자 함
- 둘째, 통근·통학 인구와 같은 정기적 체류인구의 경우 빅데이터 기반 정량적 분석을 통해 이들의 세부 특성과 유입 행태를 분석하여 주요 유입 권역과 통근·생활권 구조를 도출하고자 함
- 셋째,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읍시의 각 지역별 생활 인프라를 분석하고, 체류인구의 특성과 지역별 생활 인프라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류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즉, 앞선 정성·정량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 내에서 지속적 체류와 생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체류 단계별 전환을 통한 정주화 촉진의 실질적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선행연구와 정책 사례 분석

- 생활인구, 체류인구, 정주환경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본 연구의 개념체계 정립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도출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제도 현황 검토
 - 생활인구 도입배경 및 법적 근거, 생활인구 구성과 요건, 정기적 및 비정기적 체류인구 정의 등
- 중앙정부의 주요 인구정책 동향 분석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과 같은 법적 근거 검토, 생활인구 확대 관련 중앙정부사업 등
- 정읍시의 주요 인구정책 동향 분석
 - 인구정책 관련 법률, 부처별 관련 정책,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등

■ 정읍시 체류인구 현황 분석

- 국가데이터처에서 공표하는 체류인구 현황 및 주요 특성 관련 자료 기반 정읍시 및 전북 내 10개 인구감소지역 간 체류인구 현황 비교 분석
 - 생활인구 규모(성별·연령대별), 체류인구 규모(총 체류인구 수, 연령대별 체류인구 수, 내외국인별 체류인구 수) 파악 및 체류인구 주요 특성(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 재방문율, 평균 체류일수, 평균 체류시간, 숙박 유형별(단기/장기체류), 타시도 거주자 비중, 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 체류인구 카드 사용액 비중)을 전북도 내 타 인구감소지역과 비교하여 정읍시의 특성 파악

■ 심층면접조사 기반 정읍시 비정기적·정기적 체류인구 특성 분석

- 데이터 분석 결과의 한계 돌파를 위해 비정기적 체류인구와 정기적 체류인구를 대상

으로 심층면접조사를 기반으로 체류 시 불편했던 점, 재방문 의사, 정읍시 생활 인프라 인식, 향후 정주 인식 등을 파악

■ 전문가 자문 기반 비정기적 체류인구의 정기적 체류화, 정기적 체류인구의 정주화 방안 파악

- 관광, 생활인구, 청년, 일자리·고용,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기반으로 정읍시 비정기적 체류인구의 정기적 체류화, 정기적 체류인구의 정주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파악

■ 빅데이터 기반 정읍시 정기적 체류인구 특성 분석

- 민간 데이터(국가데이터처 SDC 통계데이터센터 보유자료*) 활용을 통한 정읍시 정기적 체류인구 세부 특성과 실질적인 인구 유입행태를 정량적으로 파악

*통근·통학인구(KCB 제공), 직장인구(SKT 제공) 데이터 활용

- 정기적 체류인구 세부 특성 분석 : 통근·통학인구의 인구통계학적(성별, 연령대), 사회경제적(직업, 평균 소득수준·소비수준) 특성 분석
- 정기적 체류인구 유입 행태 분석 : 통근·통학인구의 자택소재지 정보를 활용한 장·단거리 통근자 파악 및 연령대에 따른 직장인구 유입지역 파악을 통한 지역별 유입 규모 도출

■ 빅데이터 기반 정읍시 정주환경 여건 분석

- 정읍시 행정구역별 생활인프라 수준을 계량화하여 각 지역별 개선이 요구되는 정주환경 요소 진단
 - 정주환경 지표 도출 :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5가지 요소(주거환경, 산업환경, 교육환경, 의료·복지환경, 문화·여가환경)로 설정하고 각 요소에 해당되는 공공 데이터를 수집
 - 지역 간 정주환경 수준 파악 : 위 내용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정주환경 수준을 측정하여 지역 간 정주환경의 상대적 격차 파악

■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체류단계별 전환 요인 분석

-
- 비정기적 체류-정기적 체류-정주로의 전환 인식과 필요한 정책 수요 등 요인 분석
 - 비정기적 체류에서 정기적 체류로의 전환 고려·제약 요인, 정책 수요 파악. 정기적 체류에서 정주로의 전환 고려·제약 요인, 정책 수요 파악

■ 비정기적 체류-정기적 체류-정주로의 전환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방향 및 제언

- 정읍시 체류인구 특성 및 정주환경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정기적 체류-정기적 체류-정주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함
 - 단순 유입규모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체류인구 유형별 특성과 생활여건 부합성을 기반으로 한 실행 가능한 인구정책 방향성 제시

나.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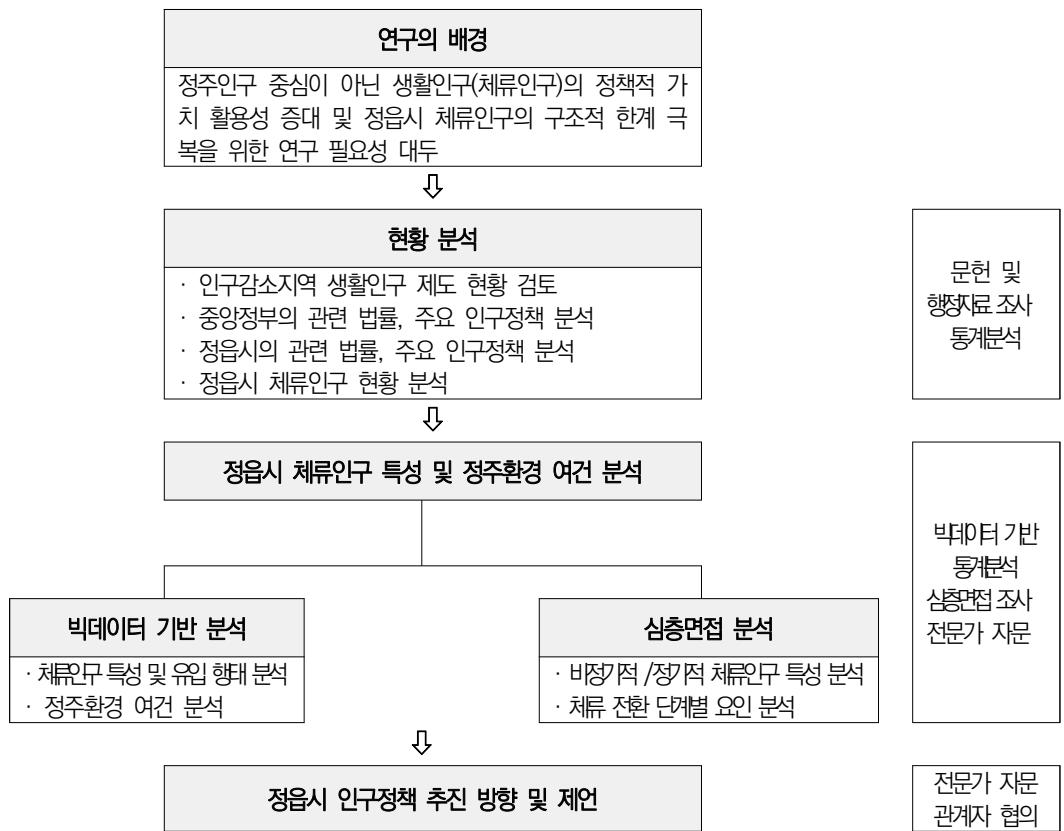
■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 문헌 및 행정자료 검토
 - 생활 및 체류인구, 정주환경 관련 선행연구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연구의 개념적 정의와 분석 틀 구성을 위한 이론적 기반 마련, 관련 분야의 연구 동향과 방법론적 시사점 도출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제도현황과 중앙 및 정읍시 인구정책의 법(제도)·현황·중점과제 등 검토로 인구 정책 방향성 설정 시 정책적 연계
- 통계자료 분석
 - 생활인구 통계(국가데이터처) 자료 기반 정읍시 체류인구 현황 및 주요 특성 분석
- 빅데이터 자료 분석
 - (목적) 민간 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읍시 체류인구의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적 특성과 주요 체류권역 정량적 분석, 각 지역별 생활 인프라 분포 및 접근성 기반으로 정주환경 수준 계량화, 체류-정주 간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지역군 도출

-
- (분석 범위) 최근 1~2년간의 통근·통학, 직장인구 데이터 활용하여 정읍시로 유입된 체류인구 분석, 정읍시 전체에 대한 정주환경 분석
 - (분석 내용) ① 체류인구의 인구통계학적(연령, 성별) 및 사회경제적(직업, 소득수준, 카드소비금액 수준) 특성 분석, ② 장·단거리 통근자 파악을 통한 체류인구 유입 행태 분석, ③ 연령대별 체류인구 집중지역 도출, ④ 정읍시 내 각 지역별 정주환경 수준 도출
 - (분석 방법)
 - ① 기술통계 분석 : 체류인구의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 ② GIS 분석 : 연령대에 따른 각 권역별 체류인구의 유입 분포 공간 분석, 각 지역별 정주환경 관련 공간 분석
 - ③ 정주환경 수준 지표 산출(Z-score 표준화) :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5개 정주환경 요소(주거, 산업, 교육, 의료·복지, 문화·여가)를 설정 및 각 지역별 정주환경 수준을 계량화

■ 심층 조사 및 전문가 자문

- 심층 면접조사
 - (목적) 정량적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체류인구의 인식·경험적 특성과 체류 단계별 전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면접조사 실시
 - (조사 대상) 정읍시에 방문·체류 경험이 있는 비정기적 체류인구(관광인구)와 정기적 체류인구(통근·통학 인구)를 대상으로 총 11명 내외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 및 조사 실시
 - (조사 방법)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1:1 대면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1인당 약 1시간 30분 내외요
 - (조사 내용) 방문 동기 및 체류 계기, 체류 만족도와 불편 요인, 재방문 의사 및 생활 인프라 인식, 지속 체류를 위해 필요한 요소, 향후 정주에 대한 인식 등
- 전문가 자문회의
 - 생활/체류인구 및 정주환경 관련 주요 전문가(교수, 연구자, 관계자 등)로 구성하여 수시로 의견수렴
 - 연구 주요 단계별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자문을 반영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
- 정읍시 담당 부서 의견수렴
 - 연구 방향과 내용, 연구 결과, 도출된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에 대한 적절성·타당성 등 의견수렴



[그림 1-4] 연구 추진체계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 먼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최근 생활인구 개념 활용이 급증하는 이슈를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정주화 및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함
- 다음으로, 생활인구 개념 중 데이터 기반의 체류인구나 관계인구 정주화 혹은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함.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활용한 데이터 자료는 무엇이었고, 체류 인구 특성 분석을 위해 주로 어떤 지표들 활용하여 분석하였는지 등도 검토함
- 마지막으로, 정주환경·생활 인프라 분석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함. 선행연구들에서는 정주환경을 어떻게 측정하였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정주환경 개선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제시하였는지 검토함

1)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정주화·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연구(이원도·이소영·홍근석, 2023)

- 이원도·이소영·홍근석(2023)의 연구에서는 총인구 감소, 인구 불균등 문제에 따른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 상황 극복 및 교통·통신 발달로 인해 거주 공간을 넘어서는 개인의 일상생활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생활인구 제도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개념 검토, 생활인구를 활용한 보통교부세 산정(안) 제시,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및 생활인구 발전 방향을 제안함
- 연구결과, 첫째,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으로 관계인구 개념의 도입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활인구의 계절적 특성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외지인 체류인구의 비율도 낮기 때문임. 관계인구 유형에 따른 맞춤형 생활인구 확대 전략 마련을 위해 생활인구 도입 목적에 따른 정책 활용성 강화를 주장함. 둘째, 인구감소지역에 관광세, 환경보전기여금과 같이 자체수입

획대에 생활인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지자체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있어 영향권 설정에 잠재적인 재정수요에 해당하는 생활인구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셋째,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및 민간부문의 활용을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생활인구를 오픈 API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민간부문에 공유함으로써, 창업·신산업 육성과 같은 민간참여를 유도를 제안함

■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이원도·윤소연, 2023)

- 이원도·윤소연(2023)의 연구에서는 지역 위기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정주인구 기반의 접근방법에서 지역에 방문체류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외지인 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주민등록인구와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높은 시공간 해상도의 생활인구 현황 및 특성분석을 통해 향후 생활인구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세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인구 현황과 특성을 확인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지인 체류인구와 등록외국인 인구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실시함.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지역의 외지인 체류인구 특성과 외국인 인구의 시·공간적 분포 및 동태적 변화를 살펴보았음
- 연구 결과, 강원도 생활인구의 특성을 외지인 체류인구, 단기체류 외국인, 장기 거주 외국인 등의 특성을 도출하였음. 또한, 해당 연구에서 활용된 빅데이터의 한계점으로 이동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연령 대)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개인(학력, 직업) 및 방문 특성(방문목적/동행자 유무 및 정보) 등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구체적인 정책 활용에 한계점이 존재함을 지적하였음
- 이에 생활인구를 고려한 지역 활성화 전략 수립에 고객정보를 더욱더 상세히 파악 가능한 가명정보 결합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와의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또한, 공공 및 민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된 생활인구 데이터는 데이터 저장공간에 텁재하여 주기적 관리 및 갱신이 필요하며, 다양한 공유방식(오픈 API)을 통해 민관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속초시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정영호, 2023)

- 정영호(2023)의 연구에서는 속초시가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으로는 지정되지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에 의해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속초시도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인구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자 수행되었음
 - 이를 위해, 일본의 관계인구, 독일의 복수 주소제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였고, 한국관광데이터랩을 활용하여 속초시 방문인구의 트렌드를 분석하여 속초시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제안함
- 연구 결과, 속초시 ‘브랜드’ 재정립 및 가치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관광연계 프로그램 개발(설악산-속초 항구)을 통해 일회성, 당일치기 관광이 아닌 정기적 체류인구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장기적 인구감소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이를 위해 민간(기업, 청년 크리에이터 등), 관(속초시), 학(학계, 대학교), 연(전문 연구기관)의 연계를 통하여 각 주체가 속초시 인구정책, 중·장기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논의할 수 있는 시장 직속 상설위원회 설치가 필요함
- 그 밖에 한국관광데이터랩의 방문인구 데이터는 정부 기조인 생활인구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한계(자료의 합의 부정합, 세부 보정 부재 등)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비와 연결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표1-2]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정주화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검토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연구 이원도·이소영· 홍근석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인구 감소, 인구 불균등 문제에 따른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함.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생활인구 정의 및 사례 검토• 생활인구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보통교부세 산정 -보통교부세 정책 시나리오 작성 및 산정•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인구 개념 도입 및 제도적 보완 필요• 재원마련 및 타당성 분석에 생활인구 활용 검토 -인구감소지역에 관광세, 환경보전기여금과 같이 자체수입 확대에 생활인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지자체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있어 영향권 설정에 잠재적인 재정수요에 해당하는 생활인구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및 민간부문의 활용을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 활성화 방안 이원도·윤소연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연구는 생활 인구 산정자료 중 하나인 주민등록인구와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인구 현황 및 특성 분석 세부적으로 진행하여 향후 생활인구의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 인구현황 및 공간적 분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지역(격자 단위) 현황 강원 생활인구 특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지인 체류인구, 단기체류 외국인, 장기거주 외국인 등 강원 생활인구 특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중/주말 유형별 분포, 시간대별 유형별 분포 	<p>위한 동기부여 필요</p> <p>-생활인구를 오픈 API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민간부문에 공유함으로써, 창업·산산업 육성과 같은 민간참여를 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지인 체류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외지인 체류인구는 원주 대부분 지역에서 주중에 방문하지만, 강릉의 경우 주요 관광지에서 주말의 방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양양의 경우 외지인 체류인구 대부분이 주말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기체류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주의 경우 단구동과 단계동, 강릉은 교1동, 양양은 양양읍에 단기체류 외국인의 방문 체류의 집중이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강릉 교1동과 양양 양양읍에서는 주말 새벽과 오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장기거주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체류 외국인과 같이 장기거주 외국인도 원주는 단구동과 단계동, 강릉은 교1동, 양양은 양양읍에 방문체류의 집중이 나타났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강릉교1동은 오전 시간대 집중과 양양 양양읍은 저녁과 새벽 시간대에 집중됨
속초시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정영호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초시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에 의해 인구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한 인구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관계인구), 독일(복수주소제) 해외사례 검토 • 통계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관광데이터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초시 '브랜드' 재정립, 가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설악산-속초 향구)을 통해 일회성, 단일 치기 관광이 아닌 정기적 체류인구를 늘리는 것이 필요 • 중·장기적 인구감소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초시의 선제적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민·관·학·연 연계 거버넌스 구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기업, 청년 크리에이터 등), 관(속초시), 학(학계, 대학교), 연(전문 연구기관)의 연계를 통하여 각 주체가 속초시 인구정책, 중·장기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논의할 수 있는 시장 직속 상설위원회 설치

2) 데이터 기반의 체류인구(관계인구) 정주화·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 데이터 기반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이원도·김주락, 2024)

- 이원도·김주락(2024)의 연구에서는 인구감소 위기 속에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가 포괄하는 주민등록인구, 타지역 방문 및 체류인구, 그리고 등록외국인 인구를 월단위 일별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남 생활인구를 추정하고, 지역별 현황 및 특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음. 특히, 전남 기초지자체별 생활인구 현황 및 특성을 탐색하여, 시공간적 변동성을 확인하였으며, 지역 재원확보 및 정주여건 확충을 위한 인구동태통계로써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23년 4월 기준으로 수집된 각기 다른 시공간 단위별(시군구, 읍면동)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남 생활인구 추정, 대안적 인구통계 사례조사와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제도 검토,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한 전남 생활인구를 활용하여 현황 탐색과 특성을 분석함
- 연구 결과, 지역별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으로 대도시형, 농어촌형, 그리고 관광형 등 생활인구 중 주요 유입인구 집단과 대상을 기준으로 한 지역별 확대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유입량이 적은 지역으로부터의 유인책 마련을 위한 새로운 대안마련도 필요함. 그리고 향후 생활인구의 정책적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산정방식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 인구감소지역과 함께 인구기초지자체(비인구감소지역)도 함께 추정하여 지역 간 연계성 확대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 도시 및 지역계획의 실현성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개념의 적용방안 연구(이삼수·이미홍·윤병훈·권영환, 2024)

- 이삼수 외(2024)는 도시지역 생활인구 산정을 목적으로, 2023년 생활인구 산정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7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함. 해당 연구에서 활용한 이동통신의 유동인구 데이터는 생활인구와 유사하게 특정 시점에 지역을 방문·체류인구의 현황 및 규모 측정에 유용하며, 특히 출발지(주민등록지 기준)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함. 하지만 규모(양적 정보)와 달리 방문·체류인구의 인구학적 특성 및 방문목적(질적 정보)의 추론이 어려움에 따라 이종 데이터의 가명결합 등 활용 방안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이삼수 외(2024)는 생활인구는 향후 계획지표, 생활권 계획, 수요추정 및 예측 등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적정규모 산정 시 인구지표로 활용성이 높음을 강조하였음.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생활인구 산정방법과 공간 단위를 확정하고, 유입·유출지역 분석을 수행함

■ 전북 농촌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 활용 방안(조원지 외, 2023)

- 조원지 외(2023)는 농촌지역 활성 도모를 위해 관계인구 유치가 중요함에도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농촌 활성화 방안으로 귀농·귀촌, 농촌 살아보기, 농촌 유학 등 주거지 이동 및 체류를 전제로 한 기존 농촌 인구정책에서 확대된 정책을 수립함. 이에 농촌 이주, 관광에 치우친 정책 방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구 유형이 농촌을 방문하고, 농촌지역의 활력 도모에 기여할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주장함
- 특히, 조원지 외(2023)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활용하여 전북 방문인구 체류 특성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체류시간은 길지만, 평균 숙박일 수가 적은 특성을 확인함. 또한, 체류시간 추이에선 1월, 6월, 9월이 급증하는 시기로 나타났으며, 단기체류인구 규모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함
-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인구 관련 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주민조직인 ‘커뮤니티 앵커 조직’ 육성, 도시민의 관계인구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접근이 용이한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인구감소시대, 체류인구를 활용한 지역유형별 대응전략 연구(안소현 외, 2022)

- 안소현 외(2022)의 인구감소시대에 과연 “정주인구만이 유일한 해답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대안적 인적자원으로 비정주인구의 가능성을 고찰하며, 정주인구 중심에서 벗어난 다양한 관점의 인구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이에 지역과 체류인구의 상생을 위한 전략을 제시함. 특히, 체류인구를 정주인구로 전환시키는 관점이 아닌, 체류 자체에 초점을 두고 그 특성에 기반하여 지역을 유형화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 KT 이동통신 데이터의 외지인 방문자 데이터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체류인구 현황분석과 K-means 군집분석을 통한 체류지역 유형화
- 체류인구가 해당지역에서 머무른 시간을 고려하여 「체류자의 수 ×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지역별 체류인구 수 도출
- 연구 결과, 전국 기초지자체(249개)에 대한 체류인구 속성과 방문 및 정주인구 관련 변수를 활용하여 크게 5개의(거점형/계절형/과소형/목적형/과밀형) 지역 유형을 도출 하였음. 이를 토대로 체류인구 관련 정책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함. 구체적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체류인구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방향과 전략으로 방문(관광 개발계획), 정주(인구정책 기본계획)와 같이 체류인구를 정책대상화하여 차별화된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둘째, 체류인구 확산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략으로 체류마을 조성 및 공간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셋째, 체류인구와 지역 간 관계 형성을 위한 지역유형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음

[표1-3] 데이터 기반의 체류인구(관계인구) 정주화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검토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데이터 기반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이원도·김주락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인구통계학 정보별로 전남 기초지자체 생활인구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시공간적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지역 재원 확보 및 정주 여건 확충을 위한 인구동태통계로써 활용사례를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간 단위별(시군구, 읍면동) 이동통신 데이터를 통해 전남 생활인구 추정 • 대안적 인구통계 사례조사와 인구감소 지역 생활인구 제도 검토 • 이동통신 데이터로 전남 생활인구 현황 및 특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 및 특성 분석결과를 활용한 활성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형/농어촌형/관광형 등 생활인구 중 주요 유입인구 집단과 대상을 기준으로 한 지역별 확대전략 수립 필요 - 상대적으로 유입량이 적은 지역으로부터의 유인책 마련을 위한 새로운 대안마련도 병행 • 향후 생활인구의 정책적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방식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인구감소지역과 함께 인근 기초지자체(비인구감소지역)도 함께 추정하여 지역 간 연계성 확대에 기여
도시 및 지역계획의 실현성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개념의 적용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주거인구 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관련 개념 및 정책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생활인구를 고려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및 국내외 정책동향 검토 • 생활인구 산정 및 시뮬레이션 • 생활인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인구는 기존 인구정책의 대안으로서 도시활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함 • 생활인구의 증가가 반드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험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근거로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분석 필요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이삼수 외 (2024)	도시 및 지역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생활인구를 고려한 도시 및 지역정책 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인구를 도시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인구의 등록인구 개념에서 '서비스 인구' 개념으로의 전환 필요 • 생활인구 특성에 따른 유형화의 기준은 기존 정주인구와의 절대적/상대적 인구 차이, 생활 인구 유형별 시공간적 변화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북 농촌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 활용 방안 조원지 외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계인구 유치를 위한 적용 가능한 사례를 살펴보고, 다양한 형태의 관계인구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및 행정 자료 검토 -관계인구 관련 정책 동향, 관계인구 유형 검토 • 체류인구 특성분석 -한국관광데이터랩 • 사례조사 -국내외 사례 분석 •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관계인구를 특정 농촌지역과 주민에게 지속적인 관심이 있는 도시민,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 주기적으로 교류하거나 다양한 지역 활동을 하는 도시민으로 개념화하였음 • 핵심 관계인구 정책사업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지역과 주민과의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을 ○○', '도시청년이 참여하는 농촌마을 만들기', '신중년 로컬 일자리 투어', '전북 농촌 Likers' 등 • 관계인구 관련 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주민조직인 '커뮤니티 앵커 조직' 육성, 도시민의 관계인구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접근이 용이한 '플랫폼' 구축 필요
인구감소시대, 체류인구를 활용한 지역유형별 대응전략 연구 안소현 외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인구는 과연 인구감소시대 지역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자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고찰하고, 지역과 체류인구의 연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이론적 분석틀 구성 • 통계분석 -체류지역 유형 구분 -K-means 군집분석 • 사례연구(유형별) -사례대상지별 현지조사 • 전문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조성) 체류인구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방향과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 정주와 같이 체류인구를 정책대상화 하며 차별화된 정책수립 필요 • (확대) 체류인구 확산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방향과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류마을조성 및 활성화지구지정 등 공간전략 수립 필요 • (지역연계성 강화) 체류인구와 지역 간 관계 형성을 위한 지역유형별 방향과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형) 지역문제 해결과 체류인구 유입을 연계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 관리 -(계절형) 체류인구와 지역주민의 접점 확장 -(과소형) 중간조직을 매개로 한 체류 프로그램 도입

3) 정주환경 및 생활인프라 개선 관련 연구

■ 제주 읍면지역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분석 및 정주여건 개선방향(강권오·김도은, 2024)

- 강권오·김도은(2024)의 연구에서는 읍면지역의 인구감소, 정주여건 격차 등은 제주의 고질적인 인구문제이며, 이에 대응하고자 법정리 단위의 정주환경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분석을 통해 세부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특히, 지역 간 생활인프라 격차와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간기반 행정서비스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음
 - 주요 연구 내용은 첫째, 생활편의시설을 의료·복지·문화·교육 등 4대 영역으로 분류하고 읍면지역 내 기초생활권 범주에서 시설 입지 및 접근수준을 공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둘째,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된 생활권 체계와 기존 도시계획 간 정합성을 고려하여 접근성 불균형 원인을 규명하고, 셋째, 접근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시설 공급 전략과 공공교통 연계 방안을 마련하였음
- 연구 결과, 읍면지역 내 상당수 법정리 단위에서 도보 10분, 자동차 10분 이내 생활편의시설 접근이 제한되는 지역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의료 및 복지시설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읍면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기반 행정서비스 지원전략 마련, 둘째, 생활SOC의 거점 중심 복합화 및 통합운영체계 구축, 셋째, 읍면지역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마을버스 또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확대 등을 제시하였음

■ 생활인구 개념에 기반한 생활인프라 수요 분석(김필·전대욱·김해솔, 2023)

- 김필·전대욱·김해솔(2023)의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생활인구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생활인프라 수요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특히, 직주분리 심화와 인구 이동성 증가로 인해 주민등록인구로만은 실제 행정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인구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인프라 공급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대전광역시 실과와 협조하여 카드매출액 추정자료와 KT 통신데이터 기반 유동인구 자료를 수집하고, 82개 행정동 283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생활인구 유형별로 전문가 인터뷰를 병행하여 질적·양적 분석을 실시함

-
- 생활인구는 초단기 유동인구, 단기체류자, 중·장기 체류자, 외국인 및 관계자로 구분, 생활 인프라는 교육, 보건복지, 문화, 환경, 교통 5개 분야로 분류하여 각 행정동별 현황과 수요를 분석
 - 연구 결과, 초단기 유동인구, 학생, 직장인 및 사업체 종사자가 생활인구 증진을 위해 가장 주목해야 할 유형으로 도출되었으며, 생활인구 유형별로 요구되는 생활 인프라가 상이함을 확인하였음. 초단기 유동인구는 문화·교통 인프라를 제외한 전반적 생활인프라 개선이 필요하고, 학생 생활인구는 교육 인프라보다 문화 인프라와 연관성이 높으며, 직장인 및 사업체 종사자는 환경·교통 인프라 동시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자치구별로는 동구와 대덕구는 전반적 인프라 확충, 중구는 교육·문화·교통 인프라 우선 투자, 서구와 유성구는 선별적 인프라 보강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음
- ### ■ 충청북도 거점지역 정주여건 경쟁력 강화방안(채성주 외 5, 2011)
- 채성주 외 5(2011)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거점지역(오송·오창)을 대상으로, 지방 중소 도시의 지속가능한 정주기반 확보를 위해 정주여건 실태를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특히, 고령화,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 등의 인구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여 충북 내 중심거점지역의 정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둠
 -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정주환경 개념 정립과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체계 구성, 둘째, 충북 내 오송·오창을 포함한 주요 시군 및 대도시와의 정주여건 비교 분석, 셋째, 정주환경 주요 구성요소(주거·교육·교통·복지 등)의 실태 분석 및 AHP 가중치 기반 중요도 분석, 넷째, 주민설문을 통한 주관적 만족도 및 개선 요구 파악 등이 포함됨. 특히, 지역주민 1,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거주지 만족도, 이주 희망 여부,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평가 등을 실증 기반의 정책방향 설정에 기여함
 - 연구 결과, 오송·오창 지역은 주거환경과 교통접근성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나, 교육·문화·의료복지시설의 부족과 생활편의시설의 불균형 분포로 인해 전반적인 정주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마을단위 커뮤니티 복원 및 기반시설 확충, 공공서비스의 지역 간 균형적 배분,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도입,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주환경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을 정책 제안으로 제시하였음

[표1-4] 정주환경 및 생활 인프라 개선 관련 선행연구 검토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제주 읍면지역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분석 및 정주여건 개선방향 강권오·김도은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지역 인구감소, 정주여건 격차 등의 문제는 제주지역의 고질적 인구문제 원인이며, 이에 대응하고자 법정리 단위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진단을 토대로 정책적 개선 근거 도출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개선 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자료 기반 분석(읍면지역 및 생활편의시설 현황) 생활편의시설 접근성(도보/자동차 이동 시간 등) 분석 법정리 단위별 접근성 비교 및 공간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주여건 개선방향 및 전략 도출 균형발전 관점에서의 행정지원 서비스 지원전략 마련: 행정지원 발굴체계 개선을 통한 소외지역 지원 확대, 지원사업 및 중간지원조직별 기능 재정립, 마을만들기사업 관리시스템 접근성 개선 및 고도화 접근시간 단축 및 이동성 강화 설정: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확대를 통한 중산간 지역 이동성 개선, 읍면지역 버스요금 면제대상 확대
생활인구 개념에 기반한 생활인프라 수요 분석 김필진·박길해 솔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인구 개념이 주민등록인구 중심 정책적 한계를 보완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대전시 대상 생활인구 유형별 특성과 이에 기반한 생활 인프라 수요를 파악, 나아가 생활인구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인프라 공급 전략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설문조사 전문가 멘담 생활인구 유형별 필요한 생활인프라 파악 통계자료 및 빅데이터 활용 분석 유동인구 데이터 활용 생활인구 신정 카드소비 데이터 활용 생활인구의 지역 경제 활성화 분석 각 행정동별 생활인프라 규모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류인구 유형별 전략적 방안 제시 초단기유동인구는 문화·교통 제외 기초 생활인프라 전반 보강이 필요 학생 생활인구는 공공시설 추가보다 대학가 민간 인프라 품질 개선 권고 직장인·사업체 종사자는 환경(공원 등)+교통(주차) 패키지로 질 향상 군인(유성구 산성동)은 유치원 수·규모 확대 필요 외국인 및 관계자는 문화보강보다 행정지원 인프라 강화 향후 생활인구 편의성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제언 대전광역시 인구조례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생활인프라 조성·관리를 사업 항목으로 제안
충청북도 거점지역 정주여건 경쟁력 강화방안 채성주 외 5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오송·오창 지역 중심으로 정주기반 실태를 진단하여 지속기능한 지역 발전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공 고령화,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한 정주환경 개선 방향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설문조사(총 1,950명) AHP 분석을 통한 정주요소 중요도 산정 통계자료 분석 정주환경 지표화 및 지역간 비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주환경 전반 실태 진단 결과, 주거·교통은 양호하나 교육·문화·복지 인프라는 부족 주민 만족도 및 개선 요구 반영하여 정책 방향 제시 커뮤니티 복원 및 기반시설 확충 공공서비스 균형 배분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도입 정주환경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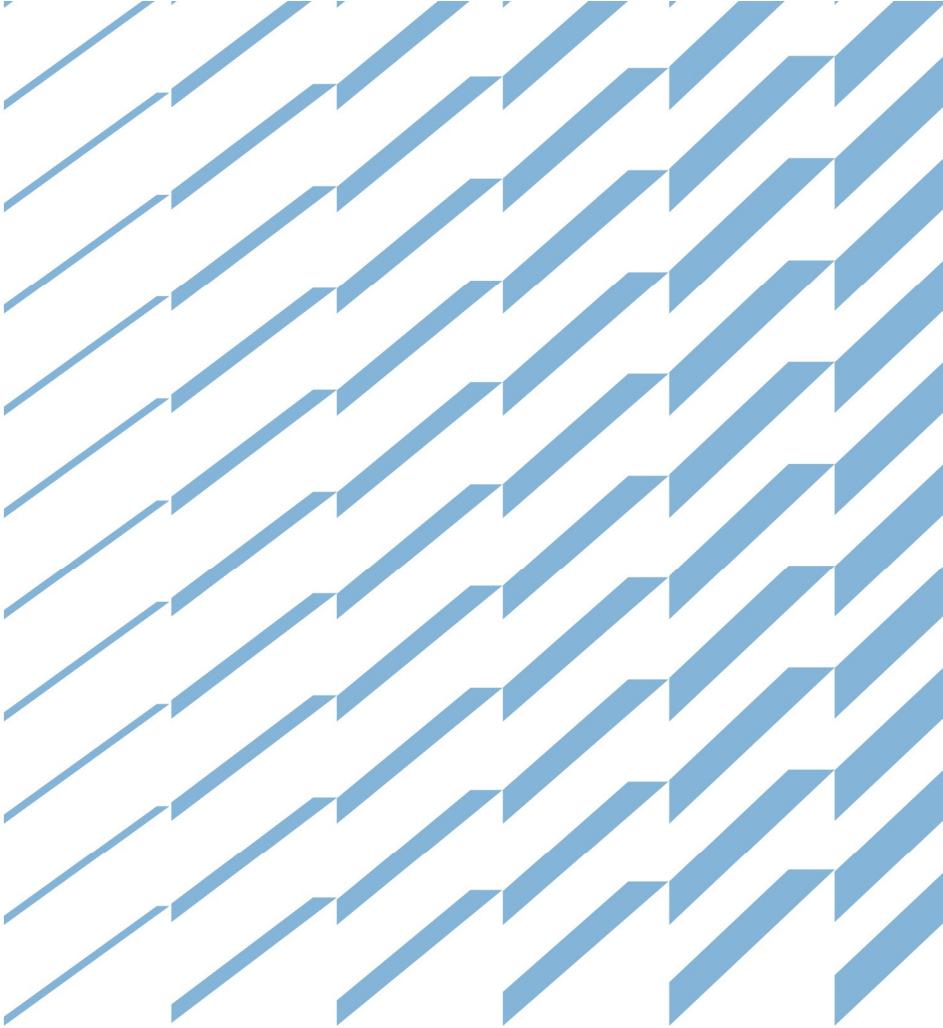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제한점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주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정읍시 맞춤의 연구)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전국 단위(국토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등) 또는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생활인구와 체류인구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정읍시라는 특정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와 체류 인구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정주 환경 수준과 연계하여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빅데이터 기반의 체류인구 정밀 분석) 기존 선행연구들은 생활인구 특성 분석 관련하여 주로 공공 통계자료나 문헌분석 등에 머물러 있으며, 체류인구 산정은 단순히 유동인 구로만 파악하여 데이터의 한계점이 존재함. 본 연구는 단순 통계치 활용을 넘어 민간 빅데이터(SDC 통계데이터센터가 보유한 통근·통학인구, 직장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체류인구의 연령·성별·직업·소득·소비수준 등 이들의 세부 특성까지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생활 기반 특성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체류인구 유형별 맞춤 접근) 기존 연구들이 ‘체류인구’ 전체를 단일 범주로 다루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체류인구를 비정기적 체류인구와 정기적 체류인구로 구분하고, 비정기적 체류인구의 정기적 체류인구로의 전환, 나아가 정기적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분석을 심층 인터뷰를 통한 정성적 분석을 실시한다는 차별적이라 볼 수 있음
- (체류인구와 정주환경 통합적 연계 설계) 본 연구는 단순히 체류인구 유입 규모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정주 환경(주거·산업·교육·의료복지·문화여가) 수준을 정량화하여 체류인 구 특성과 정주환경 수준을 결합한 정주 전환 가능성 진단 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체류인구 유입 정도 × 정주환경 수준별로 누구에게(체류 유형별), 어디에(정주환경 수준별), 무엇(지원 요소)을 제공해야 할지를 체계화하여 정책 대응 방향(정책 유도형, 환경 개선형, 유입 확대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제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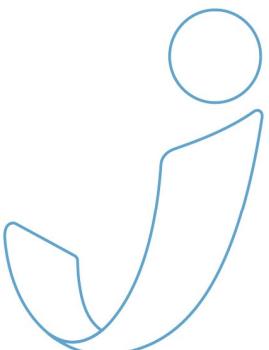
- 한편, 본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질 수 있음
- (데이터 의존성 및 범위 제약) 민간 빅데이터(통근·직장인구, 카드소비 등)는 반출·활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분석 범위와 내용이 일부 축소될 수 있고, 관광형 체류인구의 경우 정량적인 세부 raw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정성적 인터뷰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 (외부 환경 요인 고려의 부족) 정주 여건 환경에는 부동산 가격, 수도권 일자리 동향, 국가 차원의 저출산·인구정책 변화 등 거시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나 본 연구는 정읍시 내부 요인 중심의 분석에 치중하여, 광역·국가적 요인과의 연계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음
- (정책 실행 단계의 미흡) 본 연구는 약 5개월이란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주로 빅데이터 분석과 인구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집중되어 있음. 이에 실제 정책 실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성은 제한적이라 볼 수 있음.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정책 기획 단계에서의 보완이 요구됨



제2장

생활인구 제도 및 인구정책 현황 분석

1.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제도
2. 중앙 및 정읍시의 인구 관련 정책 현황
3. 체류인구 개념과 조작적 정의
4. 요약 및 시사점



제2장 생활인구 제도 및 인구정책 현황 분석

1.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제도

■ 생활인구 제도 도입 배경

- 국가적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새로운 인구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기존의 정주인구 개념에만 기반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는 인구 총합이 불변하는 제로섬(zero-sum) 게임에 머무르게 되며, 이는 지자체 간 과도한 인구 유치 경쟁만 부추길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었음
-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정부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과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 심화를 극복하고 인구의 이동성을 고려한 대안적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음

■ 생활인구 제도의 법적 근거와 개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2. 6. 10 제정)에 ‘생활인구’라는 인구개념이 공식 도입되었으며, 이후 행정안전부는 동법 및 시행령(23.1.1. 시행)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생활인구 개념을 구체화하였음
-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정의됨
- 구체적인 생활인구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인 주민등록인구, 둘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인 외국인등록인구(및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셋째,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인 체류인구로 구분됨

2. 중앙 및 정읍시의 인구 관련 정책 현황

가. 중앙정부 인구 관련 정책 현황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제정 배경 및 목적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2019년 말 ‘인구 데드 크로스(Dead-Cross)’ 발생 이후 본격적으로 인구감소 시대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6월 제정, 2023년 1월부터 시행됨
- 본 법의 제정 목적은 중앙정부 중심의 인구정책을 지역 주도형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여건에 기반한 맞춤형 대응을 제도화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적·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추진을 지원하는데 있음
-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함

■ 주요 내용

- (법적 기반 및 적용 원칙) 본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시·군·구 단위)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률, 고령화율,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인구 등 종합지표를 고려하여 지정됨
- 인구감소지역 89개가 최초 지정(‘21년 10월), 인구감소관심지역 18개가 지정·고시(‘25년 12월)되었으며, 본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다만 다른 법률에 더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활인구 개념 도입 및 범위 지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핵심적 특징 중 하나는 앞서 생활인구 개념과 도입 배경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에 국한된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 점임

-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상향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음
 - 시·군·구는 지역 설정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시·도는 이를 토대로 광역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가 차원의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국가사업 공모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배정(제13조),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제14조),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 지원(제20조) 등이 포함됨
 -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비율로 배분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내 규정)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교육·농어촌유학·의료·주거·교통·문화·외국인·노후 및 유휴시설 관리·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마련함(제21~28조)

[표 2-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요약

분야	주요 내용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의 방식으로民間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	유·초·중·고 유치원·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통합 운영, 교육시설 낙후 지역으로의 이전 지원, 교육경비 보조 및 해당 지역으로의 이전 지원 강화 등
농어촌유학	인구감소지역 외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료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진료 등의 사업 수행,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우선 지원
주거·교통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한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신축 및 주택개수·보수·철거 등 비용 지원,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교통서비스 지원 등
문화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 설립 가능,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해당 지역으로의 이전하려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외국인	체류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함, 사회통합 교육 제공 및 사회적응 지원

분야	주요 내용
노후·유류시설	노후·유류시설의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노후·유류시설의 복합적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및 시책 강구
산업	산업단지 조성 지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지원, 근로자 고용 확대 지원
국토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기반시설 설치 시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를 12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상향 정할 수 있음

출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1~28조 정리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 제정 배경 및 목적

- 지난 20여 년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별개로 추진되면서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중복 및 충돌로 인한 정책 비효율이 지속되어 옴
- 이에 따라, 두 정책을 통합·연계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체계를 확립하고자 본 특별법을 2023년 6월 9일 공포 및 동년 7월 10일에 시행함
- 법 제정의 근본 목적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이 스스로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자율적 분권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음
- 이를 통해 지역의 생활기반(정주·고용·산업 등)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실질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내용

- (법적 기반 및 적용 원칙) 본 특별법은 제2조 제12호 및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율·출생률·고령화율·유소년 및 생산가능인구 규모·인구이동 추이·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함

-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며, 지정 근거는 지역 인구정책 수립 및 생활인구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 (인구감소지역 지원 근거 및 생활기반 확충) 시행령 제19조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생활SOC 등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 학교, 문화시설, 관광·숙박·체육시설 등 생활인프라 확충
 -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지역특산품 홍보·판촉 지원
 - 노후주택 개보수비 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 인구감소지역 관련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구축
 - 공모사업 추진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배정
- 이러한 지원체계는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생활인구 유지 및 확충을 위한 생활기반 강화정책으로 기능함
-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역할)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 설치됨
- 위원회는 중앙정부 부처 간 정책 조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주요 분권·균형발전 정책의 실무를 총괄함으로써 정책 추진력을 강화
- 특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실질적 분권정책의 추진을 주도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실행성과 연계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함
-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역활력 제고) 본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 등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감면·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지역 내 기업활동 및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을 동시에 도모

3)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

■ 제정 배경 및 목적

- '25년 8월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
- 본 참고 조례안은 각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별 활성화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음
- 특히, 생활인구의 공식 제도화를 위한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인구 활성화 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추진해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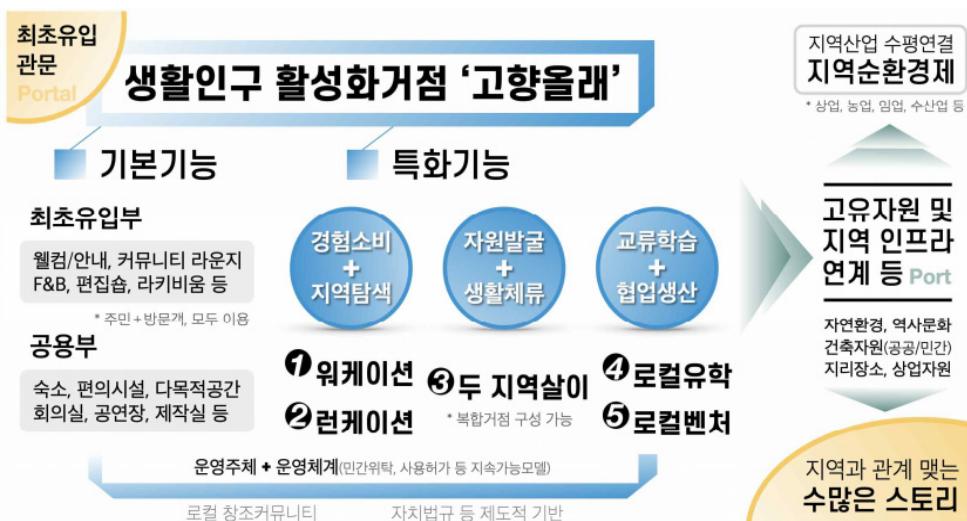
-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참고조례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특색을 반영하여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하여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예: 남원누리시민, 지평선생명도시김제시민, 거창한군민 등)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 마련)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 근거 마련
-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법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화

4) 생활인구 확대 관련 중앙정부 사업

가) 고향올래(GO鄉All來) 사업

■ 추진 목적

- 행정안전부는 '23년부터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를 지역에 유입시켜 경제 활력을 높이고 '살아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가는 목적으로 고향올래 사업을 추진중임.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거주시설 및 창업공간 조성, 교육·체험·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촉진하여, 단순 방문을 넘어 지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출처: 행정안전부(2025), 2025년 고향올래 사업 공모 추진계획(공모지침)

[그림 2-1] 고향올래 사업 주요 기능

■ 주요 내용

- '25년 기준, 신청 사업 유형은 워케이션(Workation), 런케이션(Learnkation), 두 지역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와 같이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규모의 경우 '25년 기준 개소당 최대 10억원을 선정(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매칭, 지방비 50%는 별도)

- *워케이션(Workation): 일(work)과 휴식(vacation)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반 조성
- *런케이션(Lernkation): 배움(learning)과 휴가(vacation)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반 조성
- *두 지역살이: 여가·휴양·체험 등 목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도록 지원
- *로컬유학: 도시와 다른 방식의 학습(생태교육 등)을 통해 도시학생과 가족의 지역유입을 유도
- *로컬벤처: 지역 내 창업과 취업을 활성화 해 정착을 유도

- '25년 고향올래 사업에서는 총 12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각 지자체별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2-2] 25년 고향올래 사업 선정 지자체별 주요 사업 내용

유형명	지자체	주요 사업 내용
워케이션	강원 삼척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척 웹툰 워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툰 관련 대학교, 작가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폐교를 웹툰 창작·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창작허브로 조성
	충북 청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빛 치유 워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 높은 자연환경과 숙박시설이 겸비된 자연휴양림에서 일과 쉼을 동시에 즐기는 공간 조성
	전북 진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안고원 힐링허브, 헤윰 치유라이프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안고원, 용담호, 흥삼스파 등 웰니스 시설을 함께 즐기는 건강치유형 워케이션 기반 구축
런케이션	전북 무주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그림책놀이 창작틔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디문화창작소, 태권V랜드 등 문화체험클러스터를 조성해 그간 외각중심 체류를 읍 까지 확장
두 지역살이	충남 부여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예술가의 토포필리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래 깊은 어흥민씨 고택에서 전국 각지의 예술가, 주민들과 교류하며 예술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전남 함평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한동네, 대동면 5도 2촌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력적인 65년 전통가옥과 뛰어난 인문학자원(호접몽가), 일자리(스마트팜 등) 경험을 제공해 정착 유도
	경북 청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4 Space On Stay 청도, 비어있는(0) 5일장의 4일을 채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와의 편리한 교통접근성을 기반으로 청도산업지원센터와 연계한 장기거주공간을 제공해 귀촌 활성화
로컬유학	강원 고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p한 농촌에서 유학海볼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학교의 현장형 직업체험(고성 키자니아) 등 풍부한 특화교육과 정주공간을 제공해 가족단위 유입 확대
	전북 완주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 마을이 하나되어 키우는 꿈 배움터, 운주농촌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돌봄, 다양한 진로체험이 제공되는 기숙형 유학센터와 학부모 일자리 매칭지원을 통해 정착 활성화
	경남 거창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아이들의 숲 속 한 학기, 북상포레 로컬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문교육도시의 노하우와 수려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골프 등 특화교육을 활성화해 지역유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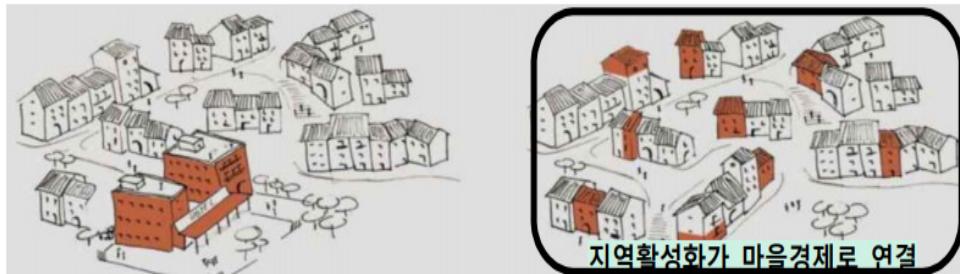
유형명	지자체	주요 사업 내용
로컬벤처	전북 익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와 미래를 잇는 청년 로컬벤처 플랫폼, 익산 솜솜 - 교통 이점(KTX역), 근대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주거와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을 통합지원해 현장형 창업타운 조성
	경북 상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상주도 로컬벤처, 상주올래? - 성신여대와 협업해 중심상권 내 2030 여성청년 맞춤형 창업·정책을 지원해 지역 유입·정착 활성화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 생활인구 유입·체류를 늘려 지역활력 높일 2025년 '고향올래' 12개 사업지 선정

나)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 추진 목적

- 행정안전부는 '23년부터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생활권,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음. 선정 지역에는 스스로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함



대규모 인프라형 지역발전 지향 ⇒ 종합적인 관점, 생활권 전반 활성화
출처: 행정안전부(2025), 2025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공모 추진계획(공모지침)

[그림 2-2]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개념도

■ 주요 내용

- 선정 지역에는 스스로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함, '25년 기준, '기획디자인 유형(지역 내 고유 자원·특색을 발굴, 중장기 활용

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검증 지원)’과 ‘특화인프라 유형(계획수립 지역이 지역특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이 있으며 각각 개소당 특별교부세 3억원, 4~10억원을 지원함

- ’25년 기준, 총 18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지자체별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음

[표 2-3] 25년 생활권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선정지

유형	선정 지자체	사업명	교부액(원)
기획 디자인 (개소당 3억)	강원 평창군	미탄 아웃도어 빌리지, 로드트립 & 트레킹 거점마을	3억
	대전 중구	Local Maker's Face, 손수 짓는 대사날망마을	3억
	충북 보은군	라이더 타운, 라이더 링크 시티(Rider Link City)	3억
	광주 남구	미래를 위해 함께 걷는 푸른 동행, “백운 푸른 광장”	3억
	전북 남원시	소리판으로 재생>하는 “남원풍류”	3억
	경북 영주시	굿모닝! 관사골	3억
	경북 문경시	액티브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오래여~ 점촌점빵길”	3억
	경북 칠곡군	자전거 타기 좋은, 머물기 좋은 “칠곡 페달스테이션”	3억
	울산 중구	과거와 미래를 잇는 “성남열차”	3억
	경남 남해군	남해의 시작과 끝 “오시다 남해, 모이라 남해”	3억
특화 인프라 (개소당 4~10억)	경남 합천군	합천, 별 내린 마을 “합천 크레이터 빌리지”	3억
	강원 인제군	꽃풀소를 살리는, 꽃풀소가 살리는 “달뜨는마을”	10억
	세종 본청	연동 리부트 “장욱진 문화마을”	10억
	전남 나주시	나주읍성 빽대, 세계로 잇다	9억
	전남 강진군	돌담 따라 에코뮤지엄 “병영 한골목길”	10억
	경북 의성군	술래자들이 함께 빚는 “안계 술래길”	5억
	울산 울주군	삶과 도시의 건강한 전환 “온산 그린타운 팩토리”	10억
	경남 밀양시	시간으로 잊고 문화로 염는 “밀양 해천”	4억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 동네만의 특성 살려 지역활력 높인다 생활권 로컬브랜딩 18곳 선정

- 충북 보은군은 외지 청년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회인면 일대를 특화할 예정임. 피반령과 수리티재 등지의 자전거·오토바이 코스를 중심으로, 기존의 경유지 개념에서 벗어나 정비, 숙박, 안내, 특산품 구매가 모두 가능한 ‘머무는 라이더 타운’으로의 전환을 추진
- 경북 문경시는 원도심의 대표 거리인 점촌점빵길을 고령층의 활동 중심지로 새롭게 탈바꿈시킬 계획임. 특히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지역 최초의 근대식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활력 거점이자 방문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점빵길 관계안내소’로 활용할 예정
- 경남 합천군은 국내 유일의 운석 충돌 흔적이 남아있는 초계면 일대를 ‘별 내린 마을’로 개발하여 지역

특성화를 이를 예정임. 지질학적 자원을 기반으로 지오토레일(지질 탐방 코스)과 패러글라이딩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연과 연계한 체류형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

- 경북 의성군은 지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안계평야와 안계면 중심지를 연결하는 ‘안계 술래(酒來)길’을 조성하고자 함. 양조 전문가, 요리연구가, 예술인, 문화기획자, 여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하여 추진되며, 단순한 주류 테마를 넘어 ‘쌀’을 중심으로 한 농경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초점을 둠. 이에 따라, 경관 요소와 체험, 예술, 음식, 전통주가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 콘텐츠와 조합형 체험(Pairing Program) 개발도 함께 진행될 예정
- 경남 밀양시의 해천 일대는 읍성 해자 유적을 비롯해 500년 역사를 지닌 아리랑시장, 독립운동가의 생가, 농잠학교로 출발한 옛 밀양대 등 역사적 장소가 밀집된 지역임. 이러한 역사성과 생태하천인 해천의 특성을 살려,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수공예 기반 청년 창업공간 조성이 추진됨. ‘밀양다움’을 담은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는 느린물결마켓, 공동제작 공간(크래프트숍), 해천스토어 등 다양한 창업 플랫폼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나. 정읍시 인구 관련 정책 현황

1)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제정 배경 및 목적

-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정읍시는 이 법에 근거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정읍시는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2023년 5월 10일 제정 및 시행하였으며, 본 조례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시책 및 지역활력 도모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 등을 통한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법적 기반을 제공함

■ 주요 내용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지원 시책을 마련함

-
- 이러한 정주여건 개선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역량 강화,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생활환경 개선, 재난·범죄 예방 등 법에 근거한 지원사업을 생활인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춤
 - 동시에 생활 기반 서비스 확충, 생활편의 인프라 보강, 체류 지속성 제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생활인구 지역 내 활동·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함
 - (문화·관광·체육시설 지원) 지역 생활·여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러한 시설 지원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절차와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함
 - 이를 바탕으로 문화·여가 기반을 강화하고 체류·정주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공간 조성이 가능해져, 지역 매력도 향상과 생활인구 확대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함
 - (노후·유류시설의 활용) 지역 활력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노후·유류시설의 활용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며, 활용 확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수립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
 -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방치된 노후공간을 생활 SOC, 커뮤니티 공간, 청년·중장년 활동공간 등으로 전환할 수 있어 지역의 생활 기반 확충과 인구 유입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음

2) 2025년도 정읍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 추진배경 및 목적

- 정읍시는 인구감소 심화와 생산가능인구 축소가 동시에 발생하며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생활·기반시설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이는 지방소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

-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인구감소의 구조적 요인(출산, 사망, 전출입, 보육,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읍시의 실질적 여건에 부합하는 중장기 실행계획을 마련하고자 본 계획수립을 추진함
 - 본 계획은 정주환경, 일자리, 보육·교육 및 생활인구 등 핵심 분야의 수요를 통합하는 전략적 정책 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주요 내용

- 정읍시 인구감소 원인 및 구조를 진단하고,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여건 강화, 보육·교육환경 확충, 생활인구 확대라는 4가지 전략 아래 총 27개 실천 사업들을 구성하였으며, 4가지 핵심 전략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출 감소 및 인구 유입 확대) 빙집·노후주택 정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악취 저감시설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생활환경 민원을 해소
- 더불어 복지택시·통학택시 운영으로 농촌 및 외곽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보장하고, 귀농·귀촌 정착지원과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경감 정책을 연계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함
- (일자리 여건 개선을 통한 일하고 싶은 환경 구축) 청년 창업 생태계 강화 및 취업·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제약산업 등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제공 및 산학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지역인재의 유입과 정착을 촉진
- (보육·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자녀 키우기 좋은 도시 구축)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모자건강관리사업 확대를 통해 출산·건강 인프라를 확충
- 육아수당·부모급여 지원 및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다문화가족 지원 및 가족센터 기능 확대를 통해 통합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 재능 바우처·장학금 지원으로 교육 격차를 완화함

-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활기 있는 도시 구축)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위한 공공기숙사 운영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 정읍천 중심의 야간관광 및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치유농업클러스터 및 치유의 숲 조성을 통해 도시민 유입 기반을 강화하고, 농촌유학·가족 체류형 주거 지원을 통해 생활인구의 선순환 유입 구조를 마련함

[표 2-4] 2025년 정읍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전략별 세부사업

[전략 1]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출 감소 및 인구 유입 확대	
실천사업명	사업명
1-1.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구축	빈집정비 재생사업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저소득층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약취 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축산·약취 저감사업 인구활력사업
1-2. 주거비 부담완화를 통한 유입인구 안정적 정착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
1-3. 대중교통 열악지역 접근성 개선	서민교통 이용 지원강화
1-4. 귀농·귀촌인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촌 지원 확대
[전략 2] 일자리 여건 개선을 통한 일하고 싶은 환경 구축	
실천사업명	사업명
2-1.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창업지원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
2-2. 정읍시민 취업 및 창업 활성화 지원 확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취업지원 정읍형 상생일자리 사업
2-3. 취업연계 특성화 교육 운영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사업
[전략 3] 보육·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자녀 키우기 좋은 도시 구축	
실천사업명	사업명
3-1. 출산 인프라 확충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3-2. 영유아 의료·건강 인프라 확충	모자건강관리사업 보육료지원(육아수당)
3-3. 아이돌봄 체계 개선 및 보육 인프라 확충	건강가정·나문화가족 지원 정읍시 함께누리 가족센터 조성 별별꿈 재능 바우처 지원
3-4. 특성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인재 장학금제 확대
[전략 4]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활기 있는 도시 구축	
실천사업명	사업명
4-1. 지역특화형 외국인 근로자 유입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4-2.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확충	정읍천 관광호텔레이스 조성사업 정읍형 치유농업클러스터 조성
4-3. 도농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도시민 유치 확대	아양산 일원 치유의 숲 조성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2025), 2025년 정읍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3) 2026년도 정읍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 추진배경 및 목적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생산가능인구 축소로 지역경제·교육·의료·복지 전반의 기반 약화가 가속되고 있어,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지역 여건을 분석한 결과, 정읍시는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서부권 광역 생활권과의 높은 연계성 등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보육·출산·농촌 관련 생활기반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생활인구 및 정주인구 유입이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이 확인됨
- 특히, 생활인구 유입 측면에서도 가을철 단기 관광에만 집중되고 체류 배수가 낮아(최하위권) 계절적·형태적 한계가 명확히 도출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4계절 내내 유입 가능한 스포츠·치유·반려·농촌 등 신규 콘텐츠 기반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분석과 더불어 실제 지역 정책수요를 조사한 결과, 시민들 역시 보육·출산·생활체육·정서치유·반려문화 등 생활기반 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거점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됨
- 이에 정읍시는 상기 분석 결과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핵심 재원으로 활용하고 스포츠·보육·출산·치유·반려를 핵심축으로 하는 6대 기금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인구 확충, 정주여건 개선, 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2026년 투자계획을 수립함

■ 주요 내용

- (기금사업 기본방향 및 전략 체계) 주민의 실제 생활수요(보육·체육·치유·반려·출산)를 기반으로 6개(총 7개 사업) 우선순위 사업을 설정하고, 정읍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연차별 투자전략을 수립함
- '일상 속 회복과 활력, 사람이 모이는 성장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스포츠·보육·치유·반려·출산 분야에서 생활인구 확대 및 정주 매력 제고를 종합적으로 추진함
- 기금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문조사, 지역 여건 분석, 전문가 검토를 통해 도출된 중점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화함
- (추진전략 및 우선순위 사업) 투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읍시는 인구감소 원인, 생활수요, 지역자원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3대 추진전략(① 스포츠 인프라 및 콘텐츠 확충, ② 정읍시 보건 및 보육 통합 서비스 강화, ③ 농생명산업의 생활화 전환)을 설정하고, 각 전략별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우선순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음
 - (추진전략 ① 스포츠 인프라 및 콘텐츠 확충) 정읍체육공원을 중심으로 경기장·실내체육관·장애인 체육 시설 등 스포츠 인프라를 집적·고도화하여,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전국단위 대회·전지훈련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임
 - 중점사업인 정읍 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해 축구, 테니스 등 종합경기장을 확충하고, 광역체전·전국대회·전지훈련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연간 체육 체류인구 대폭 확대
 - 우선순위 사업인 정읍 스포츠 아레나 조성을 통해 노후·비규격 실내체육관을 대체하고, 배드민턴·농구·배구 등 실내종목의 전국 규모 대회 유치가 가능한 전문 경기장을 확보
 - 패럴 스포츠 론볼파크 조성을 통해 장애인·고령층 등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체육 공간을 확충하고, 전국 단위 론볼대회 개최를 통해 스포츠 체류인구와 지역 인지도를 동시에 제고
 - (추진전략 ② 정읍시 보건 및 보육 통합 서비스 강화) 영유아·산모를 대상으로 보건·보육·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인프라를 확충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젊은 세대·신혼부부의 정착 매력을 높이는 전략임
 - 정읍 키즈플레이존 조성을 통해 돌봄·놀이·체육·문화 기능을 결합한 어린이 복합공간을 구축하고, 서부

권 영유아 가구를 아우르는 일상 돌봄·놀이 거점으로서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

-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으로 분만취약지·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읍·고창·김제·부안 등 서부권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 산후돌봄 인프라를 마련하여 출산환경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강화
- (추진전략 ③ 농생명산업의 생활화 전환) 정읍의 농생명 자원과 반려동물 산업을 연계하여 치유·여가·관광이 결합된 생활형 농생명 콘텐츠를 육성하고, 도시민 방문·체류를 유도하는 전략임
- 치유농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농업·복지·의료를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유농업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도시민 체험·장기체류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를 뒷받침함
- 정읍 반려치유동산 조성으로 반려동물 복지·교육·치유 기능을 통합한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방문객의 정서 치유 기반을 강화하고, 반려가족 대상 체험·관광 콘텐츠를 통해 반려 관광 수요와 지역 내 체류·소비를 확대함
- 이러한 3대 전략과 7개 사업을 통해 스포츠·보육·보건·치유·반려 분야의 신규 인프라와 콘텐츠를 연계함으로써, 연중 방문 가능한 체류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외부 생활인구의 반복 방문·장기 체류 및 정주 전환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자 하였음
- (연도별 재원 배분 및 투자 구조) 2026년 기금 투자규모는 약 16,000백만 원으로 편성하며, 스포츠·보육·치유·반려 사업에 집중 투자함.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기금·광역기금·시군비·국비 등 복합 재정구조를 활용함
- (운영·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정읍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 점검·평가·성과환류 체계를 운영함
- 사업별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이용률, 체류인구 증가, 대회유치 건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등 정량·정성 지표에 기반한 성과관리를 실시함
- 완공 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인력 확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



[그림 2-3] 정읍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비전, 목표, 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체계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2025), 정읍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3. 체류인구 개념과 조작적 정의

가. 체류인구 개념 도입 배경

- 최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정주인구’ 중심의 인구개념과 정책은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음
- KTX 등 교통망 확충, 통신 기술의 발달, 일-생활 균형 중시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는 N도 7촌, 워케이션(Workation), 장거리 통근·통학 등 다거점(Multi-residence) 생활 양식을 확산시킴
- 이에 따라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체류·거주하며 행정 수요를 유발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인구 집단의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며, 이러한 배경하에 체류인구 개념이 학술적·정책적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나. 체류인구 개념의 국제적 맥락

- 체류인구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기보다, 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적 필요에 따라 비거주 인구의 활동·관계·기여도를 포착하기 위한 다양한 유사 개념을 발전시켜 왔음
- 특히, 이동성 증가, 다거점 생활의 확산, 관광·여가 소비의 성장, 농촌 및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심화 등 공통된 구조 변화 속에서, 비정주 인구를 독립된 정책대상으로 인식 하려는 흐름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국외 사례는 비정주 인구를 단순히 ‘방문객’이 아닌 지역경제·지역서비스 수요·공공재 이용 등에서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파악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한국의 생활 인구(체류인구) 개념 정립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음

■ 국외 사례

- (북유럽) 여가 거주자(Recreational Residents)
 - 북유럽 각국은 주말 주택 또는 휴가용 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여가 거주자(Recreational Residents)로 지칭하며 그 개념이 발전 중임
 - The Island Committee(2007)에 따르면, 여가 거주자란 법적 거주자는 해당 지역에 두지 않으나, 휴양·여가 목적인 주택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며 연간 80~100일 정도 체류하고, 지역 내 소비·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비정주 인구 집단을 의미함
 - 이들은 지역경제 유지, 서비스 수요 창출, 커뮤니티 활동 참여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핀란드에서는 약 190만 명 규모로 파악됨
- (독일) 복수주소제 및 제2거주지세
 - 독일은 법적으로 제2주소제를 채택하여 주 거주지와 부거주지를 모두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함
 - 일부 지자체는 부거주지 등록 주민에게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수입 확보와 인구 증대를 유발하는 효과를 보임
 -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도 독일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비거주 인구를 제도적으로 포섭하는 추세가 확산됨
- (일본) 관계인구 개념 도입 및 정책화
 - 일본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류인구와 정주인구 사이의 중간인구인 관계인구 발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2018년부터 관계인구 관련 사업을 실시함
 - 구체적으로 관계인구란 특정 지역에 정주하지 않더라도 지역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며 재방문 및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교류하는 인구를 의미하며, 일본 총무성은 이주 지향 및 관계인구 지향 정도에 따라 4가지 유형(근·원거리 지역 원고자, 왕래자,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구분함
 - 또한, 관계인구 확대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모델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에는 30개 지자체, 2019년에는 44개 지자체에서 관계인구 창출·확대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일본 전역에서 지역 활성화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음
 - 특히, 야마나시현은 2017년 '야마나시 링키지(Linkage)' 계획을 발표하여, 교류인구 중 야마나시현을 지지하고 경제적 공헌도·애착·귀속의식이 높은 사람을 인구로 정의하였고 2018년 6월 목표치인 6만 5천명 달성을 성공함

다. 체류인구 개념 정의

- 앞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의 생활인구 내 체류인구 정의와 같이, 체류인구는 주민등록을 한 정주인구와 달리 특정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르며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인구로 정의됨
- 단순히 교통이나 이동을 목적으로 지역을 잠시 통과하는 유동인구와는 달리, 체류인구는 식사·쇼핑·관광·업무 등 해당 지역에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인구 집단을 의미하며, 국가데이터는 이러한 실질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최소 시간을 고려하여 ‘1일 3시간’이라는 조작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와 정책은 체류인구를 단순히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하고 소비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활동 주체로서 파악함
- 한편, 2024년 1월 국가데이터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시범산정 결과」는 체류인구를 단일 집단으로 보지 않고, 지역 특성, 체류 목적, 인구학적 특성 및 체류 패턴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① 관광 유형: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규모가 크고, 주말 체류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 ② 통근 유형: 주중(평일) 체류 비중이 높고, 비숙박형 체류 비중이 큰 양상이 확인
 - ③ 통학 유형: 경남 거창군을 해당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 ④ 군인 유형: 군부대 입지 등으로 특정 연령·성별 구성 특성이 두드러지는 유형으로 제시되며, (일부 지역에서) 숙박형 체류 비중/체류일수 특성을 함께 언급
 - ⑤ 외국인 유형: 외국인 체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형으로 분류
- 이러한 유형화는 체류인구라는 개념이 단순히 지역 내 머무는 인구를 총칭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환경과 방문목적에 따라 관광형, 통근형, 통학형 등 상이한 활동 패턴을 가진 하위 집단들의 집합으로 정의됨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라. 체류인구의 조작적 정의

■ 체류인구 유형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

- 본 연구는 체류인구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지방행정연구원(2025)에서의 체류인구 분류 체계를 준용함
- 해당 연구는 체류인구를 체류의 주기성과 방문 목적을 기준으로 가장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 지역 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 집단을 식별하는데 적합함

[표 2-5] 체류인구 유형 및 개념 정의

인구유형		개념 정의	비고
비정기적	단순방문인구	본인의 거주지 외 지역에 일시적인 활동(소비·의료·관광·업무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되, 숙박없이 당일 방문하는 인구	방문횟수에 따라 일회성 방문인구, 반복성 방문인구로 구분됨
	관광·휴양·여기인구	본인의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관광·휴양·여가 또는 기타 레저활동 등을 목적으로 1박 이상 숙박하며 해당 지역에 단기간 체류한 인구	업무형 체류인구, 5도 2촌 인구 포함 가능
정기적	통근인구	본인의 거주지 외의 지역에 근로 및 경제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동하여 근무를 수행하는 인구로서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반복적으로 체류하되 거주지로 귀가하는 인구	일자리(업무)목적의 거주형 체류인구와 구분
	통학인구	본인의 거주지 외의 지역에 학업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동하여 교육을 받는 인구로서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반복적으로 체류하되 거주지로 귀가하는 인구	학업(교육) 목적의 거주형 체류인구와 구분
	거주형 체류인구	본인의 거주지 외의 지역에 근로·학업·군복무·기타 생활 목적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연속적으로 숙박하며 생활거점을 형성한 인구	-
기타	장기체류인구	본인의 거주지 외의 지역에 근로·학업·군복무·기족·요양 등의 이유로 91일 이상 연속적으로 체류하는 인구	군사업무, 일자리, 교육 목적 인구 포함
	계절성 체류인구	본인의 거주지 외의 지역에 근로·학업·기족·요양 등의 이유로 특정 계절에 연속적으로 체류하는 인구	-

출처: 행정안전부·지방행정연구원(2025), 2024년도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성 분석 연구

■ 본 연구에서의 체류인구 조작적 정의

- 위 선행연구의 분류 체계를 준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읍시 체류인구 분석 대상을 아래 [표 2-6]과 같이 정기적 체류인구와 비정기적 체류인구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음

[표 2-6] 체류인구의 조작적 정의

구분	비정기적 체류인구	정기적 체류인구
정의	본인의 거주지 외 여가, 휴식, 관광 등 일시적 목적이나 비일상적 사유로 방문·체류하는 인구	본인의 거주지 외 특정 목적(통근·통학, 근로·학업·군복무·기타생활목적 등)을 가지고 정기적 또는 일정 기간 이상 반복적으로 체류하는 인구
주요 유형	관광, 휴양, 여가인구	통근·통학, 정기 업무형, 정기 거주형(농촌유학 등) 인구

4. 요약 및 시사점

가. 연구결과 요약

■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로의 인구 패러다임 전환

- (기존 정책의 한계와 전환) 국가적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주민등록 기반의 정주인구 유치 정책은 지자체 간 인구를 뺏고 뺏기는 ‘제로섬(Zero-sum) 경쟁’의 한계를 드러냄. 이에 정부는 인구의 이동성과 활동성을 반영하여 지역 실질 혜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활인구’ 패러다임을 도입함
- (법적 정의와 외연 확장)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정의됨. 이 중 특히 체류인구는 월 1회, 1일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인구(통근·통학·관광 등)로 구체화되어, 정책의 대상이 기존 정주인구에서 지역 생활권을 공유하는 잠재 인구까지 대폭 확장됨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정책적 대응

-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 원)을 조성하여 지자체의 인구 활력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보통 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음
- (정읍시의 대응 방안)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2023.5.)를 제정하여 생활인구 확대 시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더불어 「2025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를 포함한 4대 전략, 27개 세부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서는 스포츠·보육·출산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여 생활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음

■ 체류인구의 개념적 의의 및 분석 프레임워크 정립

- (개념의 보편성과 국제적 정합성) 현대 사회의 증대된 인구 이동성(Mobility)을 반영하여 비거주 인구를 지역의 실질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세계적인 정책 흐름임. 한국의 체류인구 정책은 일본의 ‘관계인구’, 독일의 ‘복수주소제’ 등 선진국의 정책 사례와 궤를 같이하는 타당하고 보편적인 개념임
- (조작적 정의 및 유형화) 체류인구를 단일 집단이 아닌 유형과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사례들이 존재하며, 이 중 행정안전부·지방행정연구원(2025)의 분류 체계를 준용하여 정읍시 인구 분석을 위한 조작적 정의를 정립함. 구체적으로 ‘정기적 체류인구(통근·통학 등 고정적 방문)’와 ‘비정기적 체류인구(관광·여가 등 일시적 방문)’로 유형화하여, 각 집단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수립의 분석 프레임워크로 활용함

나. 시사점

■ 생활인구 관점의 정책 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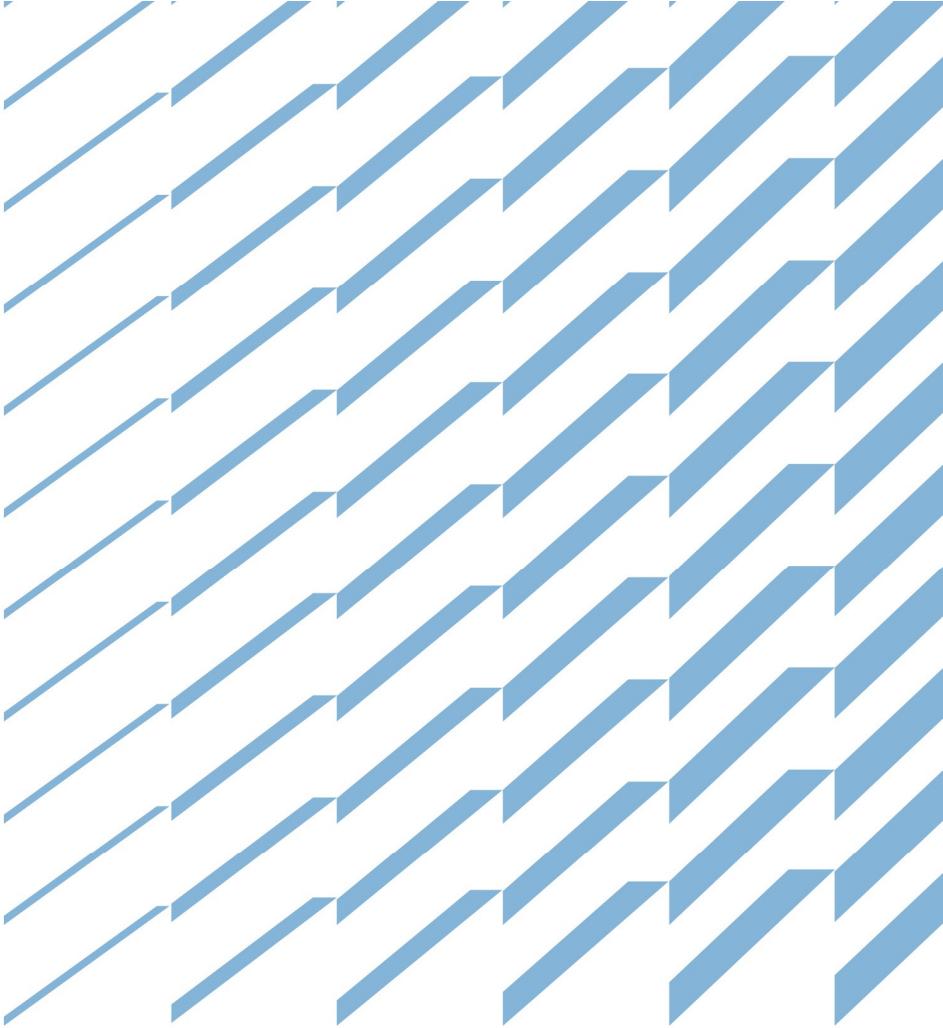
- (정주인구 중심 정책의 한계 극복과 외연 확장) 감소하는 정주인구만을 정책 대상으로

삼는 기준 접근은 지자체 간 한정된 인구를 둘러싼 소모적인 경쟁을 심화시킬 뿐, 지역 활력 유지의 근본적 대안이 되기 어려움. 이에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실제 지역에 머무르며 소비·활동을 수행하는 ‘비정주 인구’를 지역의 핵심 자원(Resource)으로 재정의하고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인구감소 시대에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필수적인 전략임

- (생활인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선순환 구조 창출) 생활인구 기반 접근은 정책 대상을 단기 방문자뿐만이 아니라, 반복 체류, 통근·통학 등 지역과 생활 기반 접점을 가진 집단으로 구체화함. 이는 지역 내 소비 전환을 유도하고 공간에 대한 친숙도를 축적하게 되어, 실질적인 인구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함
- (생활인구 개념 도입을 넘은 정책의 구체화 필요) 해외에서도 비정주 인구를 독립된 정책 대상으로 인식 및 관리하여 지역 활력의 동력으로 삼는 사례가 보편화되고 있음. 그러므로 선진 사례에 기반하여 생활인구 관련 정책 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함. 일례로, 일본의 관계인구 관련 제도 및 독일의 복수주소제와 같은 수단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체류인구 유형화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 필요

- (획일적 정책의 한계와 유형화) 체류인구는 이들의 방문 목적, 방문 주기 등 특성에 따라 다층적인 집단으로 구분되므로, 기존의 획일적인 유입 정책으로는 한계가 존재함. 앞선 분석 사례와 같이 체류인구는 관광형, 통근형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각 유형별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요구하는 행정 수요가 상이함
- (유형별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 필요) 따라서 향후 인구정책은 체류인구의 세분화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야 함. 예를 들어, 관광인구와 같은 비정기적 체류 인구를 대상으로는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과 단기 숙박 환경 개선을 통해 체류 만족도 제고 및 소비를 촉진하여야 하며, 통근인구와 같은 정기적 체류인구를 대상으로는 교통 여건 개선과 주중 생활편의 서비스 강화를 통해 정주 유인책 등을 제공해야 함



제3장

정읍시 체류인구 현황 및 특성 분석

1. 정읍시 체류인구 현황 분석
2. 빅데이터 기반 정기적 체류인구 특성 분석
3. 심층면접 및 전문가 자문 기반 체류인구 특성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정읍시 체류인구 현황 및 특성 분석

1. 정읍시 체류인구 현황 분석

가. 정읍시 체류인구 현황

1) 정읍시 생활인구 규모

- 정읍시의 2025년 1/4분기 생활인구 규모는 942,494명이며, 이 중 등록인구는 314,144명이고, 체류인구는 628,351명으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2배를 기록함
- 2024년을 기준으로 생활인구 규모 추이를 보면, 4/4분기에 1,340,796명을 기록하여 해당 기간의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1/4분기의 경우 가장 적은 생활인구를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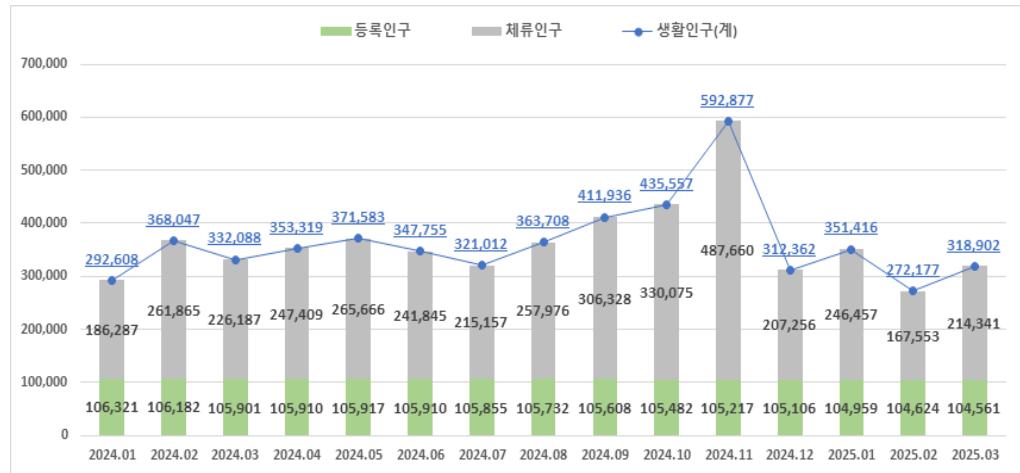
[표 3-1] 정읍시 생활인구 규모 추이

(단위: 명, 배)

구분	24년 1/4	24년 2/4	24년 3/4	24년 4/4	25년 1/4
생활인구	992,743	1,072,657	1,096,656	1,340,796	942,495
등록인구(A)	318,404	317,737	317,195	315,805	314,144
주민등록	310,271	308,875	307,640	306,464	305,143
외국인	8,133	8,862	9,555	9,341	9,001
체류인구(B)	674,339	754,920	779,461	1,024,991	628,351
배수(B/A)	2.1	2.4	2.5	3.2	2.0

출처: 국가데이터처,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저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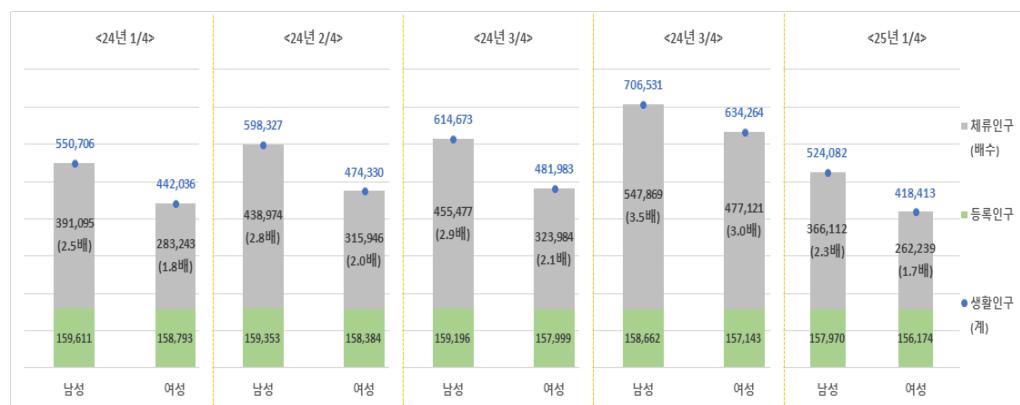
- 정읍시의 등록인구 중 주민등록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이나, 외국인 인구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체류인구는 특정 기간(11월)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사실상 정읍시의 생활인구는 체류인구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인구는 농번기 수확철인 10월을 중심으로 계절근로자의 유입의 영향을 받고, 체류인구는 11월을 중심으로 단풍시기의 영향을 받고 있음



[그림 3-1] 정읍시 생활인구 규모 추이

2) 정읍시 성별 생활인구

- 정읍시 생활인구 규모를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등록인구의 경우 남녀 규모의 큰 차이는 없으나, 체류인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특히, '24년 3/4분기 남성의 체류인구 배수는 3.5배를 기록하여 가장 높았음



[그림 3-2] 정읍시 성별 생활인구 규모 추이

[표 3-2] 정읍시 성별 생활인구 규모 추이

(단위: 명,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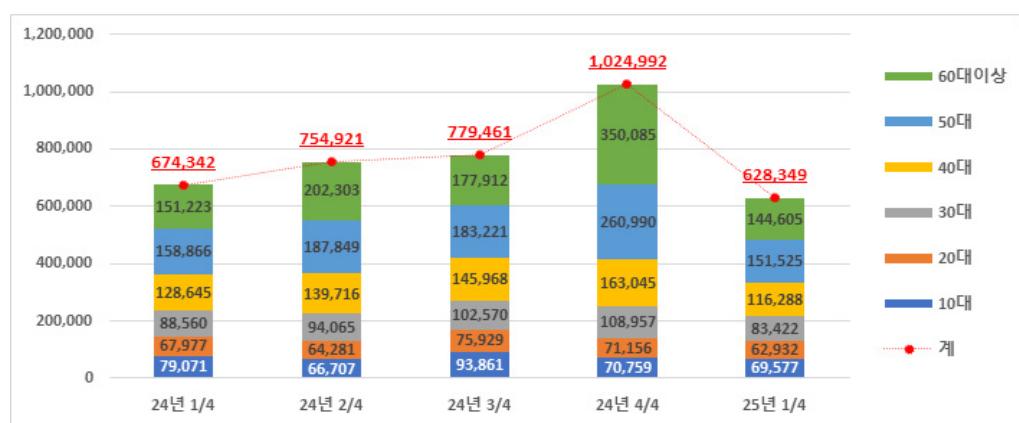
구분		24년 1/4	24년 2/4	24년 3/4	24년 4/4	25년 1/4
생활인구	남	550,706	598,327	614,673	706,531	524,082
	여	442,036	474,330	481,983	634,264	418,413
등록인 구(A)	남	159,611	159,353	159,196	158,662	157,970
	여	158,793	158,384	157,999	157,143	156,174
체류인 구(B)	남	391,095	438,974	455,477	547,869	366,112
	여	283,243	315,946	323,984	477,121	262,239
	차이	107,852	123,028	131,493	70,748	103,873
배수(B/A)	남	2.5	2.8	2.9	3.5	2.3
	여	1.8	2.0	2.1	3.0	1.7

출처: 국가데이터처,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저자 구성

3) 정읍시 연령대별 생활인구

- 정읍시 연령대별 체류인구 규모를 살펴보면, 50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24년 1/4분기 46.0%, 2/4분기 51.7%, 3/4분기 46.3%, 4/4분기 47.1%로 연평균 5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4/4분기(10~12월)의 경우 5060대가 체류인구의 59.6%로, 100명 중 약 60명은 5060대였음



[그림 3-3] 정읍시 연령대별 체류인구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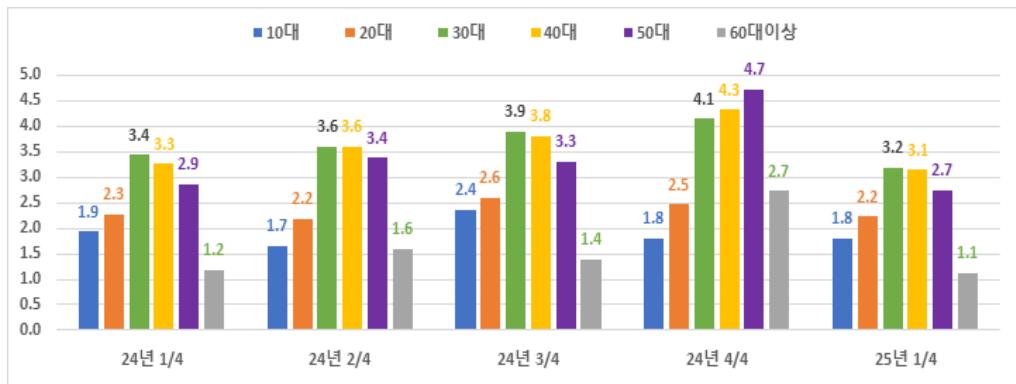
- 연령대별 체류인구 배수를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인 청년층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3040대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4/4분기의 경우만 예외로 50대가 4.7배를 기록하였음
- 정읍시 체류인구의 대부분은 5060대가 차지하지만, 정읍시 인구구조 특성을 반영하여 고령층의 체류인구 배수는 60대이상에서 1.1배~1.6배로 연령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3-3] 정읍시 연령대별 생활인구 규모 추이

(단위: 명, 배)

구분	24년 1/4	24년 2/4	24년 3/4	24년 4/4	25년 1/4
생활 인구	10대	119,969	107,055	133,758	110,104
	20대	97,939	93,734	105,145	100,034
	30대	114,347	120,205	128,981	135,246
	40대	168,067	178,504	184,351	200,822
	50대	214,281	243,478	238,821	316,405
	60대이상	278,143	329,682	305,600	478,186
등록 인구 (A)	10대	40,898	40,348	39,897	39,345
	20대	29,962	29,453	29,216	28,878
	30대	25,787	26,140	26,411	26,289
	40대	39,422	38,788	38,383	37,777
	50대	55,415	55,629	55,600	55,415
	60대이상	126,920	127,379	127,688	128,101
체류 인구 (B)	10대	79,071	66,707	93,861	70,759
	20대	67,977	64,281	75,929	71,156
	30대	88,560	94,065	102,570	108,957
	40대	128,645	139,716	145,968	163,045
	50대	158,866	187,849	183,221	260,990
	60대이상	151,223	202,303	177,912	350,085
배수 (B/A)	10대	1.9	1.7	2.4	1.8
	20대	2.3	2.2	2.6	2.5
	30대	3.4	3.6	3.9	4.1
	40대	3.3	3.6	3.8	4.3
	50대	2.9	3.4	3.3	4.7
	60대이상	1.2	1.6	1.4	2.7

출처: 국가데이터처,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저자 구성



[그림 3-4] 정읍시 연령대별 체류인구 배수 추이

4) 인구감소지역별(전북) 생활인구

- 전북의 경우 총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임. '24년 4분기 기준 생활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정읍시가 435,55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창군(409,641명), 부안군(391,869명) 등의 순이며, 장수군이 98,317명으로 가장 적었음
- 10개 시군의 체류인구는 고창군(355,907명), 부안군(342,353명), 정읍시(330,075명) 순으로 많았고,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 비중은 임실군이 9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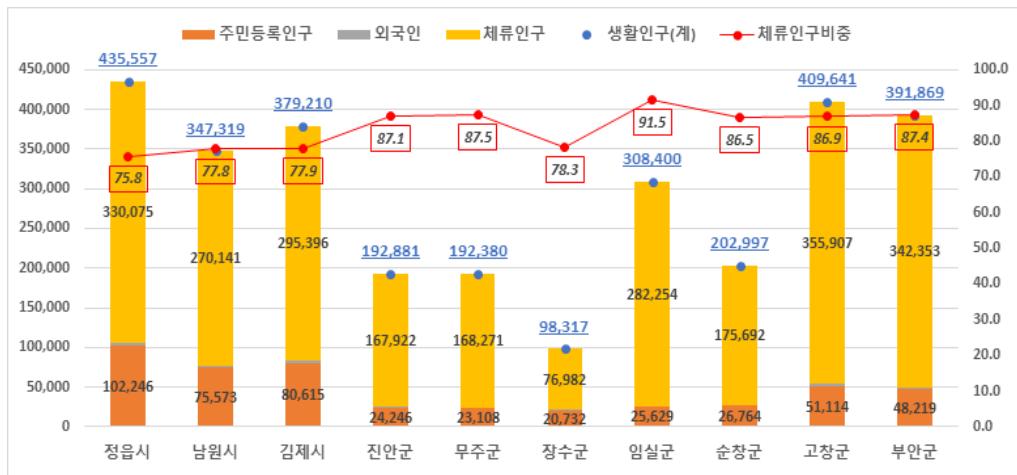
[표 3-4] 전북 인구감소지역별 생활인구 규모

(단위: 명)

구분	인원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정읍 시	계	435,557	229,614	205,943	35,647	32,180	44,246	65,685	104,660	153,140
	주민등록	102,246	51,033	51,213	13,023	8,730	7,723	12,216	18,202	42,352
	체류인구	330,075	176,634	153,441	22,479	22,513	35,449	52,994	86,154	110,487
	외국인	3,236	1,947	1,289	145	937	1,074	475	304	301
남원 시	계	347,319	187,818	159,500	32,604	25,553	37,686	55,729	82,898	112,848
	주민등록	75,573	37,112	38,461	9,834	5,967	5,523	8,616	13,635	31,998
	체류인구	270,141	149,950	120,190	22,711	19,189	31,692	46,837	69,040	80,671
	외국인	1,605	756	849	59	397	471	276	223	179
김제 시	계	379,210	210,701	168,508	37,866	29,703	44,677	64,241	84,253	118,469
	주민등록	80,615	40,336	40,279	9,152	6,472	6,352	8,768	13,241	36,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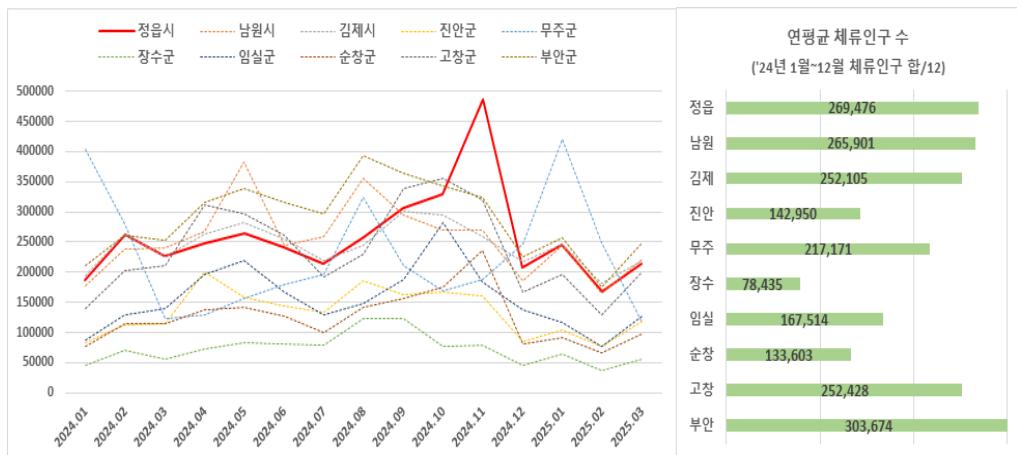
구분	인원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체류인구	295,396	168,184	127,211	28,594	22,171	37,021	55,102	70,832	81,675
	외국인	3,199	2,181	1,018	120	1,060	1,304	371	180	164
진안군	계	192,881	105,456	87,425	13,475	10,236	16,887	29,149	50,198	72,935
	주민등록	24,246	12,396	11,850	2,367	1,572	1,359	2,107	4,223	12,618
	체류인구	167,922	92,665	75,257	11,103	8,516	15,203	26,909	45,914	60,276
	외국인	713	395	318	5	148	325	133	61	41
무주군	계	192,380	107,433	84,947	18,715	11,075	18,881	30,144	48,057	65,506
	주민등록	23,108	11,602	11,506	2,476	1,516	1,411	2,357	4,046	11,302
	체류인구	168,271	95,256	73,015	16,233	9,386	17,083	27,471	43,918	54,178
	외국인	1,001	575	426	6	173	387	316	93	26
장수군	계	98,317	57,610	40,707	7,405	5,804	9,364	16,088	25,868	33,789
	주민등록	20,732	10,412	10,320	2,268	1,272	1,192	2,052	3,537	10,411
	체류인구	76,982	46,875	30,107	5,119	4,352	7,975	13,940	22,268	23,329
	외국인	603	323	280	18	180	197	96	63	49
임실군	계	308,400	153,762	154,638	35,254	17,942	27,084	40,294	68,094	119,731
	주민등록	25,629	13,224	12,405	2,434	1,607	1,619	2,254	4,201	13,514
	체류인구	282,254	140,246	142,008	32,814	16,196	25,271	37,952	63,842	106,178
	외국인	517	292	225	6	139	194	88	51	39
순창군	계	202,997	104,574	98,423	18,946	9,600	15,984	28,262	51,334	78,870
	주민등록	26,764	13,169	13,595	3,115	1,958	1,621	2,744	4,490	12,836
	체류인구	175,692	91,133	84,559	15,817	7,506	14,157	25,448	46,782	65,981
	외국인	541	272	269	14	136	206	70	62	53
고창군	계	409,641	208,294	201,347	37,122	27,327	44,632	63,172	96,884	140,504
	주민등록	51,114	25,509	25,605	5,727	3,232	3,225	5,054	8,448	25,428
	체류인구	355,907	181,494	174,413	31,345	23,565	40,254	57,556	88,288	114,899
	외국인	2,620	1,291	1,329	50	530	1,153	562	148	177
부안군	계	391,869	211,707	180,162	39,757	25,600	42,595	65,802	85,654	132,462
	주민등록	48,219	24,072	24,147	5,035	3,261	3,111	5,023	8,133	23,656
	체류인구	342,353	186,833	155,520	34,692	21,996	38,986	60,582	77,406	108,692
	외국인	1,297	802	495	30	343	498	197	115	114

출처: 국가데이터처, '24년 4/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그림 3-5] 전북 인구감소지역별 생활인구 규모

- 한편, 전북 인구감소지역별 체류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각 지역별로 특정기간에 체류 인구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정읍시의 경우 11월, 무주군의 경우 1월, 남원시는 5월, 부안군은 8월 등의 기간에서 특히 증가함
 - '24년 1월~12월 간 월평균 체류인구는 부안군이 303,6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읍시 (269,476명), 남원시(265,901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3-6] 전북 인구감소지역별 체류인구 추이

5) 정읍시 체류인구 특성

■ 시간적 특성

- (체류일수) 정읍시 체류인구의 체류일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약 50% 가까이 당일 체류 인구로 나타남. 당일 체류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는 4/4분기였고, 단기 체류인구는 3/4분기에 가장 많았음

[표 3-5] 정읍시 체류인구의 체류일수별 현황

(단위: 명,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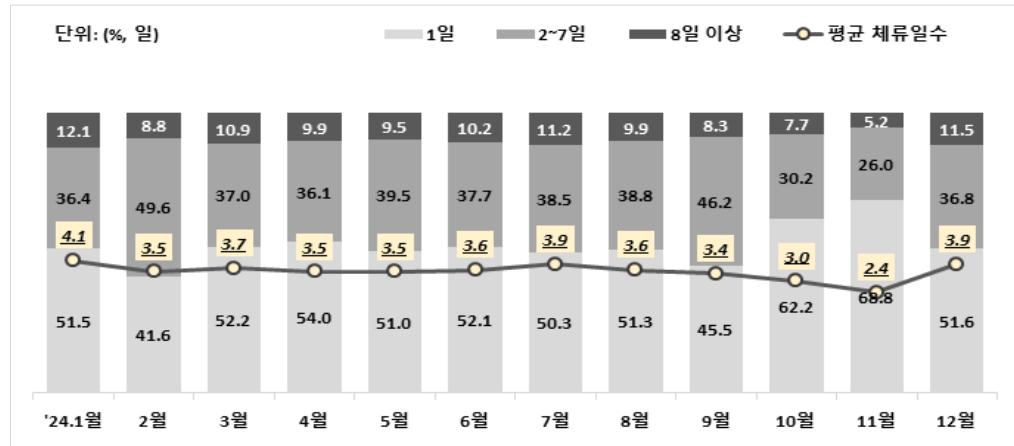
구분	24년 1/4	24년 2/4	24년 3/4	24년 4/4	25년 1/4
계	674,339	754,920	779,461	1,024,991	628,351
_당일(1일)	322,756	395,087	379,906	647,765	298,149
_단기(2~5일)	264,854	269,124	304,841	286,797	242,543
_중기(6~14일)	38,670	38,702	44,297	38,285	40,377
_정기(15~20일)	14,773	16,446	15,949	15,973	15,975
_장기(21일이상)	33,288	35,563	34,470	36,171	31,305

출처: 국가데이터처,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저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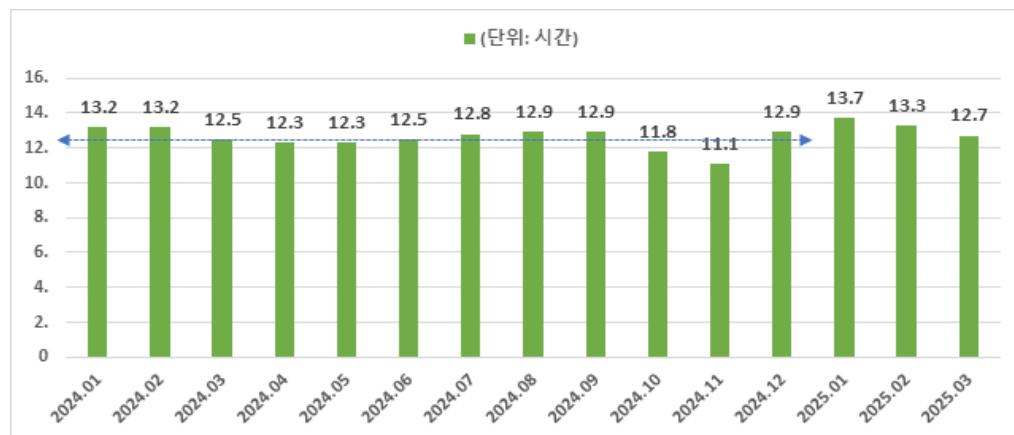
[그림 3-7] 정읍시 체류인구의 체류일수별 구성비

- 한편, 정읍시 체류인구의 월평균 체류일수를 살펴보면, 1월이 4.1일로 가장 길고, 11월이 2.4일로 가장 짧게 나타남. '24년 연평균 체류일수는 3.5일이었고, 인구감소지역 전체 평균(3.3일)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3-8] 정읍시 체류인구의 평균 체류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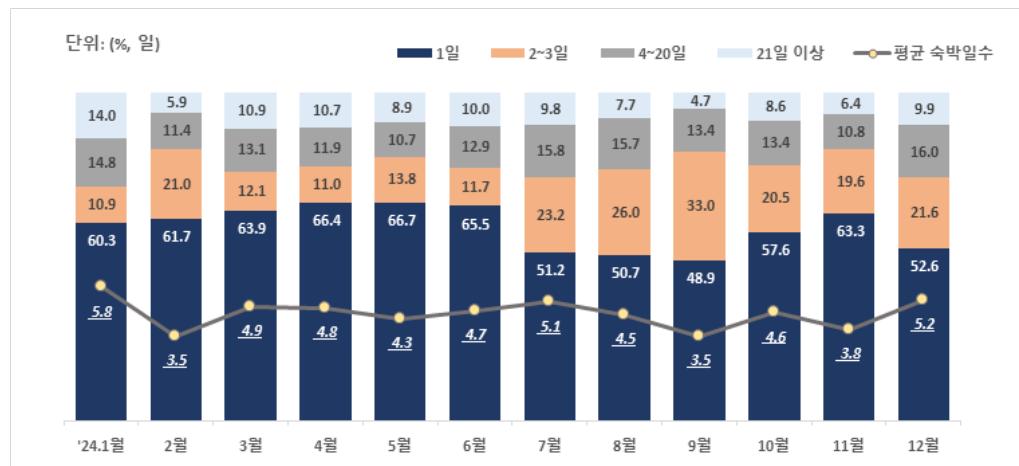
- (체류시간) 정읍시 체류인구의 평균 체류시간을 살펴보면, '24년 11월 평균 체류시간이 11.1시간으로 가장 짧게 체류하였고, 1월이 13.2시간으로 가장 길었음. 연간 평균 체류시간은 12.5시간으로 인구감소지역 전체 평균(11.9시간)보다 소폭 길었음



[그림 3-9] 정읍시 체류인구의 평균 체류시간

■ 활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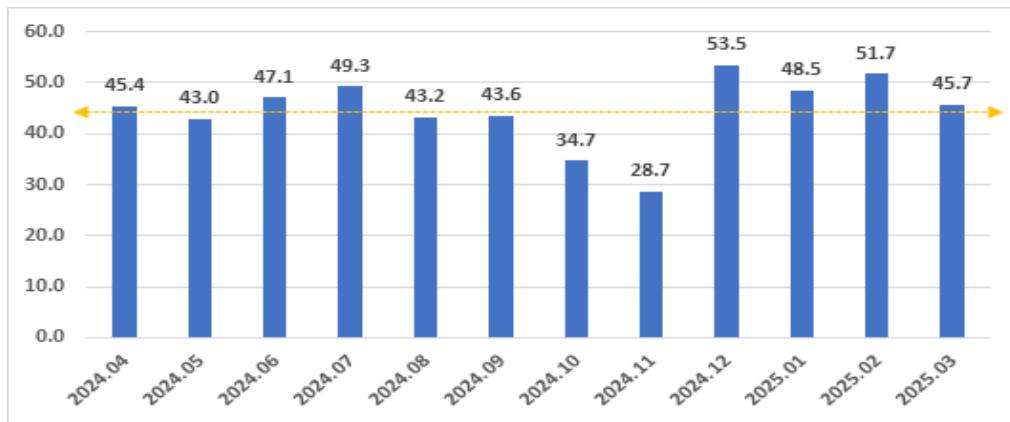
- (숙박형 체류) 정읍시 체류인구의 평균 숙박일수는 '24년 1월 평균 숙박일수가 5.8일로 가장 길었던 반면, 2월과 9월이 3.5일로 가장 짧았음. 연간 평균 숙박일수는 4.6일이었고, 이는 인구감소지역 전체 평균(3.6일)보다 하루가량 긴 수준이었음



[그림 3-10] 정읍시 체류인구의 평균 숙박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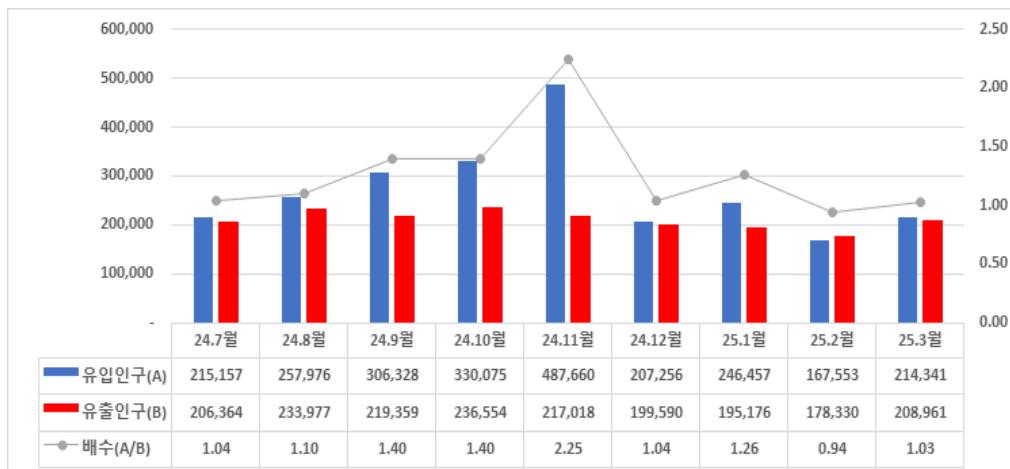
- (재방문¹⁾) 정읍시 체류인구의 최근 1년 간의 재방문율을 살펴보면, 12월(53.5%)과 2월(51.7%)의 재방문율이 가장 높았고, 11월(28.7%)과 10월(34.7%)의 재방문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최근 1년간 정읍시의 평균 재방문율은 44.5%였고, 이는 인구감소지역 전체 평균(38.0%)보다 6.5%p 더 높은 수준임

1) 재방문율: 해당 월의 체류인구 중 직전 2개월 기간에 한차례 이상 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의 비율. (예) 12월 체류인구 중 10월, 11월 기간에 한 차례 이상 체류한 사람의 비율)



[그림 3-11] 정읍시 체류인구의 최근 3개월 내 재방문율

- (유입·유출) 정읍시의 유입인구는 11월에 487,6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출인구는 10월에 236,554명으로 가장 많았음. 유출인구 대비 유입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11월이 2.25배로 가장 높았고, 2월에 0.94배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2] 정읍시의 유입·유출 현황

- 한편, 정읍시의 '24년 4/4분기 기준 체류인구 유입 시군구 상위지역(타시도 기준)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수원시/화성시에서 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 정읍시 '24년 4/4분기 체류인구 유입 시군구 상위지역(타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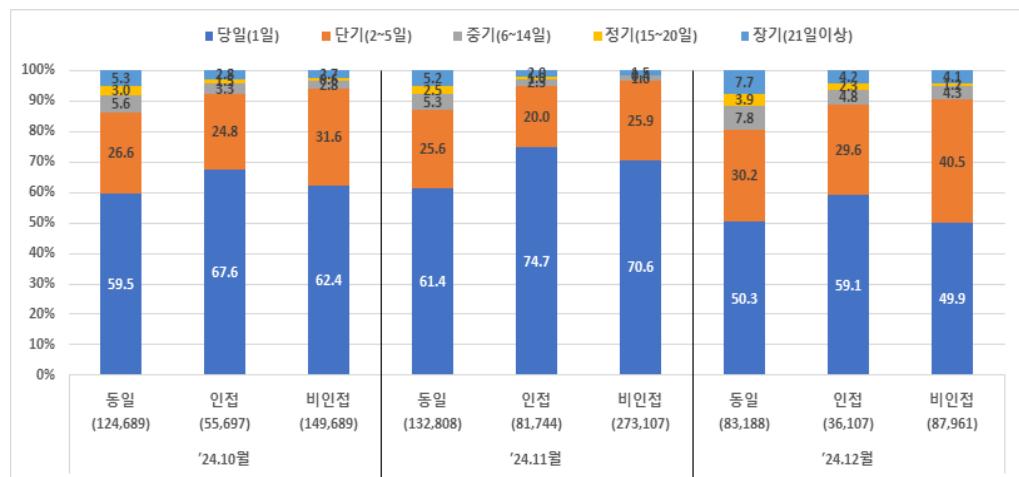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4년 10월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광주 서구	경기 수원시	광주 남구
	10,959	10,949	6,791	4,599	4,001
'24년 11월	광주 광산구	광주 북구	광주 서구	경기 수원시	경기 화성시
	14,824	14,785	9,026	7,991	7,081
'24년 12월	광주 광산구	광주 북구	광주 서구	경기 화성시	경기 수원시
	7,752	7,367	4,219	2,959	2,865

출처: 국가데이터처,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저자 구성

■ 등록지 유형별 특성

- (체류기간 비중) 정읍시의 '24년 4/4분기 당일체류 비중은 인접 시도 거주자가, 단기체류 비중은 비인접 시도 거주자가 가장 크게 나타남. 한편, '6일 이상' 체류하는 비중은 동일시도 등록인구가 인접·비인접 시도 거주자에 비해 커, 가까운 곳에 거주할수록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3] 정읍시 '24년 4/4분기 체류기간 유형별 분포

[표 3-7] 정읍시 '24년 4/4분기 체류기간 유형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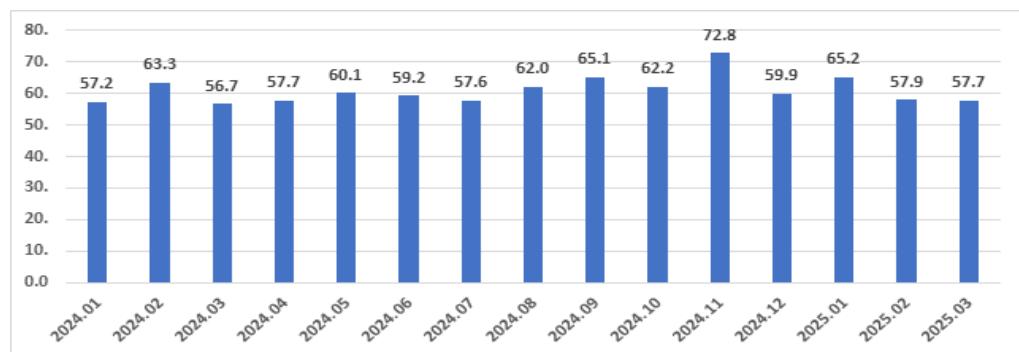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계	당일	단기 (2~5일)	중기 (2~5일)	정기 (2~5일)	장기 (2~5일)
'24. 10월	계	330,075	205,229	94,197	12,987	5,542	12,121
	동일	124,689	74,226	33,140	7,004	3,771	6,549
	타시도	205,386	131,003	61,058	5,982	1,770	5,572
	인접	55,697	37,642	13,819	1,836	821	1,578
	비인접	149,689	93,361	47,239	4,146	949	3,994
'24. 11월	계	487,660	335,500	121,132	13,268	5,291	12,469
	동일	132,808	81,490	34,031	7,058	3,382	6,846
	타시도	354,851	254,010	87,100	6,209	1,908	5,623
	인접	81,744	61,063	16,340	1,871	844	1,625
	비인접	273,107	192,947	70,760	4,338	1,064	3,998
'24. 12월	계	207,256	107,036	71,468	12,032	5,140	11,580
	동일	83,188	41,836	25,135	6,513	3,264	6,440
	타시도	124,068	65,199	46,333	5,519	1,877	5,140
	인접	36,107	21,347	10,701	1,716	822	1,520
	비인접	87,961	43,852	35,632	3,803	1,055	3,620

주: '24년 4분기 기준.

출처: 국가데이터처,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저자 구성

- (체류인구 비중) 정읍시의 체류인구 중 타시도 등록인구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11월이 72.8%로 가장 높았던 반면, 3월에 56.7%로 가장 낮게 나타남. '24년 연간 (산술) 평균 타시도 거주자 체류비중은 61.2%였음



[그림 3-14] 정읍시 타시도 거주자 체류 비중

■ 숙박 유형별 특성

- (단기숙박)²⁾ 정읍시 '24년 4/4분기 단기숙박 체류인구는 11월에 121,13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기숙박 체류인구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가장 낮았고, 50대와 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8] 정읍시 '24년 4/4분기 성별·연령대별 단기숙박 체류인구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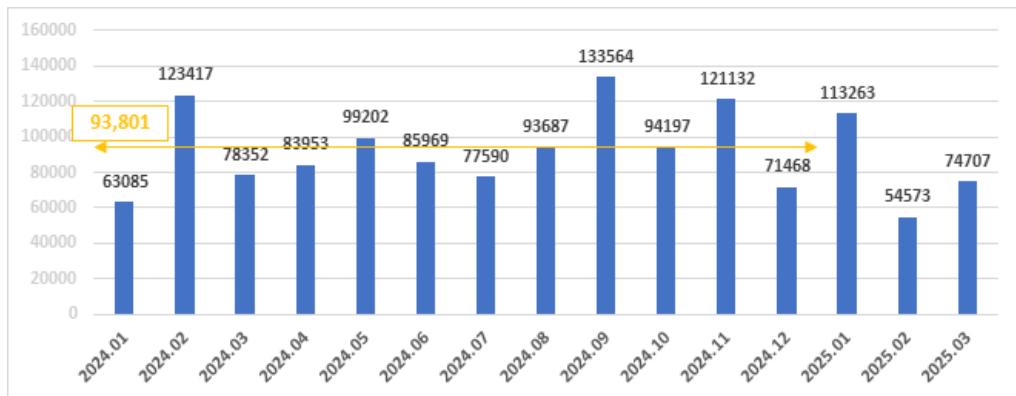
구분		'24.10월			'24.11월			'24.12월		
		단기숙박 체류인구	비중	체류인구 전체비중	단기숙박 체류인구	비중	체류인구 전체비중	단기숙박 체류인구	비중	체류인구 전체비중
전체		94,197	100.0	100.0	121,132	100.0	100.0	71,468	100.0	100.0
성 별	남성	52,961	56.2	53.5	66,514	54.9	51.3	41,197	57.6	58.4
	여성	41,236	43.8	46.5	54,618	45.1	48.7	30,272	42.4	41.6
연 령	10대	8,195	8.7	6.8	10,929	9.0	6.0	8,254	11.5	9.2
	20대	7,218	7.7	6.8	8,577	7.1	6.1	6,804	9.5	9.1
	30대	11,572	12.3	10.7	13,301	11.0	9.5	9,842	13.8	13.2
	40대	16,632	17.7	16.1	20,201	16.7	14.7	13,200	18.5	18.5
	50대	24,378	25.9	26.1	31,267	25.8	25.4	17,117	24.0	24.6
	60대以上	26,201	27.8	33.5	36,857	30.4	38.4	16,252	22.7	25.4

출처: 국가데이터처,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저자 구성

- 한편, 정읍시의 단기숙박 체류인구는 10월과 11월은 남성, 12월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체류인구 전체 비중에 비해 높았음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40대까지의 비중이 체류인구 전체비중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10대의 경우 체류인구 전체비중에 비해 특히 더 높은 비중을 보이며 차이를 보였음
- 단기숙박 체류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월과 9월, 11월 등 특정 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2) 한 달 동안 '4박 이하'로 연속하여 숙박하고 같은 달에 재방문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된 방문목적이 관광·휴양일 가능성이 높은 비정기 체류인구

이며, 증감 차이가 크게 나타남. '24년 연간 연평균(산술평균) 단기숙박 체류인구는 93,801명으로 집계되었음



[그림 3-15] 정읍시 단기숙박 체류인구 추이

- (장기체류)3) 정읍시 '24년 4/4분기 장기숙박 체류인구는 11월에 12,47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장기숙박 체류인구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음. 연령대별로는 20대가 가장 낮았고, 6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50대와 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정읍시의 장기숙박 체류인구는 남성의 장기숙박 체류인구 비중이 전체 체류인구 성별 비중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40대까지의 장기숙박 비중이 체류인구 전체비중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20대의 경우 체류인구 전체비중에 비해 특히 더 높은 비중을 보이며 차이를 보였음. 12월의 경우는 60대에서 장기숙박 비중이 전체 연령별 체류인구 비중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남
 - 장기숙박 체류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7월(12,842명)에 가장 높고, 2월(9,865명)에 가장 낮았으며, 전반적으로 특정월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였음. '24년 연간 연평균(산술평균) 장기숙박 체류인구는 11,624명으로 집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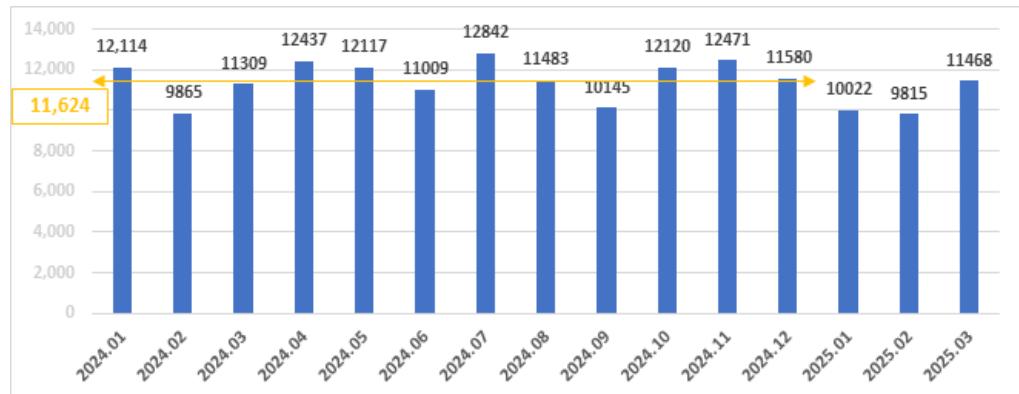
3) 한 달 동안 21일 이상 체류하면서 숙박 경험이 있어 실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체류인구

[표 3-9] 정읍시 '24년 4/4분기 성별·연령대별 장기숙박 체류인구 현황

(단위: 명, %)

구분	'24.10월			'24.11월			'24.12월		
	단기숙박 체류인구	비중	체류인구 전체비중	단기숙박 체류인구	비중	체류인구 전체비중	단기숙박 체류인구	비중	체류인구 전체비중
전체	12,120	100.0	100.0	12,471	100.0	100.0	11,580	100.0	100.0
성 별	남성	7,357	60.7	53.5	7,500	60.1	51.3	7,030	60.7
	여성	4,765	39.3	46.5	4,970	39.9	48.7	4,553	39.3
연 령	10대	468	3.9	6.8	440	3.5	6.0	380	3.3
	20대	1,420	11.7	6.8	1,422	11.4	6.1	1,271	11.0
	30대	1,600	13.2	10.7	1,691	13.6	9.5	1,575	13.6
	40대	2,228	18.4	16.1	2,354	18.9	14.7	2,192	18.9
	50대	2,846	23.5	26.1	2,959	23.7	25.4	2,768	23.9
	60대(습)	3,565	29.4	33.5	3,601	28.9	38.4	3,392	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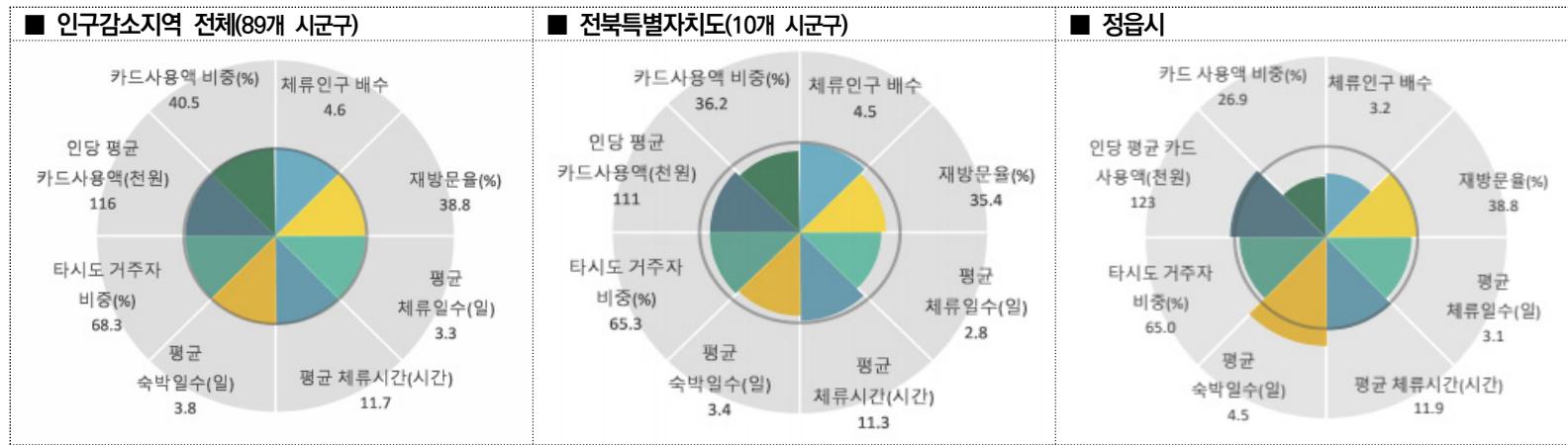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저자 구성



[그림 3-16] 정읍시 장기숙박 체류인구 추이

나. 정읍시 체류인구 주요 특성⁴⁾ 현황

- 지역의 활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8개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정읍시의 경우, '24년 4/4분기 평균 체류시간(+0.2시간)과 숙박 일수(+0.7일), 인당 평균 카드사용액(+7천원) 등 3개 특성에서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평균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7] 정읍시 '24년 4분기 체류인구 주요 특성 현황 비교

4) 지역의 활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8개의 항목

①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 ②재방문율, ③평균 체류일수, ④평균 체류시간, ⑤평균 숙박일수, ⑥타시도 거주자 체류 비중, ⑦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 ⑧체류 인구 카드 사용액 비중

- 한편, 정읍시와 전북도(10개 시군) 평균과 비교해보면, 재방문율(+3.4%p), 평균 체류일수(+0.3일)와 체류시간(+0.6시간), 숙박일수(+1.1일), 인당 평균 카드 사용 액(+12천원) 등 5개 특성에서 전북 인구감소지역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0] 정읍시 체류인구 주요 특성 현황

구분		체류인구 배수	재방문율	평균 체류일수	평균 체류시간	평균 숙박일수	타시도 거주자 비중	인당 평균 카드사용액	체류인구 카드사용액 비중
		(단위: 배)	(단위: %)	(단위: 일)	(단위: 시간)	(단위: 일)	(단위: %)	(단위: 천원)	(단위: %)
4/4 분기 평균	전체인구감소지역	4.6	38.8	3.3	11.7	3.8	68.3	116	40.5
	전북	4.5	35.4	2.8	11.3	3.4	65.3	111	36.2
	정읍시	3.2	38.8	3.1	11.9	4.5	65.0	123	26.9
_10월	인구감소지역 전체	5.3	34.0	3.0	11.4	3.6	69.3	111	43.4
	전북	5.0	31.3	2.7	11.0	3.4	63.1	106	38.6
	정읍시	3.1	34.7	3.0	11.8	4.6	62.2	121	27.8
_11월	인구감소지역 전체	4.7	39.1	3.2	11.6	3.6	69.1	114	41.2
	전북	5.1	34.0	2.6	11.1	3.2	68.5	105	38.2
	정읍시	4.6	28.7	2.4	11.1	3.8	72.8	100	30.6
_12월	인구감소지역 전체	3.6	43.2	3.6	12.1	4.1	66.5	124	36.9
	전북	3.3	41.1	3.2	12	3.7	64.2	121	31.7
	정읍시	2.0	53.5	3.9	12.9	5.2	59.9	147	22.2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4년 4분기 생활인구 보고서.. 저자 구성

2. 빅데이터 기반 정기적 체류인구 특성 분석

가. 분석 개요

- 분석 목적: 정읍시에 실제 유입되는 정기적 체류인구(통근·통학인구, 직장인구)의 인구 통계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주요 유입경로와 생활권을 파악함으로써 기존 공공 데이터로 식별이 불가능했던 이들의 실제 세부 정보를 통해 향후 인구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
- 활용 데이터

[표 3-11] 체류인구 특성 분석 관련 활용 데이터

데이터명	데이터 사점	자료제공기관
통근인구	2023년	KCB
직장인구	2023년	SKT
정읍시 행정동 경계	2023년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통근인구, 직장인구의 경우 국가데이터처 SDC통계데이터센터가 보유한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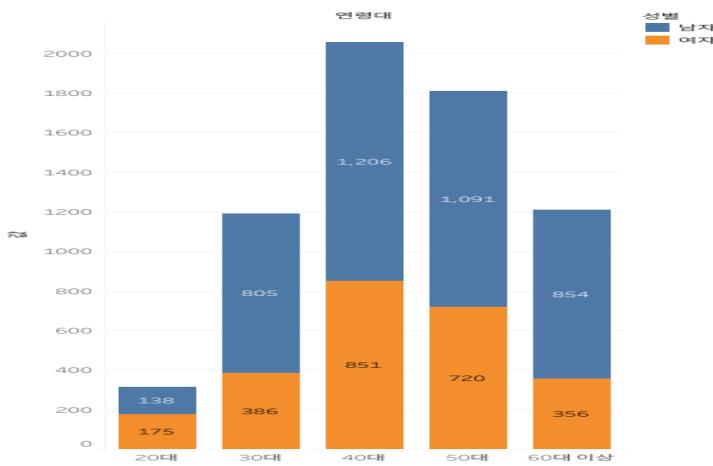
- 분석 방법: Python을 활용한 데이터 전처리 및 기술통계 분석, Tableau 활용 분석결과 시각화, QGIS 활용 공간 분석 실시

나. 분석 결과

1) 정기적 체류인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총 6,582명의 통근인구 표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을 실시 하였음
- (성별 분포) 성별의 경우 전체 체류인구 중 남성이 4,094명으로 여성(2,488명)에 비해 약 1.6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 분포) 연령대의 경우 40대가 2,0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대(1,811명), 60세 이상(1,210명), 30대(1,191명), 20대(313명) 순으로 차지하였음
- 즉,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통해 정읍시의 정기적 체류인구의 주력 계층은 40·50대 중장년 남성층이며, 청년층과 여성의 유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8] 정기적 체류인구 연령대·성별 분포 현황

2) 정기적 체류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⁵⁾

■ 소득 현황 파악

- 먼저, 정기적 체류인구의 소득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 데이터 내 각 개인별 월 환산 평균소득 정보를 기준으로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였음
 -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의 가구소득 집단 구분 기준을 참고하여 저소득층(~299만원 미만), 중간 소득층(300~549만원), 고소득층(549만원 이상)으로 집단을 구분
- 분석 결과, 정읍시 정기적 체류인구는 중간소득층(3,752명)이 가장 많았으며, 저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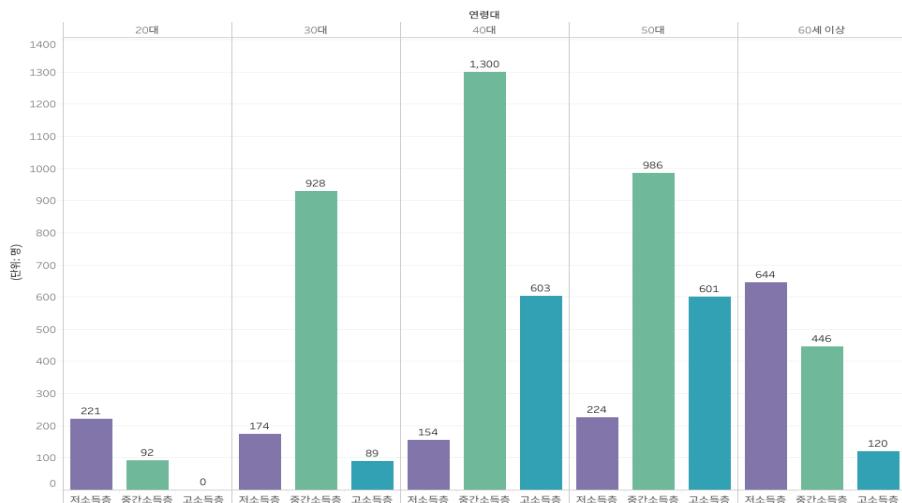
5) 직업 정보의 경우 전체 표본 중 2,989명만 직업 정보가 존재. 대다수가 급여 소득자였음

총(1,417명), 고소득층(1,413명) 순으로 나타남. 다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표본 수 차이가 4명에 불과하여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

- 성별 간 소득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 고소득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별 소득 차이의 경우 저소득층은 60대 이상(644명)이 가장 많았으며, 중간 소득 층은 40대(1,300명), 고소득층 또한 40대(603명)가 가장 많았음
- 즉, 정읍시에 유입되는 정기적 체류인구의 소득 분포는 중간 소득층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요 유입인구인 40·50대가 대부분 중간·고소득층인 결과는 정읍시 체류 인구는 상당수가 경제활동 능력을 보유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냄. 이는 이들이 향후 지역 내 정착 시 소비활동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표 3-12] 정기적 체류인구 소득분포 현황

성별	소득 구분			계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남성	462	2,340	1,292	4,094
여성	955	1,412	121	2,488
계	1,417	3,752	1,413	6,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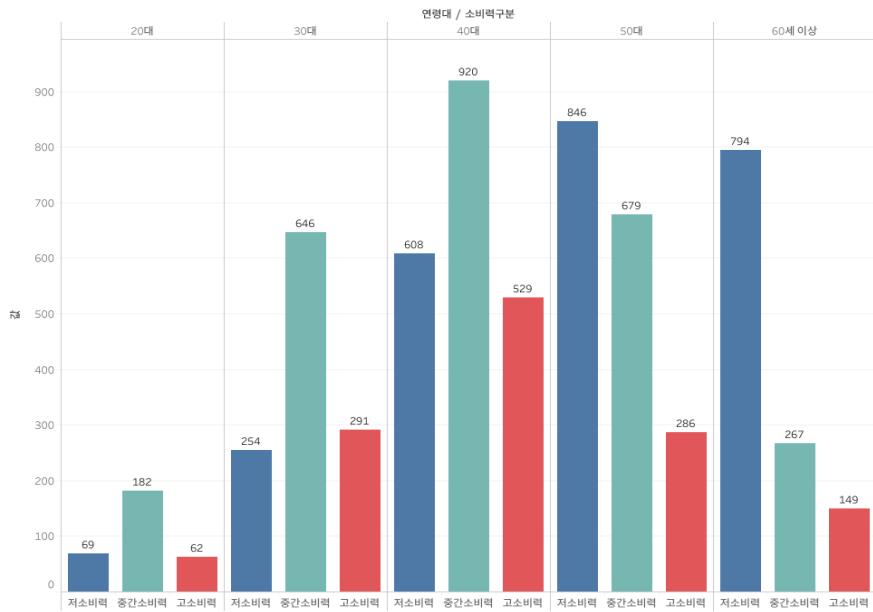
[그림 3-19] 정기적 체류인구 연령대별 소득분포 현황

■ 소비력 파악

- 더불어 정기적 체류인구의 월평균 카드소비금액 정보를 기반으로 이들의 실질적인 소비력을 판단하였음
 - 월 환산 평균소득과 월평균 카드소비금액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r=.57$, $p<.01$)
- 먼저, 이들의 실질적 소비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월평균 카드소비금액을 이들의 월평균 환산소득으로 나누어 ‘소비지출 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산출된 소비지출 비율을 10분위로 구간화하고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해 1~4분위 해당자는 저소비력 계층, 5~8분위는 중간 소비력 계층, 9~10분위는 고소비력 계층으로 구분
 - *산출된 결과를 ‘소비력’이라고 지칭
- 이를 통해 정기적 체류인구의 소득 대비 소비 규모를 정량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단순 소비금액이 아닌 이들의 경제적 여력 및 지역 내 소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분석 결과, 중간 소비력 수준을 보유한 집단이 가장 2,69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저 소비력 보유 집단 2,571명, 고 소비력 집단 1,317명 순으로 나타남

[표 3-13] 정기적 체류인구 성별 소비력 현황

성별	소득 구분			계
	저소비력	중간 소비력	고소비력	
남성	1885	1626	583	4,094
여성	686	1068	734	2,488
계	2,571	2,694	1,317	6,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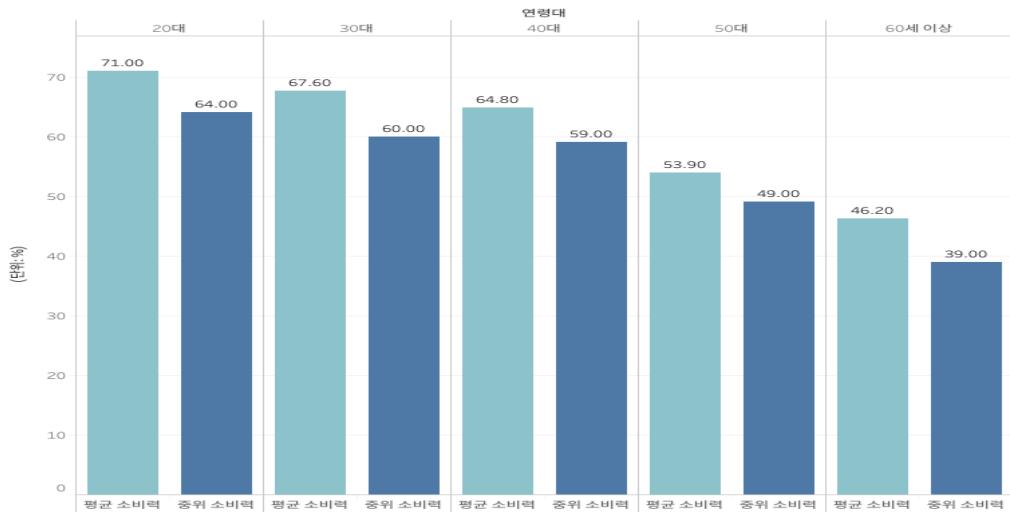


[그림 3-20] 정기적 체류인구 연령대별 소비력 현황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고소비력 집단이 529명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50대와 60세 이상 집단의 경우 저소비력 수준을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추가적으로 연령대별 소비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림 3-21]과 같이 이들의 연령대별 평균 소비력과 중위 소비력*을 추가로 산출하여 소득 수준 대비 실제 소비 여력의 구조적 차이를 살펴보았음
 - 평균 소비력: 전체 집단의 소비력 값을 평균화한 값(전체적인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 중위 소비력: 전체 집단의 소비력 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일부 고소비, 저소비층을 배제한 일반적인 소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 분석 결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소비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30대의 경우 소득 대비 소비 비율(71%, 67.6%)이 높아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정읍시 내 가장 많은 정기적 체류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40대의 경우 이들의 월 평균

카드소비 금액은 월 평균소득의 약 64.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높은 수준으로 가계지출이 활발한 경제활동 중심세대로 볼 수 있음

- 50대의 경우 이들의 월평균 카드소비금액은 월 평균소득의 53.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의 경우 46.2%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비력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절대적인 소비 축소 현상이 아닌 소득 감소에 비례한 합리적 소비 조정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즉, 은퇴 또는 소득원의 변화에 따라 지출구조가 필수소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소득 대비 소비 여력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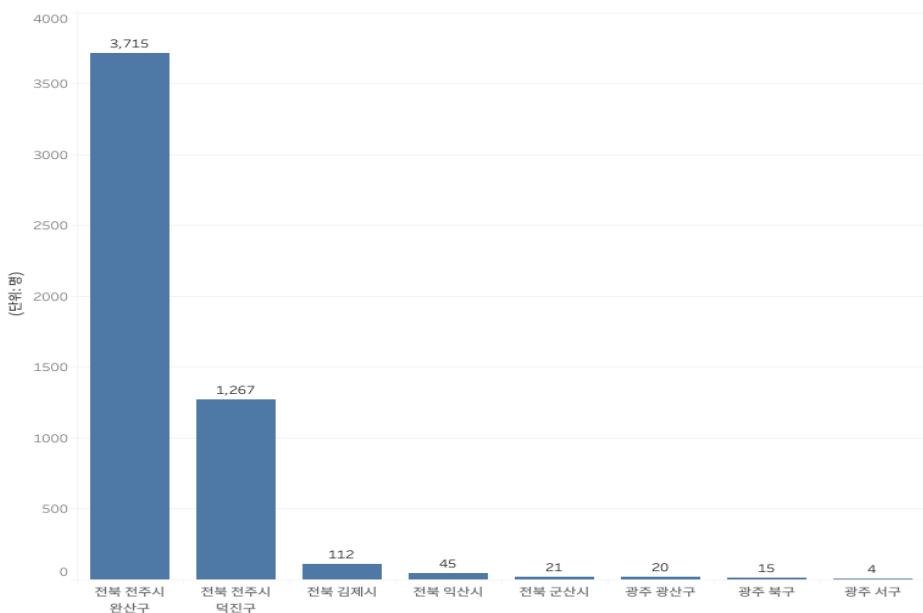
[그림 3-21] 정기적 체류인구의 연령대별 평균 소비력 및 중위 소비력 분석 결과

- 즉, 정읍시에 유입되는 정기적 체류인구는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에 비례한 안정적인 소비 구조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정읍시 주요 정기적 체류인구인 40·50대 중장년층은 소득 대비 50% 이상을 소비하는 등 높은 소비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기적 체류인구 다수가 실질적인 소비 능력을 갖추었으며 지역 정착 시 활발한 소비활동을 할 가능성이 큼

3) 정기적 체류인구의 유입행태 분석

■ 주요 거주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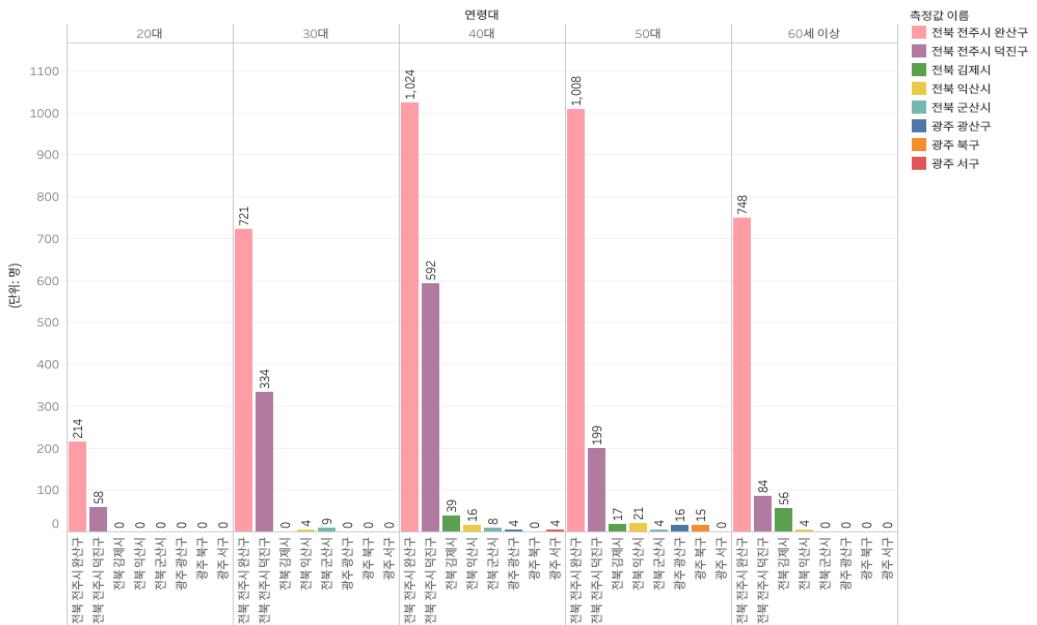
- 통근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 중 자택 소재지 정보가 명확한 5,19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분석 결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3,71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1,267명), 전북 김제시 115명, 전북 익산시 45명, 전북 군산시 21명, 광주(광산구, 북구, 서구 합계)에서 39명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2] 정기적 체류인구의 자택 소재지 분석 결과

- 더불어 연령대별로 어느 지역으로부터 정읍시로 유입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20·30대의 경우, 전북 전주시 완산구와 덕진구에서 대다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읍시의 주요 유입 정기적 체류인구인 40·50대의 경우,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오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40대 1,024명, 50대 1,008명), 그 다음으로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40대 592명, 50대 199명)에서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 더불어 전북 김제시, 군산시, 익산시(40대 63명, 50대 42명)에서도 유입되었으며, 광주(광산구, 북구, 서구)에서도(40대 8명, 50대 31명)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 60세 이상 정기적 체류인구의 경우,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748명,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84명, 전북 김제시에서 56명, 전북 익산시에서 4명이 정읍시에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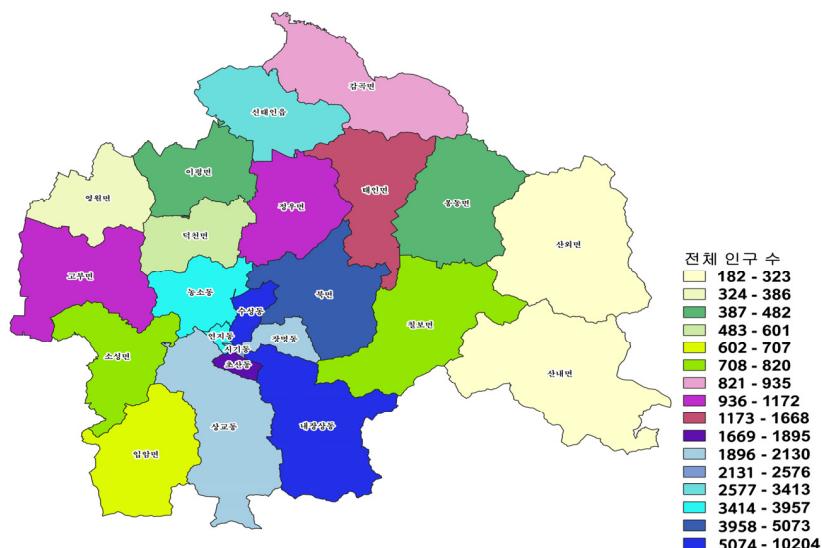


[그림 3-23] 연령대별 정읍시 정기적 체류인구 자택 소재지 분석 결과

■ 연령대별 체류 집중 지역 파악

- 직장인구 데이터⑥를 활용하여 정기적 체류인구가 정읍시 내 어느 지역으로 많이 유입 되는지 파악하고자 본 분석을 실시함

- 먼저, 전체 직장인구 분포를 살펴보았음. 분석결과, 수성동과 내장상동에 가장 고도로 밀집되어 있으며(5,074~10,204명), 이 두 지역은 정읍시의 핵심 중심지로 판단됨
 - 북면의 유입인구 수 또한 높았으며(3,958~5,073명) 이는 산업단지 내 기업 종사자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그 다음으로는 농소동과 연자동(3,414~3,957명), 신태안읍(2,577~3,413명), 상교동·장명동·시기동(1,896~2,130명) 등의 순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었으며, 이 지역들은 정읍시 중심 시가지를 구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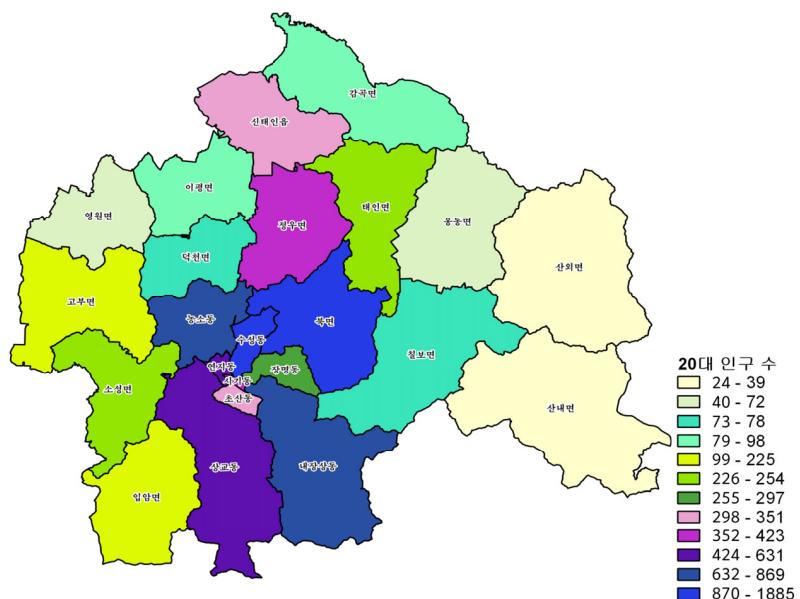


[그림 3-24] 정읍시 직장인구 지역별 분포(전체)

- 반면, 북면을 제외한 면 지역의 경우 직장인구 수가 현저히 낮았음. 특히 동부 산간 지역에 위치한 산외면과 산내면은 인구가 386명 미만으로 정읍시 내 유입 인구가 가장 희박한 지역임

6) 국가데이터 SDC통계데이터센터 반출기준에 따라 행정동 단위 세부값은 구간 형태로만 제공
표본 수 제한성에 따른 기존 통근인구 데이터 한계를 보완하고자, SKT 이동통신 가입자 기반 정보를 기준
으로 산출한 직장인구 데이터를 대안적으로 활용(실제 직장인구 절대 규모가 아닌 정읍시 읍면동 간 상대
적 직장인구 규모 비교를 위한 참고용 지표로 해석) 수치 해석은 연평균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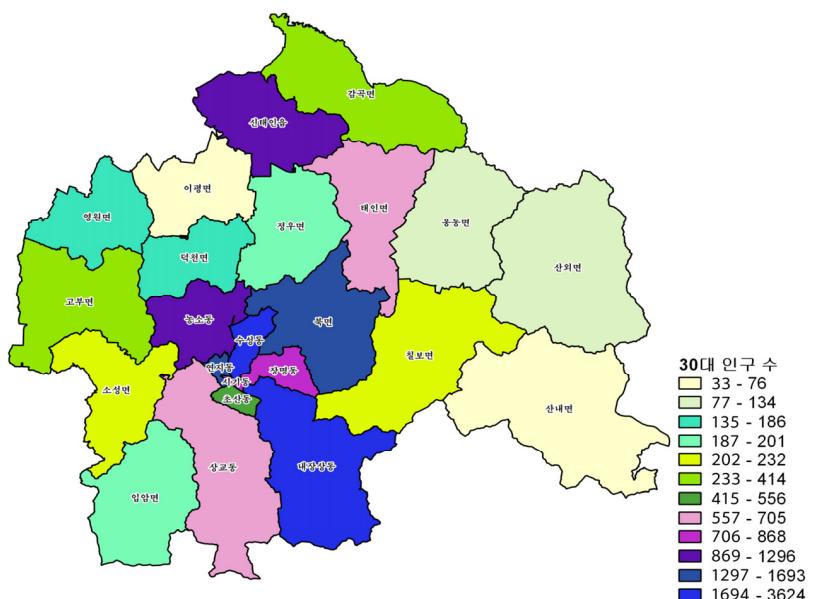
- 다음으로, 연령대에 따른 정읍시 내 각 지역별 직장인구 분포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20대의 경우 수성동과 북면으로 가장 많이 분포(870~1,885명)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내장상동과 농소동(632~869명), 상교동과 연지동(424~631명) 등의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20대 직장인구는 수성동과 북면을 중심으로 분포하여 도심형 근로·생활 중심지와 산업단지 인접 근로권역에서 대다수 체류하고 있음을 의미함. 내장상동과 농소동에서는 상업·서비스업 중심의 청년층 근로와 소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상교동과 연지동은 행정·교육·주거 기능이 복합된 도심 배후권으로, 청년층 직장인구가 일정 분포하는 지역으로 나타남



[그림 3-25] 20대 직장인구 지역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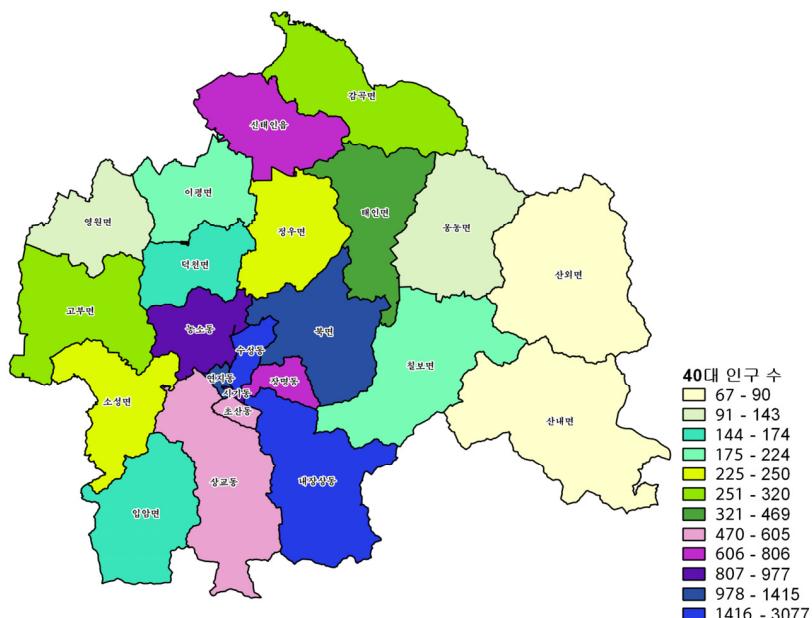
- 둘째, 30대의 경우 내장상동과 수성동에 가장 많이 분포(1,694~3,624명)하였으며, 연지동과 북면(1,297~1,693명), 농소동과 신태인읍(869~1,296명), 시기동과 장명동(707~868명)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더불어 상교동과 태인면에는 557명에서 705명 사이의 직장인구가 분포하였으며, 면 단위에서는 고부면과 감곡면에서 233~414명이 분포, 소성면과 칠보면에는 202명에서 232명이 분포하였다.
- 즉, 30대 직장인구는 내장상동과 수성동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도심 내 주요 근로 거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연지동과 북면은 산업과 상업 기능이 공존하는 중간권역으로 30대 근로자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도심·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농소동과 농공단지 조성 및 축산·사료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는 신 태인읍에서는 중간 수준의 유입 양상을 보임
- 추가로, 태인면이 도심 지역인 상교동과 비슷한 수준의 30대 직장인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태인면에 위치한 정읍시 제3산업단지와 태인농공단지 등 대규모 산업 기반이 30대 핵심 노동인력의 고용을 주도하는 중심지로서 역할을 시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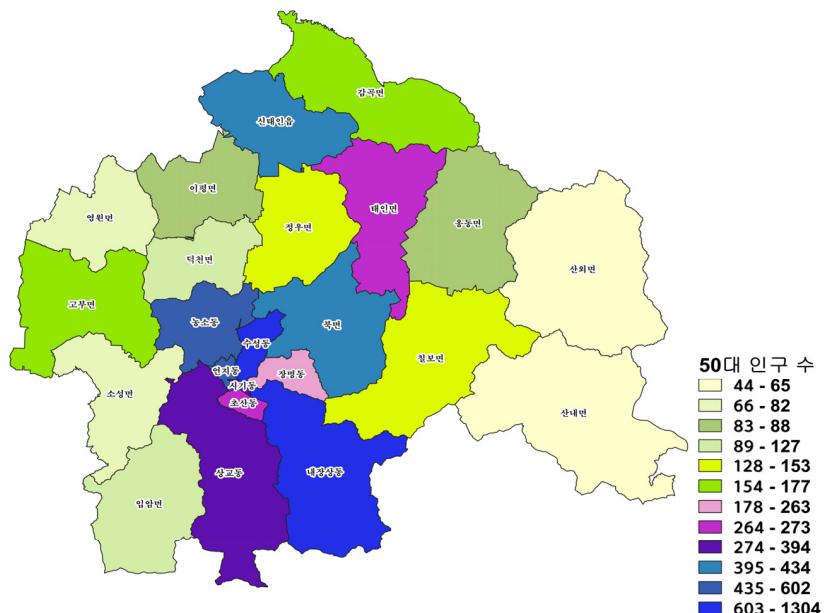
[그림 3-26] 30대 직장인구 지역별 분포 현황

- 셋째, 40대의 경우, 30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내장상동과 수성동에 직장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1,416~3,077명), 그 다음으로는 연지동과 북면(978~1,415명), 농소동과 시기동(807~977명), 신태인읍(606~806명) 등의 순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40대 직장인구는 30대와 유사하게 내장상동과 수성동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도심 내 안정적 근로와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산업·상업 기능이 결합된 중간 중심 권역인 연지동과 북면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또한, 도심 접근성과 산업단지 연계성이 높은 지역인 농소동, 시기동 및 농공단지 가 있는 신태인읍에서도 유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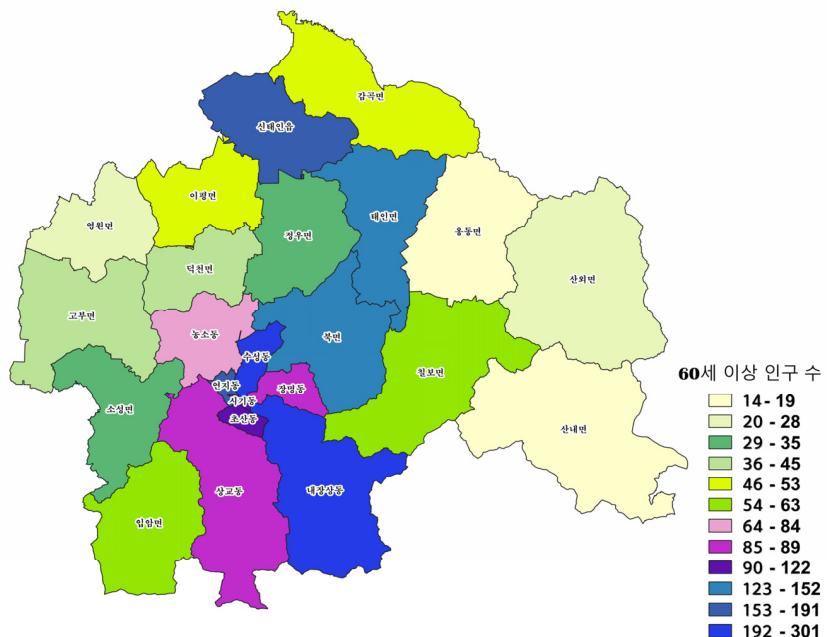
[그림 3-27] 40대 직장인구 지역별 분포 현황

- 넷째, 50대의 경우 수성동과 내장상동에 직장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603~1,304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농소동과 연지동(435~602명), 북면과 신태인읍(395~434명) 순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50대 직장인구는 수성동과 내장상동과 같은 도심 핵심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여 도심 내로 체류하는 중장년층 근로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더불어 농소동, 연지동, 북면, 신태인읍 등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분포 규모는 적으나, 도심 접근성과 산업단지 연계성이 높아 중장년층의 체류형 근무지로써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3-28] 50대 직장인구 지역별 분포 현황

- 다섯째, 60세 이상의 경우 40·50대 중장년층과 유사한 지역에 직장인구가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수는 현저히 적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성동과 내장상동에 직장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192~301명), 연지동과 신태인읍(153~191명), 북면과 태인면(123~152명) 등의 순으로 60대 직장인구가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60세 이상 직장인구의 경우 중장년층과 마찬가지로 수성동과 내장상동 등 도심 핵심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전체 규모는 적어 고령층의 근로활동 참여는 제한적임을 나타냄
- 또한, 연지동과 신태인읍, 북면과 태인면 등 농업·서비스업 등 일부 산업기반에 따라 근로형 체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퇴직 이후 단기·보조적 경제활동 형태로 해석 됨



[그림 3-29] 60세 이상 직장인구 지역별 분포 현황

- 분석 종합 결과, 정읍시의 직장인구 분포는 수성동·내장상동을 중심으로 한 ‘도심 핵심권’, 북면·신태인읍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연계 근로권’, 그리고 농소동·연지동·시기동 등 ‘근린 생활권’에 직장인구가 공통적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정읍시의 근로 기반이 행정·상업 중심지와 산업단지 인접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모든 연령층이 유사한 생활권 안에서 역할을 달리하여 체류하고 있음을 의미함

[표 3-14] 연령대별 직장인구 유입 규모에 따른 인구 유입 지역 순위

직장인구 유입 규모별 인구 유입 지역 순위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1순위	수성동, 북면	내장상동, 수성동	내장상동, 수성동	수성동, 내장상동	수성동, 내장상동
2순위	내장상동, 농소동	연지동, 북면	연지동, 북면	농소동, 연지동	연지동, 신태인읍
3순위	상교동, 연지동	농소동, 신태인읍	농소동, 시기동	북면, 신태인읍	북면, 태인면

3. 심층면접 및 전문가 자문 기반 체류 인구 특성 분석

가. 조사 개요

■ 심층면접조사 및 전문가 자문의 목적

- 심층면접조사의 경우, 정읍시로 유입되는 체류인구를 비정기적 및 정기적 유형별로 구분하여 체류실태(인식, 경험, 어려움, 문제점 등)와 재방문 및 장기 체류·지역 정착에 필요한 주요 요소들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음
- 특히, 비정기적 체류인구의 정기적 체류로의 전환 가능성, 정기적 체류 인구의 정읍 정주로의 전환 가능성을 진단함으로써, 체류 유형별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머무는 체류 인구가 지역 생활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머물고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질적인 정책적 개입 방향 도출과 세부 사업을 발굴하고자 함
- 전문가 자문의 경우, 학계, 국책연구기관 및 중앙부처 관련 정책 담당자들의 의견을 통해 정읍시 비정기적 체류인구의 장기적·정기적 체류 인구화 방안 및 정기적 체류인구(통근·통학, 거주형 체류)의 정주화를 위한 의견을 구하고,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참여 대상자 및 조사 방법

- 먼저, 비정기적 체류인구 참여 대상자를 정읍시에 관광을 목적으로 연 1회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는 외지인과 관광, 휴양, 여가, 레저 활동 등을 목적으로 1박 이상 숙박 경험이 있는 외지인으로 정의하고, 연령대별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면접 대상자를 선정·선정하고자 하였음
- 다음으로 정기적 체류인구는 정읍시에 근로·경제활동 및 학업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방문 및 반복적인 체류를 하되 본인의 거주지로 귀가하는 외지인으로 설정하고, 청년층과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선정·선정하고자 하였음

- 심층면접조사를 위한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 문항은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구성했으며, 크게 비정기적 체류인구 유형 질문지와 정기적 체류인구 유형 질문지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진행함. 심층인터뷰는 대면과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함. 면접은 평균 약 40~50분간 소요됨. 조사 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됨
- 전문가 자문의 경우, 생활인구, 관광, 주거·인프라,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 질문지를 토대로 서면으로 실시하였음

■ 자료 분석 방법 및 조사 내용

- 심층면접 및 전문가 자문 내용은 반구조화된 질문 문항에 대한 응답 내용들을 주제별로 범주화하고, 범주화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위계화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분석 결과물을 도출함
- 심층면접의 조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비정기적 체류인구 유형의 경우는 크게 5개 영역으로 구성함. (1) 응답자 방문 및 체류 배경, (2) 방문·체류의 인식과 활동 및 경험 실태, (3) 재방문 및 정기적 체류 전환 가능성, (4) 비성수기(가을 제외) 체류 유도 가능성, (5) 체류 연장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구성하여 살펴봄

[표 3-15] 비정기적 체류 인구 대상의 영역별 세부 조사 내용

영 역	세 부 내 용
응답자 방문·체류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거주지, 거리와 소요 시간, · 처음 방문 계기(주 방문 동기), 몇 회 정도 방문, 방문 목적과 주요 장소(활동) · 각 방문당 평균 체류시간과 계절 시기, 요일, 체류일 수, 동행인 현황
방문·체류 인식·활동 및 경험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숙박 정보 취득 방법, 교통수단과 접근성(교통 편의성) 평가 · 체류 중 주요 지출 항목(식사, 교통, 기념품 등)과 규모(평균 소비 금액) · 관광/음식 인프라(식당, 편의시설 등) 평가와 타 지역 대비 차별화된 점 또는 아쉬웠던 점 · 전반적 이미지에 대한 평가(인프라, 접근성, 숙박시설, 문화관광자원 등)
재방문 및 정기적 체류 전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정읍시 재방문/숙박 의향 여부 및 그 이유와 방문 시기(계절) · 재방문/숙박 및 정기적 방문/숙박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소
비성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을에만 가는 여행지'라는 이미지가 강한 공감도와 비기온철 이외 찾지 않는 이유

영 역	세 부 내 용
(가을 제외) 체류 유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을 이외 계절에 정읍시를 방문하도록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나 콘텐츠는? · (추가 개발) 정읍시가 시계절 내내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한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은?
체류 연장을 위한 필요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치기 일정 선택 배경(일정, 비용, 이동 편의, 불거리 등) · 숙박 고려했다가 포기한 경험과 그 이유 · 체류 일수를 결정 시 가장 큰 영향 준 요인(일정, 비용, 교통, 숙소, 불거리 등) · ‘조금 더 머물고 싶다’ 라고 느낀 순간은? 어떤 점? · 1박 이상(장기체류) 및 정기적 체류를 하게 하려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요소(관광지 개선, 안내원 지원 확대, 할인 혜택, 정보 제공처 확대 등)는?

- 정기적 체류인구 유형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3개 영역으로 구성함. (1) 정기적 체류 활동 및 관련 경험 실태, (2) 거주지 선택과 정주 전환 가능성, (3) 응답자의 일반적인 체류 상황(지역, 성별, 근무지, 통근·통학 거리 등)을 살펴보았음

[표 3-16] 정기적 체류 인구 대상의 영역별 세부 조사 내용

영 역	세 부 내 용
응답자 체류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거주지, 정읍시 근무지, 통근·통학 거리와 소요 시간 · 통근·통학 기간, 주당 방문 빈도, 주요 교통수단, 교통 편의성 평가
체류 활동 및 경험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근·통학 시 겪는 가장 큰 불편사항 및 어려움과 이를 위해 정읍시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지원 정책 수요 · 체류 시 주로 머무는 지역 및 시설과 주요 활동 · 체류 시 소비(식사, 쇼핑, 여가 등) 빈도 · 현재 거주지와 비교한 정읍시 정주환경 수준 평가와 그 이유
거주지 선택 및 정주 전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읍시 이주 정착 의향 여부와 그 이유, 이주 결정의 가장 중요 요인과 큰 장애요인, 필요/개선 요건, 가족 단위로의 이주 고려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과 이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정책 · 정읍시로의 이주 및 정주를 고려할 만한 희망 지원 정책 · 현재 시행 중인 정읍시 전입 독려 정책의 개선 및 보완점 · 통근·통학 인구의 이주를 위해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 · 추가로 정읍시에 확충되어야 할 생활 인프라 및 지원 정책

- 마지막 전문가 자문의 경우는 3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정읍시 체류인구 현황·특성의 전반적 평가, 비정기적 체류인구의 장기 및 정기적 체류 인구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적 체류인구의 정읍 정주 인구화 방안으로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함

[표 3-17] 전문가 자문의 영역별 세부 내용

영 역	세 부 내 용
정읍시 체류인구 현황·특성의 전반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읍시 체류인구 정책 방향 수립 시 가장 주목해야 할 정책 포인트 및 최우선 해결과제 도출 정읍시 체류인구 특성(낮은 외지인 유입, 계절 편중 등) 의 근본 원인 분석
비정기적 체류인구의 장기 및 정기적 체류 인구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정기적)체류인구로의 전환을 위한 우선순위 정책과 그 이유 '가을 여행지 이미지' 극복을 위한 비성수기 방문 확대 전략 당일치기 비중 완화를 위한 1박 이상 숙박 유도 정책·사업 발굴 반복 방문(정기 체류)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사업 제안 지자체 대표 로컬 브랜딩 아이디어 제시 국내외 일회성 방문객→정기적 방문객 전환 사례 및 정읍시 적용 시 고려사항
정기적 체류인구의 정읍 정주화 인구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주 전환을 위한 우선순위 정책과 그 이유 정주 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요인 분석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 전략 제안 가족단위 정주 확대를 위한 필수 맞춤형 지원 정책 제시 '정읍愛 주소갖기' 정책의 문제점·보완사항 및 향후 발전 전략 국내 외 정기적 체류→정주 전환 성공사례 및 정읍시 적용 시 고려사항 미래사회 변화 대응 관련 체류인구 확보를 위한 중장기 투자·육성 분야

■ 심층면접 조사 참여자 및 전문가의 일반적 현황

- 먼저, 심층면접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는 [표 3-18]과 같이 비정기적 체류인구 5명, 정기적 체류인구 6명, 총 11명임. 지역별로는 전주지역이 6명으로 가장 많고, 완주 1명, 고창 1명, 수도권 2명, 경상권 1명임
 - (비정기적 체류 인구 면접조사 참여자) 3명의 청년층(여성 미혼자 1명, 남성 미혼자 1명, 남성 기혼자 1명), 2명의 고령층(남성 기혼자)임
 - (정기적 체류 인구 면접조사 참여자) 3명의 청년층(여성 기혼자 1명, 남성 기혼자 1명, 여성 미혼자 1명), 3명의 중장년층(여성 기혼자 2명, 남성 기혼자 1명)

- 다음으로,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6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생활인구 분야 2명, 관광 분야 2명, 청년·일자리 분야 2명, 산업·일자리, 주거·인프라, 도시계획 분야 각각 1명씩이 참여하였음

[표 3-18]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비정기적 및 정기적 체류인구의 일반 현황

조사 대상	집단 구분	연령대	성별	거주지	결혼 유무	자녀 유무
비정기적 체류인구	단순 방문 인구	70대	남성	서울	기혼	有
		70대	남성	전주	기혼	有
		30대	여성	전주	미혼	-
	숙박 인구	30대	남성	경기	기혼	有
		30대	남성	울산	미혼	-
정기적 체류인구	통근 인구	50대	여성	원주	기혼	有
		30대	여성	전주	기혼	有
		40대	남성	전주	-	-
		50대	여성	전주	기혼	有
		30대	남성	전주	기혼	有
		30대	여성	고창	미혼	-
전문 분야	소속기관	직위	성별	연령대	거주지	
생활인구	전주대학교	교수	남	60대	전주	
생활인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남	30대	원주	
관광	한국관광공사	전문위원	여	50대	전주	
관광	우석대학교	특임교수	여	50대	원주	
청년/일자리	전북대학교	부교수	남	60대	전주	
청년/일자리	국립군산대학교	교수	남	50대	군산	
산업/일자리	전북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본부장	남	40대	전주	
주거/인프라	즐거운도시연구소	원장	여	40대	전주	
도시계획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원장	남	50대	광명	

나. 결과 분석

- 정읍시 체류 인구의 특성을 비정기적 체류인구와 정기적 체류인구로 구분하여 심층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내용을 분석하였음

1) 비정기적 체류인구의 정기적(재방문) 및 장기(숙박) 체류 전환 가능성 진단

- [심층면접조사 인터뷰 내용 분석] 비정기적 체류인구의 방문 실태와 정기적(재방문) 및 장기(숙박) 체류 전환 유도 요인 분석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3-19] 비정기적 체류인구 대상 심층면접조사 주요 분석 결과

상위주제	하위 주제
방문·체류 배경, 첫인상 및 주요 방문 장소	지인 추천과 인터넷 검색, 유튜브 콘텐츠 열람 통한 방문 첫인상: (긍정)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맑은 공기, 친절한 사람들, (부정) 관광객 몰림과 그로 인한 불쾌한 경험 계절 관광 목적(내장산 기을단풍·구절초 축제)의 당일치기 방문 낚시·레저, 맛집 투어 겸한 1박 2일 방문
방문(체류) 활동 경험 실태(체류 시 불편했던 점)	대중교통 연계 미흡 및 정읍시 내 관광지 간 이동 불편 먹거리·볼거리 부족과 낮은 서비스 품질 주차시설 및 관광지·상권 내 숙박시설 부족
재방문(정기적 체류) 및 장기 체류 유도 조건	머물고 싶은 생각도 있으나 일찌 떠나고 싶은 부정적 동기가 더 큼 재방문 의향과 함께 숙박·주차시설 부족으로 실제 행동화 어려움이 큼 계절별 놀거리·볼거리·먹거리 인프라 구축 관광지 내 상권 품질 제고 필요 1박 2일 관광 코스 개발 필요 레저(낚시, 등산) 관광객에 대한 친화 정책 필요
비성수기(가을 제외) 체류 유도 가능성	SNS·유튜브 크리에이터 활용 '청년층 타겟' 마케팅 필요 내장산의 사계절 아름다움 적극 홍보 필요 자연경관, 역사유적 둘레길, 먹거리·재래시장 특색화 등 사계절 콘텐츠 개발 필요

상위주제	하위 주제
체류 연장의 필요조건	수유실·유아휴게소와 같은 육아 편의시설 확충
	가족친화형 숙박시설 확충
	연령대별 맞춤형 관광 콘텐츠 필요

■ 방문·체류 배경, 첫인상 및 주요 방문 장소

- (주로 지인 추천과 인터넷 검색, 유튜브 콘텐츠 시청을 통한 방문) 응답자들은 정읍 방문 정보를 네이버·유튜브 등 온라인 검색이나 지인 추천을 통해 획득하였으며, 낚시 동호회 소개나 어린 시절 가족 나들이 기억을 통한 ‘추억 기반형’ 재방문 경로도 확인됨
- (정읍시 관광에 대한 첫인상) 자연환경, 여유로운 분위기, 고즈넉한 시골 정취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가을 성수기에는 교통 혼잡, 호텔 행위, 가격 대비 낮은 음식 품질 등으로 ‘다시 오고 싶지 않다’는 부정적 인상도 공존함
- (내장산 가을단풍, 구절초 축제 등 계절 관광 목적의 당일치기 방문) 대부분의 방문은 내장산 단풍·구절초 축제 등 계절성 관광을 중심으로 한 당일치기 형태였음
- (낚시, 레저, 맛집 투어를 겸한 당일 또는 1박 2일 방문) 단순 자연경관 관람 외에도 동진강 및 저수지 등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낚시 활동을 하였음. 쌍화차 거리 방문 수요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타 지역 대비 굉장히 특색이 있다고 평가함

■ 방문(체류) 활동 경험 실태(체류 시 불편했던 점)

- (대중교통 연계 미흡 및 정읍시 내 관광지 간 이동 불편) 자차 없이는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고, 관광지 간 연계도 불편하다는 불만이 다수 제기됨
- (먹거리·볼거리 부족 및 낮은 서비스 품질) 볼거리가 내장산 단풍과 같이 ‘가을’, ‘자연 관람’에만 치우쳐 있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함. 먹거리의 경우 내장산 입장 전 간단한 먹거리 코너 조성을 희망하였음. 또한, 쌍화차는 특색있으나 그 외에는 특화된 음식이 없다고 평가하며, 비싼 음식 가격 및 음식이

털 익혀서 나오거나, 종업원의 불친절한 응대 등 관광 품질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경험을 하였음

- (주차시설 부족) 주요 관광지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해 혼잡 시 관광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음
- (관광지·상권 내 숙박시설 부족) 관광지·상권 내 숙박시설이 수적으로 부족하고, 품질이 모텔 수준에 머물러 숙박 고려 시 불편을 겪음

■ 재방문(정기적 체류) 및 장기 체류 유도 조건

- (재방문 의향과 함께 숙박·주차시설 부족으로 실제 행동화 어려움이 큼) 대부분의 응답자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경험에 만족하며 재방문할 의향이 있지만 ‘적합한 숙박시설 부재’에 대한 문제를 꼽았음. 특히, 아이를 동반할 경우 숙소의 위생 상태가 결정적인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며, 시내 상권 방문 시 겪는 주차난도 재방문을 주저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장벽으로 지적됨
- (계절별 놀거리·볼거리 인프라 구축) ‘정읍=내장산 가을 단풍’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계절별 콘텐츠 확충이 시급함. 봄(벚꽃, 꽃길), 여름(물놀이), 겨울(설경) 등 사계절 내내 방문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함
- (관광지 내 상권 품질 제고 필요) 내장산 인근 식당에서 가격 대비 낮은 서비스 품질에 대해 불쾌감을 토로함.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관광지 이미지 훼손과 재방문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상인 교육 및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관광지 내 상권 품질 제고 필요
- (1박 2일 관광 코스 개발) 수도권 방문객은 당일여행보다 1박을 선호하나 적절한 코스 부재로 실제 숙박 전환이 어려웠음
- (레저 관광객에 대한 친화 정책 필요) 정읍시의 강과 저수지는 낚시인들에게 매력적인 자원이지만, 낚시 금지 구역 설정이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음. 레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낚시 가능 구역을 양성화하거나 전용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함

■ 비성수기(가을 제외) 체류 유도 가능성

- (SNS·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청년층 타겟 마케팅) 가을철 외 2030 청년층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SNS를 통해 매력적인 명소(포토존)를 홍보하고, 방문인증 이벤트를 진행해 청년층이 자발적으로 정읍시를 유도하는 전략 필요. 또한, 유튜브 여행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정읍시의 숨은 매력을 알리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 (내장산의 사계절 아름다움 적극 홍보 필요) 내장산은 봄, 여름, 겨울에도 충분히 아름답고 방문할 가치가 있기에 사계절 아름다움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 (자연경관, 역사 유적 둘레길, 먹거리·재래시장 특색화 등 사계절 콘텐츠 개발 필요) 사계절 방문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테마의 관광자원 개발이 요구됨. 구체적으로, ‘운암호 등 수변 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꽃길·둘레길 조성’, ‘이순신 장군·최치원·동학농민혁명 등 풍부한 역사 자원을 잇는 역사유적 둘레길 조성’, ‘재래시장 내 간식 특화 거리 조성’ 등을 통해 ‘볼거리’와 ‘먹거리’ 및 ‘즐길거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콘텐츠 확충 등도 필요함

■ 체류 연장을 위한 필요조건

- (수유실·유아휴게소와 같은 육아 편의시설 확충) 가족 단위 방문객의 경우 기저귀 교환대나 수유실 같은 육아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장시간 머무르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함. 특히, 주요 관광지나 식당가 주변에 아이와 함께 잠시 쉴 수 있는 쾌적한 휴게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가족 친화형 숙박시설 확충) 담배 냄새·청결 문제 등 기존 숙소가 아이 동반 여행에 적합하지 않아 가족형 숙박시설 확충 필요성이 강조됨
- (연령대별 맞춤형 관광 콘텐츠 필요) 현재 자연관람 중심의 중장년층 편중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연령대별 및 가족단위별 맞춤형 관광 콘텐츠 마련 필요함
 - 청년층을 위한 SNS 활용 감성카페투어, 가족단위 여행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등

■ 전문가 자문 내용 분석

- 비정기적 체류인구의 장기 및 정기적 체류 인구화 방안에 관한 주요 결과는 아래 [표 3-20]과 같음

[표 3-20] 비정기적 체류인구의 장기 및 정기적 체류 인구화 방안에 관한 전문가 자문조사 주요 분석 결과

상위주제	하위 주제
사계절 관광 콘텐츠 확충 방안	비수기 타겟 킬러 콘텐츠(라벤더, 물놀이 시설) 개발 단풍지원 활용 체험형 관광 콘텐츠 고도화 야간 체류 유인 프로그램 도입
1박 이상·장기 체류 유도 방안	유휴 지원 활용 로컬 스테이 조성 관광–생활권 연계 동선 구축 체류비용 절감 인센티브 지원
재방문 촉진 및 관계 형성 기반 구축 방안	커뮤니티 조성 및 멤버십 기반 관리 지역–방문객 연결 매개자(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라이프스타일 변화 대응 장기체류모델 개발
정읍형 특화 도시 브랜딩 방향	웰니스·치유 기반 도시 브랜딩 지역특화 먹거리·레포츠 브랜딩 인문학 기반 도시 브랜딩
타겟 맞춤형 체류인구 유치 전략	스포츠 관광 마케팅 기반 비수기 활성화 KTX 연계 워케이션 및 전문 체류인구 창출 역사·인문학 기반 교육·연수여행 거점화

■ 사계절 관광 콘텐츠 확충 방안

- (비수기 타겟 킬러 콘텐츠(라벤더, 물놀이 시설) 개발) 단풍 시즌 이외의 타 계절을 겨냥한 킬러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정읍 허브원 등의 라벤더를 이용한 아로마 테라피와 웰니스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여름철에는 계곡 및 저수지 자원을 활용한 물 놀이 시설을 확충하여 비수기 관광 공백을 메워야 함

-
- (단풍자원 활용 체험형 관광 콘텐츠 고도화) 기존 핵심 자원인 단풍 관광을 고도화하여 가을철 단순 관람의 한계를 보완해야 함. 시각적 관람을 넘어 낙엽 공예 체험, 차별화 된 단풍 굿즈 개발, 스탬프 투어 등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요소를 대폭 강화해야 함. 더불어 단풍 절정기뿐만 아니라 물들어가는 전 주기 과정에 스토리텔링을 도입하여, 관광 대상을 '단풍'이라는 결과물에서 '나무와 자연' 그 자체로 확장하고 성수기 혼잡도를 분산시켜야 함
 - (야간 체류 유인 프로그램 도입) 현재 주간 활동에 편중된 관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체류 유도 프로그램이 필수적임. 남원 광한루원 사례와 같이 오후 6시 이후 주요 관광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가로 개방하여 늦은 시간 도착객의 숙박 전환을 유도해야 함. 또한, 야간 음식 축제, 조명 연출(미디어파사드 등), 야간 역사·문화 탐방 등 야간 전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정기 축제와 연계하여 1박 이상 머무는 관광 구조를 구축해야 함

■ 1박 이상·장기 체류 유도 방안

- (유휴 자원 활용 로컬 스테이 조성) 도심 중심의 유휴 건물과 농촌 지역의 노후 주택(한옥 등)을 리모델링하여 에어비앤비 형식의 공유 숙박시설(로컬 스테이)로 전환함으로써 부족한 숙박 인프라를 확충해야 함. 도시 지역은 짧은 춤과 개별 여행객을 타겟으로, 농촌 지역은 학교 및 기업 단체 관광객을 타겟으로 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숙박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
- (관광-생활권 연계 동선 구축) 관광거점(내장산, 구절초공원 등)과 생활거점(정읍 시내 상권) 간의 단절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함. 관광지 방문이 시내에서의 식사, 쇼핑, 문화 체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통합 인프라와 이동 동선을 설계해야 함. 이는 단순히 관광지를 추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 콘텐츠를 생활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방문객이 지역 경제 내에서 소비하고 체류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임
- (체류비용 절감 인센티브 지원) 숙박 유도를 위해 '반값 여행(인구감소지역 여행 비용 환급)' 등 정부의 관광 활성화 시범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함. 또한, 일회성 방문을 정기적 방문으로 전환하기 위해, 최근 6개월 이내 정

읍시에서 1박 이상 숙박한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 할인 쿠폰이나 바우처를 제공하는 재방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함

■ 재방문 촉진 및 관계 형성 기반 구축 방안

- (커뮤니티 조성 및 멤버십 기반 관리) 비정기적 방문객을 관계 인구로 전환하기 위해 3회 이상 방문객 대상 멤버십 제도(명예 정읍시민 위촉, 문화시설 감면, 정기 체험 제공 등)를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정기 방문의 핵심 동기는 '사람 간의 관계'이므로, 문화·관광 활동을 매개로 방문객이 실제 지역 주민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활동 공간을 마련해야 함
- (지역-방문객 연결 매개자(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방문객과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핵심 인력인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해야 함. 이들은 지역 명소와 행사 거점에서 방문객에게 최적의 동선을 안내하고, 지역 스토리텔링과 네트워킹을 주도하여 방문객이 지역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도록 지원함
- (라이프스타일 변화 대응 장기체류모델 개발) 주 4일제 근무 확산, 원격 근무 보편화 등 급변하는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반영하여, 단순 관광이 아닌 '제2의 거주' 개념의 체류 모델을 정립해야 함. 특히,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4도 3촌(4일은 도시, 3일은 촌)', '5도 2촌' 등 듀얼 라이프(Dual Life)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연한 장기 체류 상품을 개발해야 함

■ 정읍시 특화 도시 브랜딩 방향

- (웰니스·치유 기반 도시 브랜딩) 내장산을 포함한 청정 자연환경, 쌍화차(발효 치유)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천년의 치유 도시 정읍'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함. 웰니스 페스타를 상설화하고 숲속 요가, 싱잉볼, 치유 러닝 등의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생활형 웰니스 기반을 조성해야 함
- (지역 특화 먹거리·레포츠 브랜딩) 정읍 한우 시그니처 메뉴, 송명섭 막걸리 체험, 귀리·쌍화차 등 건강 먹거리를 관광 자원화하고, 주류 체험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체류형 식

도락 콘텐츠를 강화해야 함. 더불어 정읍의 산악·지형적 특성을 살려 트레킹, 캠핑형 레포츠 브랜드를 육성하고, 레포츠 활동과 지역 먹거리를 결합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정읍에서만 가능한 체류 경험을 제공해야 함

- (인문학 기반 도시 브랜딩) 동학농민혁명,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등 역사·교육자원을 활용해 생애주기형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더불어 단풍나무, 구절초, 꽃차 기반 재배 체험 및 꽃차 만들기 등 자연-인문학 융합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정읍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함

■ 타겟 맞춤형 체류인구 유치 전략

- (스포츠 관광 마케팅 기반 비수기 강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 중인 스포츠 시설 확충을 넘어, 트레일러닝 대회 등 정기적인 대회를 유치하여 마니아층의 반복 방문을 유도해야 함. 특히, 대회 참가자와 가족이 머물 수 있도록 숙박과 지역 체험이 결합된 패키지 상품을 운영하여 스포츠가 지역 관광 활성화의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함
- (KTX 연계 워케이션 및 전문 체류인구 창출) KTX 접근성을 활용하여 정읍역 및 구도심 유휴 공간에 공유 오피스와 숙소가 결합된 '워크+스테이' 거점을 조성해야 함. 아울러 바이오·헬스케어 인프라와 연계하여 관련 연구자 및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전문직 워케이션 모델을 구축해야 함
- (역사·인문학 기반 교육·연수 여행 거점화) 동학농민혁명 역사 지원과 정읍 출신 인물(홍성대 등)을 스토리텔링하여 청소년 수학 캠프, 학부모 세미나 등 특화된 교육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함. 또한 기업 워크숍 및 중장년층 대상 인문학 힐링 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일 체류 수요를 확보하고 교육·연수 여행의 거점으로 도약해야 함

2) 정기적 체류인구의 정주 전환 가능성 진단

- [심층면접조사 인터뷰 내용 분석] 정기적 체류인구의 통근 경험 실태와 정읍시로의 거주지 이전 및 정주 전환 필요 요건에 대한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3-21] 정기적 체류인구 대상 심층면접조사 주요 분석 결과

상위주제	하위 주제
체류활동 및 경험 실태	장거리 통근 및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함
	낮은 생활·여가 활동 수준
	교육·의료·문화·여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정주환경에 대한 낮은 평가
거주지 선택 및 정주 전환 가능성	정주 전환을 위한 필요 핵심 요건: 주거 지원,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자녀 교육·주말 활동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가족 단위 전입 제약
	전입 지원 정책 홍보 강화 및 다자녀·학생 대상 지원 확대 필요

■ 체류 활동 및 경험 실태

- (장거리 통근 및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함) 정기적 체류인구 대부분 왕복 2~3시간 이상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높은 피로도와 퇴근 후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통근의 불편함을 호소함. 또한, 정읍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차선 축소로 인한 교통정체, 겨울철 제설 미흡으로 발생하는 통행 불편, 외곽지역 터널 조명 부족으로 인한 사고 위험 증가 등 구체적인 불편 경험이 제기됨
- (낮은 생활·여가 활동 수준) 근무시간 외 정읍에서의 활동은 대부분 장보기(마트 이용), 간단한 식사, 카페 이용 등 최소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일부 응답자는 내장산·천연 산책, 시청·교육청 방문 등을 언급하였으나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었음. 또한 소비·여가 활동 전반에 대하여 ‘가끔 한다’,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 정읍에서의 생활·여가 활동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의료·문화·여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정주환경에 대한 낮은 평가) 정읍시의 교육·의료·문화·여가 인프라가 현재 거주지(전주, 완주 등)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대다

수임. 교육환경의 경우, 고품질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수의 부족, 방과 후·영재교육 프로그램 이용의 어려움을 토로해 교육 접근성의 열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의료 인프라 관련하여서는 검증된 의료시설 부족과 고품질 치료를 위해서는 광주로 이동해야 한다고 하였음. 문화·여가 인프라 역시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해 필요할 때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였음

■ 거주지 선택 및 정주 전환 가능성

- (정주 전환을 위한 필요 핵심 요건: 주거 지원,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및 교통편의 개선) 정읍시로의 정주 전환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건은 주거지원,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및 교통편의 개선이며 각 분야별 구체적 필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주거 분야에서는 주택구입 지원금, 월세 지원금, 주거단지 조성(학군지에 40평대 1군 아파트 신축 또는 단독주택단지 조성), 주택 개·보수 지원, 임대 아파트 공급 등을 희망하였음. 교육환경 관련하여서는 학구적 분위기의 우수학교 확보, 고품질의 방과 후 수업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의료 인프라 측면에서는 종합병원급 진료체계, 동네약국 설치 확대, 응급 대응 시스템 개선 요구가 확인됨. 문화·여가 인프라의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가 정읍시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인프라라고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도서관·수영장·스포츠시설, 복합쇼핑센터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하였음
- (자녀 교육·주말 활동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가족 단위 전입 제약) 가족과 함께 이주를 고려할 경우,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자녀 교육문제가 지적되었음. 자녀의 교육, 치료, 문화활동 등 대부분 생활 기반이 기존 거주지에 있어, 정읍시로 전입 시 정읍시에는 거주지만큼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 및 주말 활동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나타남
- (전입 지원 정책 홍보 강화 및 다자녀·학생 대상 지원 확대 필요) 대부분 응답자는 현재 정읍시가 추진 중인 현금성 지원 제도인 ‘정읍愛 주소갖기’ 전입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음. 일부는 해당 정책을 알았더라면 더 일찍 전입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정책 홍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통근 인구가 많은 공공·교육기관에 전입 독려 정책에 대한 적극 홍보 필요성을 언급함. 또한, 다자녀가구 전입 혜택 추가, 전입 대

학생 대상 이동비 지원, 이사비·교육비 지원 강화 등 정책 보완을 요구하면서, 단순 금전 지원을 넘어 생활 인프라 개선이 정주 전환 결정에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냄

- [전문가 자문 내용 분석] 정기적 체류 인구의 정읍시 정주 인구화 방안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22] 정기적 체류인구의 정읍시 정주 인구화 방안에 관한 전문가 자문조사 분석 결과

상위주제	하위 주제
정주 필수조건 구축	일자리 질 제고 및 산업구조 개선
	직주근접형 주거 공급 및 주거 안정성 강화
	생활 SOC·의료·여가 인프라 확충
가족·생애주기 중심 정주 촉진 체계 구축	교육·보육·돌봄 경쟁력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주 지원
교통·접근성 기반 정주 전략	정주 유도형 이동체계 구축
	광역 접근성 활용 유입 전략
지역 관계·공동체 기반 정착 지원	지역 소속감 및 공동체 기반 강화
	관계인구-농촌유학 기반 정주 모델 확장
	청년·여성·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정착 지원
기존 정책 개선 방향	'정읍愛주소갖기' 구조 개편
	정주 패키지형 정책체계 설계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도입

■ 정주 필수조건 구축

- (일자리 질적 고도화 및 산업구조 개선) 정기적 체류인구의 정주 전환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은 단순 일자리 부족이 아닌 열악한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 문제임. 이에 대응하여 청년·중장년층이 선호하는 IT·문화·전문직종과 지역 고용구조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디지털노마드 유치 등 외부 인재가 머무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함

-
- (직주근접형 주거 공급 및 주거 안전성 강화) 장거리 통근자들이 정읍을 생활거점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인근에 직주근접형 리빙타운과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주거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함. 동시에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가격 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착 여건을 강화해야 함
 - (생활SOC·의료·여가 인프라 확충) 정읍의 의료·생활편의·여가시설 부족은 장기 정주 의사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필수 생활 SOC를 우선 확충해 일상생활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여야 함. 이를 기반으로 교육·보육·문화 인프라의 품질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가족 단위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구축해야 함

■ 가족·생애주기 중심 정주 촉진 체계 구축

- (교육·보육·돌봄 경쟁력 강화) 가족 단위 정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농어촌특례를 활용한 명품 중학교 육성, 특성화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함. 더불어 보육·돌봄 공공서비스를 확충하여 양육 가구가 정읍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주 지원) 초기 유입 가구가 정착을 결정하는 3~5년 동안 주거·출산·교육을 연계한 생애주기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 경로를 마련해야 함. 단기·일회성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장기 거주 기간에 비례하는 지속·누적형 패키지로 전환해 정주 효과를 높여야 함

■ 교통·접근성 기반 정주 전략

- (정주 유동형 이동체계 구축) 광역교통이 편리해질수록 정읍 거주 유인이 낮아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역 내부에서의 이동 편의성을 높여 생활·업무·여가 활동이 정읍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이에 따라 시내버스 무료화, 공영주차장 개방, 통근비 지원 등 생활밀착형 교통 지원을 확대해, 정읍 내에서 머물 때의 편리성과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높여야 함
- (광역 접근성 활용 유입 전략)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역으로 활용하여, 광주·전주권 주

민이 주말·휴식 목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세컨하우스형 체류·정주 옵션을 마련해야 함. 이와 함께 KTX·고속도로 접근성을 기반으로 반복 방문·단기 체류·준정주로 이어지는 이동 경로를 설계하여, 광역권 주민의 정읍 생활권 편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함

■ 지역 관계·공동체 기반 정착 지원

- (지역 소속감 및 공동체 기반 강화) 체류 인구가 지역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동·지역 주민교류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 소속감을 높여야 함. 공동체 기반이 강화될수록 정주 전환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는 만큼,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함
- (관계인구-농촌유학 기반 정주 모델 확장) 일본 미키정·오나초 사례처럼 고향 뉴스레터, 지역주민 교류, 장기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외지인과 지역사회 간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러한 관계 기반을 정기적 체류와 생활권 참여로 확장해야 함. 특히, 이 관계인구 전략을 정읍의 농촌유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생의 체류 경험이 가족 전체의 생활권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족 체류형·생활권 정착형’ 모델로 발전 시켜야 하며, 숙박·교육·체험을 결합한 장기 체류 패키지를 통해 가족 단위 정주 전환 가능성을 높여야 함
- (청년·여성·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정착 지원) 청년·여성·자립준비청년 등 대상별 정착 요인을 고려하여 수요 맞춤형 주거·일자리·생활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이동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 전용 안심주택을 공급하고,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주거-취업-자립기술 교육을 연계한 집중 지원을 제공해 실질적 정착 기반을 마련해야 함

■ 기존 정책 개선 방향

- ('정읍愛주소갓기' 구조 개편) 현행의 단기·현금지원 중심 구조는 정착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장기 거주 기간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로 개편해야 함. 전입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과 장기적 정주 유지를 유도해야 함

-
- (정주 패키지형 정책체계 설계) 일자리-주거-교육·보육이 분절되지 않도록 통합 패키지 형 정주 정책을 설계하여 정착 효과를 높여야 함.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발전 협약 등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하여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정주 기반을 정착시켜야 할 것임
 -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도입) 정주 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입-정착-이탈 단계별 지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캐나다 이민 정책의 '성과 정보 프로필(Performance Information Profile)'을 벤치마킹하여, 단순 전입 수가 아닌 서비스 이용률, 지속 거주율 등 실질적 정착 지표를 관리해야 함

4. 요약 및 시사점

가. 정읍시 체류인구 현황 분석

- 정읍시 체류인구는 전반적으로 50·60대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로, 특히 4/4분기 (10~12월)의 경우 전체 체류인구의 59.6%가 50·60대로 나타나 100명 중 약 60명이 50·60대에 해당함. 이는 정읍시에서 실제로 체류하며 소비·활동을 수행하는 주력 연령 층이 50·60대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연령대별 ‘체류인구 배수’를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의 전형적 특징인 청년층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30·40대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다시 말해, 등록인구 규모에 비해 30·40대가 정읍시에 비교적 많이 머무르는 경향이 확인됨
- 다만, 4/4분기에는 이러한 패턴에서 예외가 나타나며, 50대의 체류인구 배수가 4.7배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계절·시기별로 50대를 중심으로 한 집중 유입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체류인구 구성에서 60대 이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 층(60대 이상)의 체류인구 배수는 1.1배에서 1.6배 수준으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등록인구와 체류인구 간 규모 차이가 크지 않다는 뜻으로, 외부 유입보다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고령층 중심의 체류 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연령 구조는 정읍시가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특정 연령대(특히, 50·60대)를 중심으로 체류와 소비가 유지·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30·40대의 체류인구 배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절대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청·장년층 방문자들이 정읍을 ‘머무는 공간’으로 활용할 잠재력이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음
- 반대로, 고령층의 경우 이미 정주인구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으나, 체류인구 배수 측면에서는 관광·방문보다는 생활 기반 인구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정읍시의 인구 구조상 고령화가 심화된 가운데 정주·복지 정책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나. 빅데이터 기반 정기적 체류인구 특성 분석

1) 정기적 체류인구의 인구통계학·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결과

- 정기적 체류인구의 성별 구성은 남성 4,094명으로 여성(2,488명)의 약 1.65배이며, 유입 구조가 남성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연령대는 40대(2,057명)와 50대(1,811명)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60세 이상(1,210명), 30대(1,191명), 20대(313명) 순으로 중장년층 중심 체류가 뚜렷함
- 소득 분포는 중간 소득층(3,752명)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성별 비교 시 남성이 고소득 층 비중에서 우세함.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중간·고소득층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 경제활동 역량이 집중된 계층으로 나타남
- 소비 특성은 20·30대의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약 67~71%로 가장 높고, 주요 유입 층인 40대도 약 64.8%를 소비하는 등 주요 연령대의 소비 활동이 전반적으로 활발함
- 종합하면 정읍시 정기적 체류인구는 40·50대 중장년 남성 중심의 경제활동 집단이며, 안정적인 소득과 높은 소비 여력을 바탕으로 정주 전환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큰 핵심 계층임

2) 정기적 체류인구의 유입 행태 분석 결과

- 자택 소재지 기준으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3,715명)와 덕진구(1,267명)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되며, 김제시(115명), 익산시(45명), 군산시(21명), 광주광역시(39명) 등 인근 광역권에서도 일정 규모의 유입이 확인됨
- 직장인구 분포는 수성동·내장상동에 집중되어 정읍 도심의 핵심 근로·생활 중심지임이 드러나며, 북면·신태인읍은 산업단지·농공단지와 연계된 산업권역 주요 체류 거점으로 나타남
- 농소동·연지동, 상교동·장명동·시기동 등은 행정·교육·주거 기능이 혼재한 균린 생활권으로, 연령대 전반에 걸쳐 일정 규모의 직장인구가 분포하는 생활·배후형 체류지역

을 형성함. 반면 산외면·산내면 등 동부 산간 지역은 유입 규모가 매우 낮아 체류 수 요가 제한된 지역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직장인구 분포에서도 공간 패턴은 유사함. 20대는 수성동·북면, 30·40대는 내장상동·수성동·연지동·북면, 50대는 수성동·내장상동·농소동·연지동에 집중되며, 60 세 이상은 규모는 작으나 같은 생활권 내에서 근로가 이루어짐. 이는 정읍시 체류인구 가 도심·산업단지·생활권 3축 구조 속에서 연령대별 역할을 달리하며 체류하고 있음을 보여줌
- 종합하면 정읍시 정기적 체류인구는 전주권 기반 유입이 뚜렷하고, 시 내부에서는 수 성동·내장상동 도심 핵심권, 북면·신태인읍 산업단지 연계지역, 농소동·연지동·시기동 근린 생활권에 체류가 집중됨. 이러한 분포는 향후 정주전환 정책에서 도심 및 산업권 역을 전략적 중점 지역으로 설정하고, 유입이 저조한 면 지역에 대한 보완·활성화 전 랙이 필요함을 시사함

3) 정책적 시사점

■ 정기적 체류인구의 소비력 기반 상권 활성화 방향

- (정기적 체류인구의 지역 내 소비력 흡수 촉진) 40·50대 중심의 정기적 체류인구는 안정 적인 소득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지역 내 소비 연계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도심권 (수성동·내장상동)에는 복합문화공간 및 프리미엄 브랜드를 유치하고, 산업단지 배후 (북면·신태인읍)에는 야간 소비공간을 확충하여 ‘근로 후 소비’가 지역 내에서 완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함
- (연령대별 소비 성향 기반 맞춤형 상권 재편) 청년층의 트렌드 지향성, 중장년층의 실용· 편의성, 고령층의 건강·여가 지향성 등 세대별 소비 패턴이 상이함. 체험형 콘텐츠(청 년), 대형 편의시설(중장년), 헬스케어 기반(고령층) 등 타깃별 소비 특성에 최적화된 상권 재구조화를 통해 체류인구의 소비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적 체류인구의 생활체류 전환을 위한 생애주기별 정주 기반 구축 방향

-
- (청년층의 심리적·물리적 정착 기반 조성) 20·30대는 유입 비중이 낮고 근로권역에만 집중되어 있어 정주 전환을 위한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도심권 청년창업공간 및 공공임대주택, 산단 인근 기숙사형 주거단지 등 하드웨어 확충과 더불어, 커뮤니티 및 문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병행 지원하여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매력도를 높여야 함
 - (중장년층의 가족 단위 이주를 위한 정주 여건 강화) 핵심 유입 계층인 중장년층(40·50대)의 정주 전환을 위해서는 가족 부양 환경 개선이 필수적임. 도심권에는 교육·보육 시설과 가족형 주택을, 산단 인근에는 직주근접 교통망과 근로자 복지센터를 구축하여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정주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
 - (고령층의 참여형·생활형 체류 경로 확보) 단기 근로 위주의 고령층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시니어 직업전환센터, 사회공헌 일자리 등 ‘참여형’ 프로그램과 의료·건강관리 인프라를 연계하여 근로가 끝난 후에도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생활 체류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체류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차등화된 생활권 발전 방향

- (도심 핵심권의 복합 정주 기능 고도화) 직장인구가 집중된 수성동·내장상동은 단순 상업·주거 기능을 넘어 업무·문화가 결합된 공간 혁신이 요구됨. 도보권 내에서 일, 여가, 주거가 해결되는 도심형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모델을 적용하여 정주 편의성을 극대화해야 함
- (산업단지 연계 권역의 정주 환경 개선) 북면·신태인읍은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나 편의시설이 부족함. 근로자 편의시설 및 주거단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산업과 정주가 공존하는 복합 생활권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근린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정주 환경 개선) 도심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대규모 개발보다는 소규모 생활 SOC(도서관, 체육센터 등) 확충과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해 정주 매력도를 유지하는 강소형 생활 거점 전략이 필요함

[표 3-23] 빅데이터 기반 정기적 체류인구의 특성 진단에 따른 정책 방향

구분	현황 및 진단	주요 내용	정책 방향
소비 활성화	중장년 남성 중심의 경제 활동 집단 형성	40·50대 남성이 주류를 이룸 중간·고소득층 비중이 높음, 소비 여력 충분	지역 내 소비력 흡수를 위한 맞춤형 상권 개편
	연령대별 소비력 및 소비 성향 차이 고려	평균 소비력: 20대 71%, 30대 67.6%, 40대 64.8%, 50대 53.9% 높은 소비력 활용을 위한 연령대별 소비 패턴 구분 필요	
정주 기반	청년층의 낮은 유입 및 근로권역 집중	20·30대 유입이 낮고, 활동 반경이 도심 및 산단 등 근로권역에 한정 정주로 이어질 생활·문화적 연결고리가 취약	심리적·물리적 정착 기반 조성
	핵심 경제층 통근 및 고령층 단기 근로	40·50대는 핵심 유입층이나 전주 등 인근 도시에서 통근 60세 이상 인구 유입 규모는 적으며, 도심·산단 인근에서 단기·보조적 경제활동 위주	가족 동반 위주 및 참여형·생활형 체류 유도
공간 전략	도심 핵심권으로의 집중	직장인구 대다수가 수성동·내장상동에 밀집하여 근로·생활의 중심지 기능 수행 업무·상업 기능 집적된 도심 복합 거점으로 상시 인구 밀도가 높은 권역	도심형 핵심권 복합 정주 기능 고도화
	산단 배후지 및 근린 생활권 기능 분화	북면·신태인읍은 산업 연계형 체류지이나 편의시설 부족 농소동·연지동 등은 도심·산단 연결지점 역할	직주근접 정주환경 및 생활거점 강화

다. 심층 면접·전문가 자문 기반 체류 인구 특성 분석

1) 심층 면접·전문가 자문의 주요 내용

■ 비정기적 체류인구의 정기적(재방문) 및 장기(숙박) 체류 전환 가능성 진단

- “체류 실태 및 불편 요인”으로는 (1) 대중교통 연계 부족 및 주차난 등 낮은 이동 편의성, (2) 가을 성수기 교통 혼잡과 고물가·불친절로 인한 부정적 첫인상, (3) 쌍화차거리 외 특화 먹거리 부족이 지적됨. 전문가들은 이를 ‘관광 편증’과 ‘기초 인프라 저하’로 진단하며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기함

-
- “관광 콘텐츠 계절 편중성”의 경우, 가을 단풍 외 즐길거리 부족이 재방문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임. 해결책으로 (1) 라벤더·물놀이 등 ‘비수기 킬러 콘텐츠’ 개발, (2) 단풍 자원의 체험형 고도화(굿즈, 스탬프투어), (3) 사계절 스토리텔링 콘텐츠(내장산 나무 활용) 보강이 제안됨
 - “재방문·숙박 유도 조건”의 경우, 가족형 숙소 부족과 위생·안전 불만, 상권 신뢰 회복이 시급함. 이에 대한 대안으로 (1) 유휴공간을 활용한 ‘로컬스테이’, (2) 관광지-시내 상권 연계 강화, (3) 체류비 절감 인센티브(쿠폰 등)가 제시됨
 - “타겟 마케팅 및 홍보” 부문의 경우, 청년층은 SNS 감성 마케팅과 포토존을 요구함. 전문가는 이에 더해 스포츠 관광·야간 관광(조명, 야간 텁방) 등 분산형 체류 전략을 통해 1박 이상의 체류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체류 연장 필요조건”의 경우, 육아 편의시설(기저귀 교환대 등) 부족이 가족 단위 체류의 걸림돌임. 이에 가족 친화적 인프라 개선과 연령별 맞춤 콘텐츠(청년 카페, 가족 체험) 개발이 체류 매력 확대를 위한 필수 과제임
 - “특화 도시 브랜딩”의 경우, 정읍만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1) 웰니스·치유(자연, 쌍화차), (2) 레포츠 결합(특산물+캠핑), (3) 인문학 기반(동학, 역사, 유명인물) 브랜딩 방향이 제시됨

■ 정기적 체류인구의 정주 전환 가능성 진단

- 체류활동 및 생활 실태의 경우 (1) 전주·완주 등에서의 장거리 통근(왕복 2~3시간)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2) 퇴근 후 정읍에서 이용 가능한 생활·여가시설이 제한되어 지역적 매력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공통으로 제시됨.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생활권 기반의 취약성’으로 진단하며, 정주 전환을 위해서는 정읍 내부에서 생활·여가 활동이 가능하도록 생활SOC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함
- 정주환경 및 가족 단위 전입 제약 요인으로는 교육·의료·문화·여가 인프라가 현 거주지 대비 경쟁력이 낮아 정주 결정이 어렵다는 점, 특히 자녀 교육·주말 활동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 주요 제약으로 나타남. 전문가들도 공교육 질 제고(명품 중학교·특성화 교육), 의료·응급체계 개선, 가족친화 생활 SOC 확충을 정주 전환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제시함

- 정주 전환 필수조건으로 (1) 지역 고용구조의 질적 개선(IT·전문직 유치), (2) 산업단지 인근 직주근접 리빙타운·공공임대주택 공급, (3) 필수 생활SOC(의료·여가·편의시설) 우선 확충, (4) 생애주기 기반 정주지원 패키지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됨
- 정주 정책 개선 방향의 경우 인터뷰에서 기존 전입지원 정책(정읍愛 주소갖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문가들은 (1) 단기 현금지원 중심 구조를 장기 거주와 연계된 패키지형 구조로 개편하고, (2) 통근자가 많은 공공·교육기관 중심의 정책 홍보 강화, (3) 단순 전입 숫자보다 지속 거주율·서비스 이용률 등을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2) 정책적 시사점

■ 비정기적 체류인구의 정기적(재방문) 및 장기(숙박) 체류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한 첫 방문 만족도 제고) 성수기 교통 혼잡, 고물가, 불친절 등으로 인해 방문객의 첫인상이 부정적으로 형성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관광 혼잡관리 강화, 서비스 표준화, 안심식당·안심숙소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관광 서비스 신뢰도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 (관광-도심-내장산권을 연결하는 이동·접근성 혁신 추진) 대중교통 연계 미흡, 관광지 간 이동 불편, 주차난은 체류시간을 단축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됨. 정읍역-내장산-도심을 연결하는 순환형 셔틀 구축, 거점형 주차장 확충, 실시간 혼잡정보 제공 등 접근성 혁신이 요구됨
- (단풍철 편중 해소를 위한 사계절·체험형 콘텐츠 확충) 가을철 단풍 외에는 명확한 방문 동기가 부족하여 비수기 수요가 급감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 봄·여름·겨울 킬러콘텐츠 개발, 역사·문화 기반 체험프로그램 확대, 야간개장·조명연출 도입 등 사계절 관광 체계를 구축해야 함

-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머무름·숙박 기반 강화) 모텔 중심 숙소, 유아 휴게·수유 공간 부족 등은 가족 단위 체류를 저해하는 주요 제약 요인이 됨. 유휴시설을 활용한 로컬 스테이 공급, 가족형 호텔 유치, 관광지 내 Yes-Kids Zone 조성 등 가족 친화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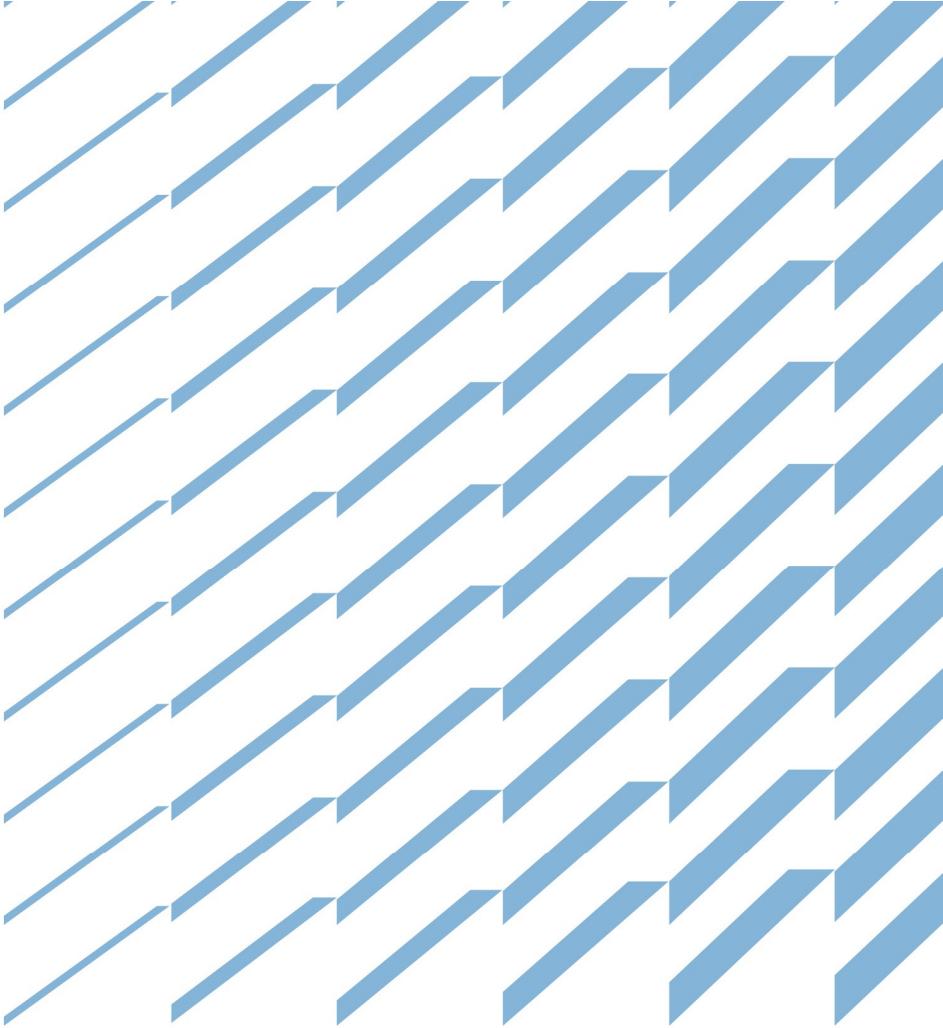
■ 정기적 체류인구의 정주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 (통근부담 완화를 위한 직주근접 생활권 조성과 여가 접근성 개선)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여가·문화시설 부족은 정기적 체류인구의 정주 전환 의향을 약화시키고 있음. 산업단지 배후 직주근접 리빙타운 조성, 지역 내 생활밀착형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통근자 생활권 개선이 필요함
- (교육·의료 중심의 정주환경 경쟁력 강화 필요) 자녀 교육환경 취약, 응급의료 접근성 미비 등은 가족 단위 전입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됨. 24시간 응급의료체계, 명품 중학교 육성, 방과후·주말 활동 지원, 복합문화센터 확충 등 정주환경 전반의 품질을 제고해야 함
- (생애주기별 정착지원체계를 통한 정주 유도 강화) 전입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단기지원 중심인 현 구조는 체류→정주 전환 효과가 제한적임. 청년·신혼·다자녀 대상 맞춤형 정착 패키지, 찾아가는 전입 설명회, 실거주 기간 기반 정주 마일리지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표 3-24] 체류인구 유형별 실태 진단 및 전환 요건에 따른 정책 방향

구분	주요 진단 항목	주요 내용	정책 방향
비정 기적 체류 인구	체류 실태(체류 시 불편 요소)	성수기 교통 혼잡과 고물가·불친절로 인한 부정적 첫인상 형성	방문환경·서비스 품질 혁신을 통한 '첫인상 개선'
		대중교통 연계 미흡 및 주차난으로 인한 이동 피로도 가중	
		기을 단풍 외 놀거리·볼거리 부재	
	정기적(재방문)·장기(숙박) 체류 유도 요건	깨끗하고 쾌적한 '가족 친화형 숙박시설' 및 유아 편의시설 확충	사계절·체험 기반 '머무름 확장' 전략
		비수기 타겟 '사계절 킬러 콘텐츠' 및 체험형 프	

구분	주요 진단 항목	주요 내용	정책 방향
정적 체류 인구	체류 활동 및 생활 실태	로그램(역사·문화) 개발	
		지역상권 서비스 개선 및 신뢰 회복 필요	
	정주 환경에 대한 만족도	장거리 통근(왕복 2~3시간)에 따른 피로 누적	통근부담 완화 및 생활여가 활성화
		퇴근 후 즐길 공간 부재로 지역 내 활동이 '단순 식사·마트'에 국한됨	
	정주 전환 필요 요건	자녀 학령기 교육 환경(특성화·돌봄) 및 응급의료 체계 미비	교육·의료·생활 SOC 중심 정주환경 경쟁력 제고
		인근 도시 대비 생활편의 인프라 열위	
		산업단지 배후 '리빙타운(주거+편의)'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24시간 응급의료, 공공보육, 복합문화센터 등 '안심 정주 기본' 우선 확보	
		통근자 타겟 홍보 강화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패키지	생애주기 맞춤형 '정착 연속지원체계' 구축



제4장

빅데이터 기반 정읍시 정주환경 여건 및 체류인구 특성 연계 분석

1. 체류인구 정주환경 여건 분석
2. 체류인구 특성과 정주환경 여건 연계 분석
3.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빅데이터 기반 정읍시 정주환경 여건 및 체류인구 특성 연계 분석

1. 체류인구 정주환경 여건 분석

가. 분석 개요

- 분석 목적: 정읍시의 실질적인 정주환경을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읍시의 각 세 부지역별 생활인프라 수준을 계량화하여 각 지역별 필요한 인프라를 식별하고자 함
- 활용 데이터

[표 4-1] 빅데이터 기반 정주환경 여건 분석 활용 데이터

데이터명	데이터 시점	데이터 출처
아파트 현황	2024년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연립 및 다세대 주택 현황	2024년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30년 이상 노후주택 분포 현황	2024년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금융기관(영업점/ATM) 현황	2025년	네이버 API 활용 정읍시 소재 금융기관 정보
위생시설(세탁소/목욕탕) 현황	2024년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
미용시설 현황	2024년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
음식점 수 현황	2024년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
대형마트/식료품소매점/로컬편매장 현황	2024년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
편의점 현황	2025년	네이버 API 활용 정읍시 소재 편의점 정보
주차장 현황(주차구획 수)	2024년	공공데이터포털
행정복지센터 현황	2024년	공공데이터포털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현황	2024년	공공데이터포털
119 안전센터 현황	2024년	공공데이터포털
우체국 현황	2024년	공공데이터포털
격자통계(산업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023년	국가데이터처 SGIS 소지역통계
어린이집 현황	2024년	공공데이터포털
학교 현황	2024년	공공데이터포털
학원 현황	2024년	공공데이터포털
병·의원 현황	2024년	건강보험평가심사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약국 현황	2024년	건강보험평가심사원

데이터명	데이터 시점	데이터 출처
노인복지시설 현황	2024년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공공·작은 도서관 현황	2024년	공공데이터포털
지역아동센터 현황	2024년	공공데이터포털
청소년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문화의집/수련관/수련원/유스호스텔) 현황	2024년	공공데이터포털
영화관 현황	2025년	네이버 API 활용 정읍시 소재 영화관 정보
문화기반시설(공연장/박물관/미술관/생활문화센터/문화회관/지방문화원/문화의 집/문학관) 현황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종람
체육시설(체력단련장/체육도장/수영장) 현황	2024년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
오락시설(당구장/게임장(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골프연습장/PC방/노래연습장(유흥주점 제외) 현황	2024년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

- 분석 방법: QGIS 활용 GIS 분석, R 활용 정주환경 지수 산출

- 분석 내용

- 먼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정주환경과 관계된 5가지(주거환경, 산업환경, 교육환경, 의료·복지 환경, 문화·여가 환경) 요소 설정

[표 4-2] 정주환경 지표 설정 기준

요소	지표명	산출 방식	요소	지표명	산출 방식
주거 환경	아파트 현황	아파트 수	교육 환경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가정 포함) 수
	연립 및 다세대 주택 현황	연립 및 다세대 주택 수		학교 현황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수
	30년 이상 노후주택 분포 현황	30년 이상 노후주택 수		학원 현황	학원(학교교과보습학원, 평생 직업교육학원 포함) 수
	생활시설 현황	금융기관, 위생시설, 미용시설, 음식점 수, 대형마트, 식료품소매점, 로컬판매장, 편의점, 주차장 수	의료·복지 환경	병·의원 현황	병·의원(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포함) 수
	행정편의시설 현황	행정기관(읍면동 사무소, 지구대, 파출소, 119안전센터, 우체국) 수		약국 현황	약국 수
산업	총괄 사업체	총괄 사업체 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개인, 재단, 민

요소	지표명	산출 방식	요소	지표명	산출 방식
환경	현황		문화·여가 환경	현황	기법인 포함) 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화의 집, 수련관, 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포함) 수
	총괄 종사자 현황	총괄 종사자 수		아동청소년지원시설 현황	
	제조업체 현황	제조업체 수		문화기반시설 현황	공공·작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문학관, 영화관 수
	제조업체 종사자 현황	제조업체 종사자 수		체육시설 현황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수영장 수
	농업, 임업, 어업체 현황	농업, 임업, 어업체 수		오락시설 현황	당구장, 게임장, 골프연습장, PC방, 노래연습장(단란, 유흥주점 제외) 수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 수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 수			
	서비스업체 현황	서비스업체 수			
	서비스업 종사자 현황	서비스업 종사자 수			

주) 정창호(2015) 연구에서 제시한 정주여건 구성요소 및 산출 방식을 일부 준용하였음

- 두 번째로, 각 읍면동별 정주환경 지수를 'Z-Score' 방식을 활용해 산출하였으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음
- 정주환경 구성요소는 동일한 단위로 측정되더라도 항목별 값의 규모 차이가 큰 경우 단순 합산 시 특정 항목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한 지역의 아파트 수가 1,000 개, 초등학교 수가 2개인 경우 두 항목을 단순히 합산하면 '규모가 큰 항목'이 전체 점수를 지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러한 규모 왜곡 문제 해소를 위해 본 연구는 '표준화(Standardization)' 기법을 적용함. 표준화는 값의 범위가 서로 다른 항목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변환하여, 모든 항목이 종합 점수에 균등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적 절차임
- 신뢰성과 활용성이 검증된 'Z-Score(표준점수)'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각 항목이 전체 평균 대비 얼마나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수치화하여 지역별 상대적 수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임

$$Z_{i,j} = \frac{x_{i,j} - \bar{x}_j}{\sigma_j} \quad (1)$$

$$S_{i,k} = \frac{1}{n_k} \sum_{j \in C_k} Z_{i,j} \quad (2)$$

$$I_i = \frac{1}{K} \sum_{k=1}^K S_{i,k} \quad (3)$$

Z : 항목별 표준화 점수

i : 지역(읍면동)

j : 개별 지표 항목(아파트 수, 병원 수 등)

$x_{i,j}$: 지표값

\bar{x}_i : 지표 평균값

σ_j : 지표 표준편차

k : 정주환경 분야

C_K : 정주환경 분야 K에 속하는 지표 항목들의 집합

n_k : 정주환경 분야 k에 포함된 지표 항목의 개수

K : 정주환경 분야 총 개수

$S_{i,k}$: 정주환경 분야별 평균 점수

I_i : 최종 정주환경 종합지수

※(1) 각 지표별 산출

(2) 각 정주환경 요소별 점수 산출

(3) 최종 종합지수 산출

[그림 4-1] 정주환경 지수 산출 관련 산식 및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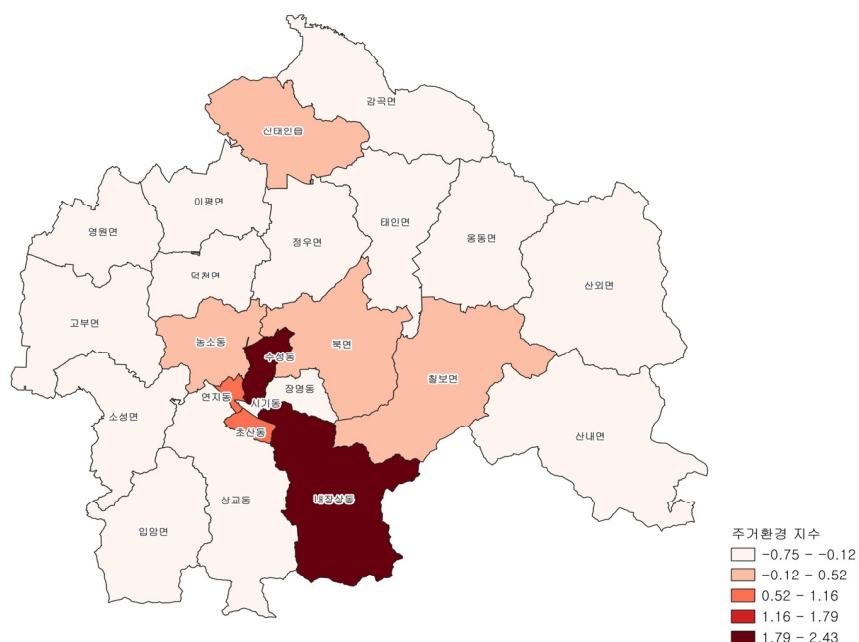
나. 분석 결과

[표 4-3] 정읍시 행정동별 정주환경 분석 결과

행정동명	주거환경	산업환경	교육환경	의료·복지환경	문화·여가환경	정주환경 종합지수
감곡면	-0.45	-0.10	-0.47	-0.40	-0.36	-0.35
고부면	-0.26	-0.39	-0.40	-0.57	-0.16	-0.36
내장상동	2.00	0.90	3.42	1.72	2.62	2.13
농소동	0.08	0.63	0.24	-0.34	-0.55	0.01
덕천면	-0.45	-0.62	-0.47	-0.22	-0.36	-0.42
북면	0.01	1.05	-0.34	-0.14	-0.36	0.04
산내면	-0.45	-0.80	-0.65	-0.43	-0.55	-0.58
산외면	-0.58	-0.71	-0.47	-0.49	-0.55	-0.56
상교동	-0.23	-0.09	-0.02	-0.43	-0.29	-0.21
소성면	-0.45	-0.26	-0.47	-0.53	-0.55	-0.45
수성동	2.43	3.01	1.68	1.50	3.19	2.36
시기동	-0.37	-0.01	-0.72	0.58	-0.25	-0.15
신태안읍	0.42	0.55	0.56	0.70	0.17	0.48
연자동	1.10	0.38	-0.21	1.57	0.64	0.70
영원면	-0.45	-0.55	-0.65	-0.57	-0.36	-0.52
옹동면	-0.45	-0.52	-0.65	-0.55	-0.55	-0.55
이평면	-0.62	-0.61	-0.47	-0.55	-0.55	-0.56
입암면	-0.44	-0.45	-0.28	-0.20	-0.55	-0.39
장명동	-0.75	-0.26	-0.14	-0.45	-0.11	-0.34
정우면	-0.21	-0.44	-0.22	-0.43	-0.52	-0.36
초산동	0.59	-0.27	0.58	0.69	0.58	0.43
칠보면	-0.06	-0.38	0.15	-0.45	-0.49	-0.24
태인면	-0.41	0.29	0.01	-0.01	-0.08	-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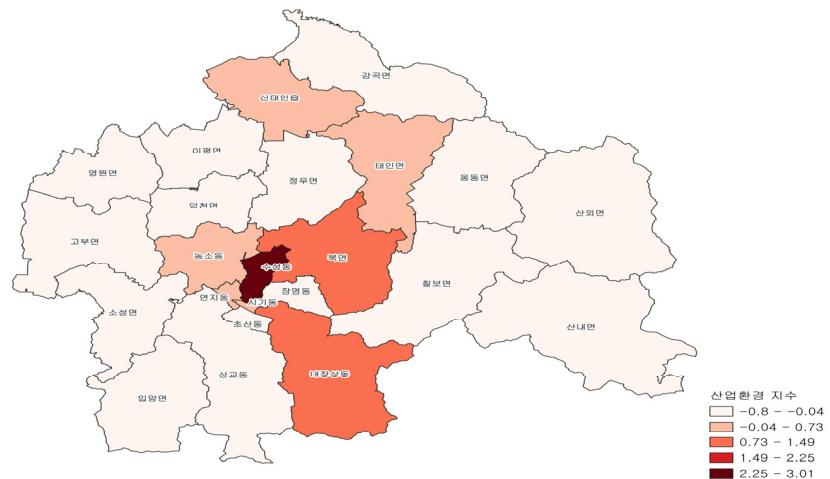
■ 정주환경 요소별 지역별 차이

- 먼저 5가지 정주환경 요소별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첫째, 주거환경의 경우, 수성동이 2.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는 내장상동 2.00, 연지동 1.10, 초산동 0.59, 신태인읍 0.4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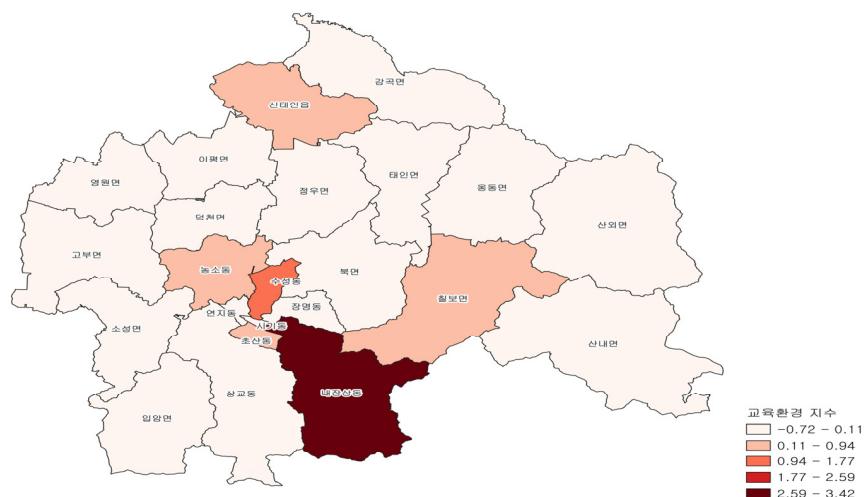
[그림 4-2] 주거환경 자수 지역별 차이

- 둘째, 산업환경의 경우, 수성동이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는 북면 1.05, 내장상동 0.90, 농소동 0.63, 신태인읍 0.5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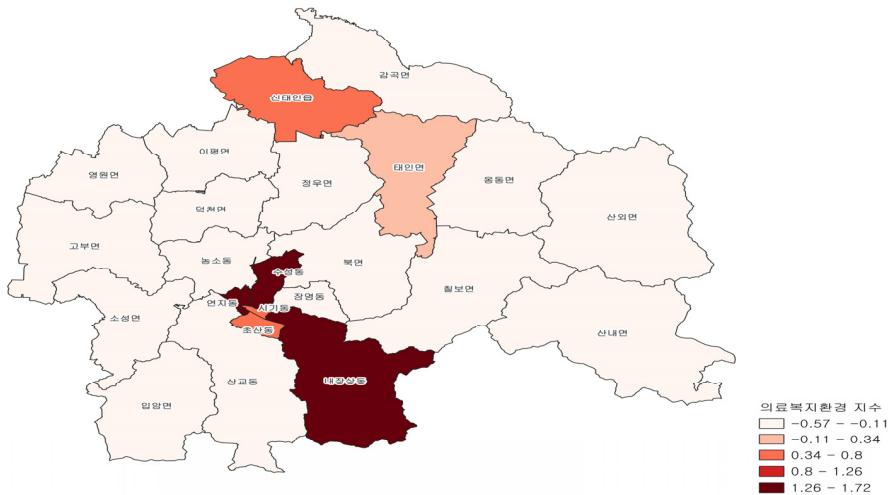
[그림 4-3] 산업환경 지수 지역별 차이

- 셋째, 교육환경의 경우, 내장상동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는 수성동 1.68, 초산동 0.58, 신태인읍 0.56, 농소동 0.2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4] 교육환경 지수 지역별 차이

- 넷째, 의료·복지환경의 경우, 내장상동이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연
지동 1.57, 수성동 1.50, 신태인읍 0.70, 초산동 0.6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5] 의료·복지환경 지수 지역별 차이

- 다섯째, 문화·여가 환경의 경우, 수성동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내장상동 2.62, 연지동 0.64, 초산동 0.58, 신태인읍 0.1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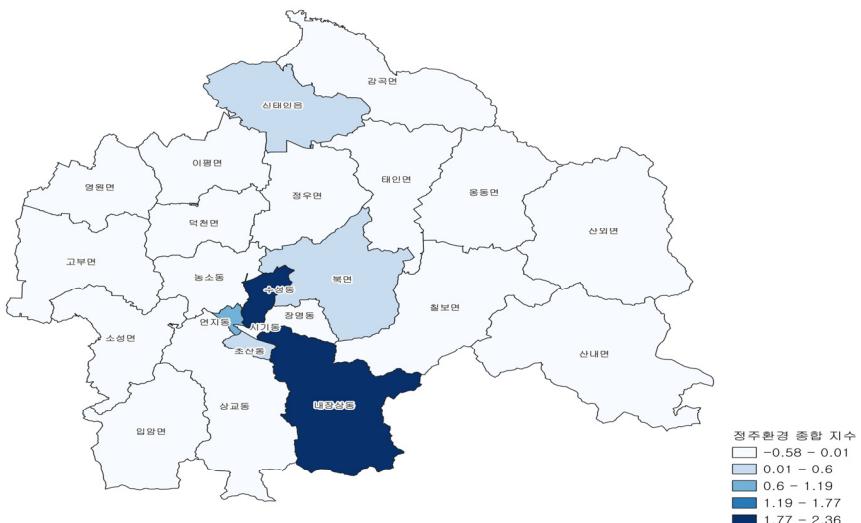
[그림 4-6] 문화·여가 환경 지수 지역별 차이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표 4-4]와 같이 수성동, 내장상동, 북면, 신태인읍, 연지동, 초산동, 농소동 중심으로 정읍시의 정주환경 요소가 잘 갖추어진 것으로 나타남
- 수성동과 내장상동은 대부분의 정주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양호하게 갖추어진 것으로 나타남. 정읍시 도심 중심지인 수성동과 내장상동을 제외하였을 때, 산업환경 지수는 북면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환경은 초산동, 주거환경, 의료·복지환경 및 문화·여가 환경은 연지동이 높게 나타남

[표 4-4] 정주환경 요소별 지수 도출 결과 순위

지수 점수 순위	정주환경 요소				
	주거환경	산업환경	교육환경	의료·복지 환경	문화·여가 환경
1순위	수성동	수성동	내장상동	내장상동	수성동
2순위	내장상동	북면	수성동	연지동	내장상동
3순위	연지동	내장상동	초산동	수성동	연지동
4순위	초산동	농소동	신태인읍	신태인읍	초산동
5순위	신태인읍	신태인읍	농소동	초산동	신태인읍

■ 정주환경 종합지수 수준



[그림 4-7] 정주환경 종합지수 지역별 차이

-
- 다음으로는 5가지 정주환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지수를 산출하였으며 분석 결과,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 첫째, 수성동의 정주환경 종합지수는 2.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러나 다른 환경에 비해 의료·복지환경과 교육환경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의료·복지환경 1.50, 교육환경 1.68 vs 산업환경 3.01)
 - 둘째, 내장상동의 정주환경 종합지수는 2.13으로 2위를 차지하였음. 그러나 다른 환경에 비해 산업환경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산업환경 0.90 vs 주거환경 2.00, 교육환경 3.42)
 - 셋째, 연자동의 정주환경 종합지수는 0.70으로 3위를 차지하였음. 그러나 다른 환경에 비해 교육환경은 부(-)의 값을 보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교육환경 -0.21 vs 의료·복지환경 1.57, 주거환경 1.10)
 - 넷째, 신태인읍의 정주환경 종합지수는 0.48으로 4위를 차지하였음. 그러나 다른 환경에 비해 문화·여가 환경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문화·여가환경 0.17 vs 의료·복지환경 0.70, 교육환경 0.56)
 - 다섯째, 초산동의 정주환경은 0.43으로 5위를 차지하였음. 그러나 다른 환경에 비해 산업환경은 부(-)의 값을 보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산업환경 -0.27 vs 의료·복지환경 0.69, 주거환경 0.59)
 - 그 외 북면은 0.04, 농소동은 0.01 이였으며, 나머지 면 지역의 정주환경 종합지수는 부(-)의 값으로 정주환경 수준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수성동(2.36)과 내장상동(2.13)은 신태인읍(0.48)·초산동(0.43) 대비 5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도시 중심부 집중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남. 더불어 상위권 동 지역 내부에서도 각 정주환경 요소 간 격차가 공존하는 구조임

2. 체류인구 특성과 정주환경 여건 연계 분석

가.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

- 제3장 2절의 ‘빅데이터 기반 정기적 체류인구의 특성 분석’, 제3장 3절의 ‘심층면접·전문가 자문 기반 체류인구 특성 분석’ 결과를 제4장 1절의 ‘체류인구 정주환경 여건 분석’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해 정읍시 체류인구의 실제 행태와 정주환경 수준간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진단하고자 하였음
 - 비정기적 체류인구(관광객)와 정기적 체류인구(통근·통학, 직장인구)의 경험 실태 및 데이터를 통한 정량적 특성과 정주환경 지수(주거, 산업, 교육, 의료·복지, 문화·여가*)와 연계하여 해석함으로써, 정주유도 우선 권역과 생활환경 보완 권역 등 지역별 맞춤형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비정기적 체류인구(관광인구)의 정기적 체류화를 위해 정읍시 정주환경 여건 중 특히 문화·여가환경을 연계한 방향 제시

2) 활용 데이터

- 비정기적 체류인구 및 정기적 체류인구 심층면접조사 및 전문가 자문조사 결과 자료
- 제3장 2절의 정기적 체류인구 인구통계학 특성, 소득수준, 소비력 분석 결과
- 제4장 1절의 정읍시 각 지역별 5가지 정주환경 지수화 결과

3) 분석 방법

- 정기적 체류인구의 연령별·지역별 분포 및 정주환경 지수를 중첩하여 정량적 비교
- 심층면접·전문가 자문에서 도출된 주요 키워드를 정주환경 요소별로 재분류하여, 정주환경 지표와 체류인구 체감 수준 간의 괴리 및 보완 필요 사항을 도출

나. 체류인구와 정주환경 연계 진단 및 대응 방향

1) 비정기적 체류인구의 지속 유입을 위한 정주환경 연계 방향

- 비정기적 체류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보유한 문화·여가환경과 농촌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전략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4장 1절 정주환경 분석 결과, 수성동과 내장상동은 문화·여가 환경 지수가 각각 3.19, 2.62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정읍시 문화·관광 인프라가 집중된 권역임
 - 그러나 심층면접 결과, 이들 권역에서도 기본 편의시설 부족(주차공간, 수유실, 육아휴게실), 숙박시설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 지수 상으로는 우수하지만 체감 편의성이 낮은 이중 구조가 확인됨
- 이에 정읍시를 도심권과 농촌권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의 관광자원 특성과 정주 환경 인프라 수준을 연계한 비정기적 체류인구 유입 활성화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도심권 관광 활성화 권역

- 대표 지역: 수성동, 내장상동, 연지동과 같은 도심 복합 생활권
- 체류인구 특성: 주로 내장산 탐방(특히, 가을철)을 목적으로 관광객이 집중되는 권역임. 당일 관광 후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단기 경유형 체류 패턴이 뚜렷함
- 정주 환경: 타 지역 대비 인프라의 총량은 풍부하나, 세부적인 편의시설이 결여됨. 심층 면접조사에서 관광객 및 가족단위 방문객이 체감하는 편의시설·숙박시설, 서비스 품질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됨. 즉, ‘보는 관광’ 인프라는 충분하나 ‘머무는 관광’을 위한 수용 태세가 미흡함
- 대응 방향: 관광 편의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나 질적 고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공영주차장, 관광안내시설·편의시설 등을 통해 관광 접근성과 체류의 편의성을 개선하여야 함. 또한, 비정기적 체류인구의 지속 유입을 위해 도심형 테마 프로그램, 계절별 문화 축제와 같은 사계절 관광체계 구축이 필요함

■ 면 지역 생활 체험형 권역

- 대표 지역: 칠보면, 산내면 등 농촌·산간 지역
- 체류인구 특성: 칠보산, 산내면 섬진강 수변공원, 구절초 지방정원 등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관광객이 유입되는 구조임
- 정주 환경: 상업적 편의시설을 부족하나 오히려 고유한 농촌 풍경이 강점이 될 수 있음. 전문가 자문 결과, 단순 자연·농촌 체험만으로는 지속적인 유입 한계가 있으며, 일과 휴식이 결합된 공간이 부재하다는 점이 지적됨
- 대응 방향: 단순 농사 체험이 아닌 치유농업, 숲 트레킹, 촌캉스 콘텐츠 개발, 빙집 및 폐교를 활용한 워케이션 센터, 공유 오피스·공유 주방 등 생활형 커뮤니티 공간 확충을 통해 장기체류를 유도해야 함

[표 4-5] 비정기적 체류인구의 정기적 체류화를 위한 정주 환경 연계 방향 요약

권역명	사례 지역	체류 인구 특성	정주환경 여건 및 문제점	연계 대응 방향
도심권 관광 활성화 권역	수성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인구 유입이 가장 활발한 정읍 시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 문화·여가시설 등 인프라 총량 풍부 · 관광객을 위한 숙박·편의시설을 부족한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편의 인프라 확충 및 사계절 테마 관광 콘텐츠 구축
	내장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울철 내장산 탐방객 집중 · 당일 관광 후 타 지역 이동하는 단기 경유형 패턴 뚜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 문화·여가시설 등 인프라 총량 풍부 · 관광객을 위한 숙박·편의시설을 부족한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편의 인프라 및 고품질 숙박시설 확충 ·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테마 관광 콘텐츠 구축
	연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성동과 내장산동에 비해 인구 유입은 적은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수준의 생활편의, 문화시설 보유하고 있어 관광 수용력이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문화원 거점화 및 활용을 통한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면 지역 생활 체험형 권역	칠보면, 산내면 등 농촌· 산간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보산, 섬진강 수변공원, 구절초 지방정원으로 인한 관광객 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 편의시설 부족 ·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농촌 풍경 경쟁력 보유 · 단순 자연·농촌 체험만으로는 지속적 인구 유입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농업, 숲 트레킹, 촌캉스 콘텐츠 개발 · 빙집·폐교 활용 워케이션 센터, 공유 오피스·주방 등 장기 체류 커뮤니티 공간 구축

2) 정기적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정주환경 연계 방향

- 정기적 체류인구 집중도와 정주환경 수준에 따라 정읍시 생활권 공간을 아래와 같은 4개의 권역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 각 권역에 해당되는 지역과 해당 지역에 주로 체류하는 연령층의 특성, 그리고 정주환경 구성 요소의 강·약점 및 보완 필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정주 유도 우선 권역

- 대표 지역: 수성동, 내장상동 등 도심 생활거점 지역
- 체류인구 특성: 30~50대 중·고소득 직장인이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곳으로, 체류인구 규모가 가장 많은 핵심 생활권임
- 정주 환경: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량적 지표상으로는 정읍시 내 최고 수준이나, 심층 면접조사 결과 고품질의 의료시설 부재, 가족 단위 체류형 여가 공간 부족하다는 의견이 도출됨. 즉, 외지인이 만족할 만한 고품질의 시설은 부족한 상태임
- 대응 방향: 단순 인프라 확장을 넘어 가족 친화형 정주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가족 친화형 인프라 확장을 통해 심리적 정주 장벽을 해소해야 함

■ 생활환경 보완 권역

- 대표 지역: 북면, 신태인읍 등 산업단지·농공단지 근교 지역
- 체류인구 특성: 20~50대 청·장년층 근로자가 유입되는 산업 거점 지역이나, 직장과 주거지의 불일치(직주분리)로 인해 퇴근 후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유출형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남
- 정주 환경: 산업단지가 있어 일자리는 풍부하나, 퇴근 후 식사나 운동을 즐길 배후 상권 및 문화시설이 전무함. 즉, 직장은 있지만 삶의 터전은 부족한 상황으로, 정주환경 수준이 체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유형임

-
- 대응 방향: 해당 지역들은 직장 부근에서 삶의 터 마련이 가능하도록 직주락 일체형 산단 배후지 조성이 필요함. 산업단지 인근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피트니스, 생활 SOC 등을 구축하여 퇴근 후에도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함

■ 체류 유인 강화 권역

- 대표 지역: 연지동, 초산동, 시기동과 같은 도심 인접 지역
- 체류인구 특성: 해당 지역들은 KTX역 소재(연지동) 및 정읍시 중심 시가지에 인접하여 체류인구 유입 규모는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음
- 정주 환경: 세 지역 모두 도심과의 근접성으로 교통 접근성 및 생활편의 인프라의 양적 수준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음. 그러나 연지동은 교육시설의 접근성이 낮고, 초산동은 산업환경이 약함. 시기동은 인구 유입은 활발한 편이나 전반적인 정주 환경 모두 상당히 낮은 편임. 즉, 이들 지역은 도심권 인접 지역으로서 공간적 이점은 존재하나, 정주환경 인프라의 불균형으로 정주 매력도가 낮게 평가되는 생활권임
- 대응 방향: 해당 지역들은 권역별로 부족한 정주 환경을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취약기능 맞춤형 보완 전략이 필요함. 예를 들어, 연지동은 교육여건 강화, 초산동은 산업 기반 강화, 시기동은 특정 정주환경의 보완을 넘어 도시재생을 통한 기초 생활 인프라의 전반적 재정비가 필요함

■ 기초 생활 보장 권역

- 대표 지역: 산내면, 산외면 등 농촌·산간 지역
- 체류인구 특성: 농촌 외곽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역임. 자연마을 위주의 정주체계이며 대부분 지역 토박이 고령층이 거주함
- 정주 환경: 주거, 의료·복지, 교육과 같은 필수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여 생활편의 수준이 낮음. 지리적으로도 시내 중심지와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도 원활하지 않아 생활 접근성이 떨어짐. 즉, 기본적인 주거환경은 농촌 마을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나, 경제활동 기회나 서비스 공급이 제한적인 전형적인 저밀도 농촌지역임

- 대응 방향: 이들 지역은 기초생활권 유지와 주민 삶의 질 개선엔 초점을 두어 의료·교통 등 필수 서비스를 확보하여야 함

[표 4-6] 정기적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정주환경 연계 방향 요약

권역 명	해당 지역	체류 인구 특성	정주환경 여건 및 문제점	연계 대응 방향
정주 유도 우선 권역	수성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유입이 가장 활발한 지역 청년층(20~30대)·중장년층(40~50대) 인구 유입 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량적 지표는 1위 고품질 의료 및 가족 체류형 여가 공간 부족 외지인이 만족할 만한 High-End 시설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형 고밀 정주거점으로서 청년·중장년층을 야우를 수 있는 복합 정주전략 필요
	내장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유입이 가장 활발한 지역 청년층(20~30대)·중장년층(40~50대) 인구 유입 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량적 지표는 2위 고품질 의료 및 가족 체류형 여가 공간 부족 외지인이 만족할 만한 High-End 시설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도심 정주거점으로서 가족 친화형* 생활인프라(보육·교육, 복지시설) 고도화 *교육환경 수준이 가장 높은 점 활용 관광·문화 복합공간 조성을 통한 정주 매력도 강화
생활 환경 강화 권역	북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층(20~30대)·중장년층(40~50대) 인구 유입 활발 (인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종사자) 직주분리로 인한 퇴근 후 타 지역 유출 뚜렷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는 풍부하나 배후 상권·문화 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청년 특화, 1인 가구) 및 생활 SOC 조성
	신태 안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40대 근로자 유입 활발 (인근 농공단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인프라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으나, 타 지역 대비 질적 수준은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공단지 인근 공공임대·분양형 주거단지 조성, 생활 복합형 문화·체육시설 확충
체류 유인 강화 권역	연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세권 중심 통근·통학 인구 KTX역으로 인한 높은 이동성 보유 20~40대 근로자 유입 규모 일정수준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상권 접근성은 우수 자녀 교육·보육 시설은 접근성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근·통학 부모를 위한 보육 거점 조성 학군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한 청년·가족층 정착 기반 강화
	초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등 주거지 밀집 인근 직장 연계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호한 주거지에 비해 인근 연계 산업 기반이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지식산업센터 등 도시형 일자리 확충 주거와 일자리가 결합된 직주근접 생활권 조성
	사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40대 근로자 유입 규모 일정수준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복지 환경을 제외한 인프라 수준이 열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소규모 SOC 구축을 통한 생활 품질 개선형 정비

권역명	해당 지역	체류 인구 특성	정주환경 여건 및 문제점	연계 대응 방향
기초 생활 보장 권역	신내면 신오면 등 농촌 산간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인구 유입 저조 (농촌 외곽부 위치)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심화된 전형적인 농촌·산간 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의료·교육 등 필수 생활 인프라 절대 부족 대중교통 불편으로 생활권 접근성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서비스(의료·교통) 확보 소멸 위기 지역의 최소한의 생활안전망 구축

3. 요약 및 시사점

가. 체류인구 정주환경 여건 분석

1) 정주환경 여건 분석의 주요 결과

- 주거·산업·교육·의료·복지·문화·여가 5개 요소를 종합한 결과, 수성동(2.36)과 내장상동(2.13)이 정읍시 내 정주환경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을 제외하면 연지동(0.70), 신태인읍(0.48), 초산동(0.43), 북면(0.04), 농소동(0.01)만 소폭 양(+)의 지수를 기록하고 다수 면 지역은 음(-)의 값을 보여, 정주 인프라의 도시 중심부 집중과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 수성동은 산업환경(3.01)이 두드러지는 반면 교육·의료·복지환경(1.68, 1.50)은 상대적으로 낮아 산업 중심 구조에 비해 삶의 질 인프라가 부족하며, 내장상동은 교육(3.42)·주거(2.00)·문화·여가(2.62)는 매우 우수하나 산업환경(0.90)은 약한 편으로 일자리·산업기반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됨
- 연지동은 의료·복지(1.57)와 주거(1.10)는 양호하지만, 교육환경이 -0.21로 낮아 교육 인프라가 취약하고, 초산동은 주거(0.59)와 의료·복지(0.69)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나 산업환경 -0.27로 지역 내 일자리·산업 기반이 부족한 특성을 보임
- 종합하면 정읍시 정주환경은 수성동·내장상동 등 도심에 인프라가 집중되어 다수 면 지역과 격차가 크고, 상위권 동 지역 내부에서도 산업·교육·복지·문화·여가 간 불균형이 공존하는 구조임

2) 정책적 시사점

- 수성동·내장상동 등 도심에 집중된 정주 인프라와 다수 면 지역의 종합지수 부(-)의 값을 감안할 때, 생활SOC·교통·의료·복지 등 기본 정주여건이 취약한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초 인프라 확충 및 삶의 질 개선 사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수성동(교육·의료·복지환경 취약), 내장상동(산업환경 취약), 연지동(교육환경 취약), 초산동(산업환경 취약) 등 상위권 지역은 요소별 강·약점이 뚜렷하므로, 교육 인프라 보강, 산업·일자리 기반 확충, 의료·복지 서비스 고도화 등 지역별 취약 부문 맞춤형 보완 전략을 통해 내부 불균형을 완화해야 함
- 종합하면, 정읍시는 도심-면 지역 간 정주격차 해소와 상위권 지역의 기능별 불균형 개선을 동시에 목표로 설정하고, 체류인구의 정주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주환경 투자 우선순위와 공간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체류인구 특성과 정주환경 여건 연계 분석

1) 체류인구 특성과 정주환경 여건 연계 분석의 주요 결과

■ 비정기적 체류인구의 정기적 체류화를 위한 정주환경 연계 방향

- (도심권 관광 활성화 권역 (수성동·내장상동·연지동)) 문화·여가 인프라 총량은 풍부하나 주차장·숙박 등 세부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내장산 탐방 후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단기 경유형 체류 패턴이 지배적이며, 단순 관람 중심 구조로 인해 체류형·며무는 관광 기반은 미흡함
- 공영주차장, 안내시설 등 관광 편의 인프라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체류 편의성을 개선하고, 도심형 테마 프로그램과 계절별 축제를 도입하여 사계절 관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방문과 체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면 지역 생활 체험형 권역 (칠보면·산내면 등)) 상업·편의시설은 부족, 칠보산, 구절초 지정원 등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단순 농촌·자연 체험만으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 한계 존재

-
- 단순 농촌 체험을 넘어 치유농업, 숲 트레킹, 촌캉스 등 장기 체류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빈집·폐교를 활용한 워케이션 센터 및 공유 오피스·공유 주방 등 생활형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여 장기체류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함

■ 정기적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정주환경 연계 방향

- (정주 유도 우선 권역 (수성동·내장상동)) 30~50대 고소득 직장인이 집중된 핵심 생활권으로 정주 여건은 양호하나, 외지인이 만족할 만한 고품질 의료시설과 가족 체류형 여가 공간이 부족하여 정주 매력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음
- 단순 인프라 확충을 넘어 가족 친화형 정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차별화된 고품질 의료·여가 인프라를 확충하여 외지인의 심리적 정주 장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주 유도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생활환경 보완 권역 (북면·신태인읍)) 산업단지 입지로 일자리는 풍부하나, 퇴근 후 이용 가능한 배후 상권과 문화시설이 미비하여,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고 여가·소비 활동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뚜렷함
- 직장 인근에서 주거와 여가를 함께 영위할 수 있는 직주락 일체형 산단 배후지를 조성하고, 산단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피트니스 등 생활 SOC 확충을 통해 근로자의 정주 구조로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체류 유인 강화 권역 (연지동·초산동·시기동)) 도심 접근성은 양호하나, 연지동은 교육 인프라, 초산동은 산업·일자리 기반, 시기동은 전반적 정주 인프라가 각각 취약하여 종합적인 정주 매력도가 낮게 평가됨
- 권역별 취약 기능을 집중 보완하는 맞춤형 전략이 요구되며, 연지동은 교육여건 강화, 초산동은 도시형 일자리 등 산업기반 확충, 시기동은 도시재생을 통한 기초 생활 인프라 전반의 정비가 필요함
- (기초 생활 보장 권역 (산내면·산외면)) 고령층 비중이 높은 저밀도 농촌지역으로, 주거·의료·교통 등 필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생활 접근성이 매우 낮은 소멸 위험 지역의 특성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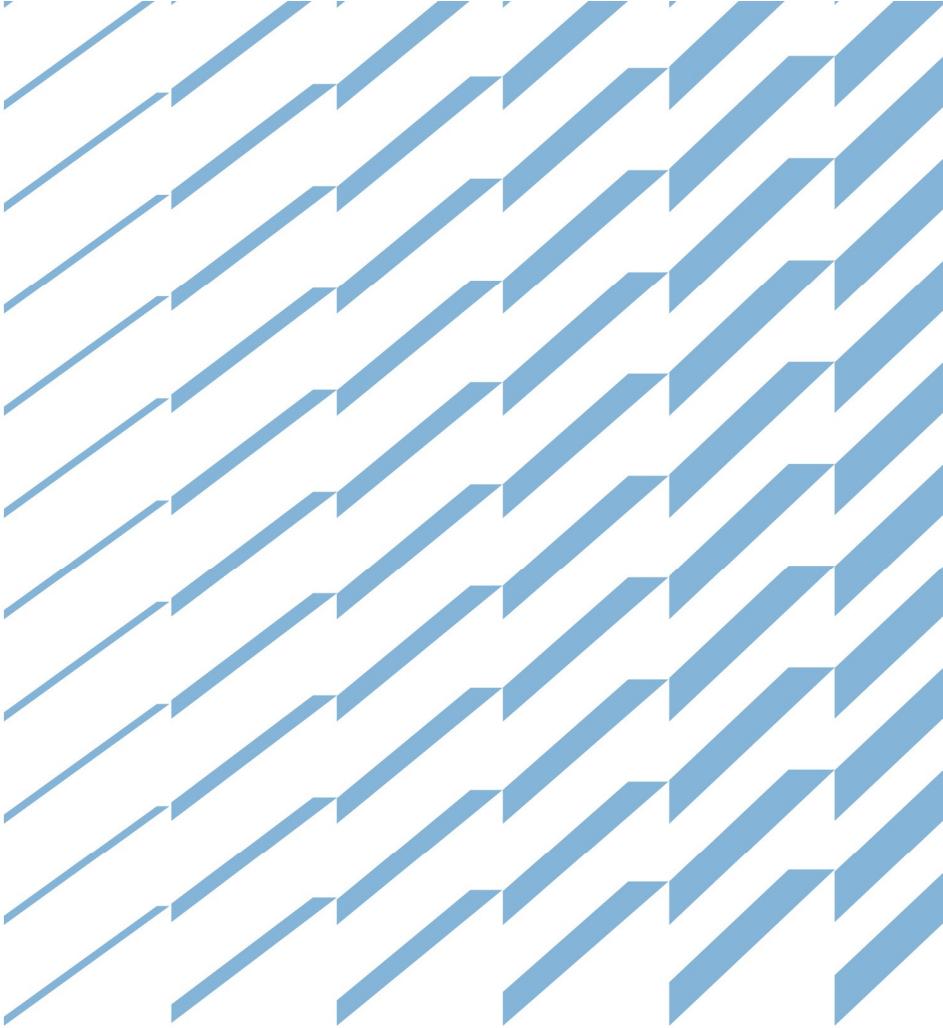
-
- 적극적인 인구 유입보다는 기초생활권 유지와 기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함

2) 정책적 시사점

- 분석 결과, 정읍시 체류인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 유입 유도를 위해 ‘정주환경의 질적 고도화’, ‘체류형 관광·생활 거점 구축’, ‘권역별 맞춤형 기능 보완’ 등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 (데이터와 체감도 간 괴리 해소를 위한 정주환경 질적 고도화 필요) (1)(도심권 정주 인프라의 질적 제고) 수성동과 내장상동은 정량적 지표상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체류인구의 체감 만족도는 낮은 이중 구조를 보임. 이에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외지인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고품질 시설을 확충하여 심리적 정주 장벽을 해소해야 함
- (비정기적 체류인구의 유입 지속성을 위한 ‘머무는 관광·생활 거점’ 구축) (2)(도심 및 농촌의 자원 특성을 반영한 HW·SW 연계) 도심권(관광 활성화 권역)은 부족한 관광객 수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숙박시설 등 편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계절 테마 축제를 도입해야 하며, 농촌권(생활체험형 권역)은 단순 체험을 넘어 유휴 자원을 활용한 라이프스타일 결합형 콘텐츠 개발을 통해 장기체류를 유도해야 함
- (생활권별 기능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권역별 맞춤형 기능 보완) (3)(산업 거점 및 취약 지역 특성을 고려한 취약 요소 선별적 지원) 산단 권역(북면·신태인읍)에는 주거·문화·복합 조성을 통해 직주락 일체형 구조로 전환하고, 도심 인접 지역(연지동·초산동·시기동)은 교육·산업 등 각 지역의 취약 요소를 보완하며, 소멸 위기 농촌지역(산내면·산외면)은 의료·교통 등 필수 서비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초 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표 4-7] 체류인구 특성과 정주환경 여건 연계 분석 기반 정책 방향

전략 구분	해당 권역	추진 방향	중점 추진 과제
정주환경 질적 고도화	정주 유도 우선 권역 (수성동·내장상동)	양적 충족을 넘어선 체감 품질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 전문 의료진 및 고품질 의료 서비스 확충 (여가) 가족친화형(키즈·가족단위)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주거) 중장년·고소득층 수요 대응 High End 주거 서비스
머무는 생활거점 구축	도심권 관광 활성화 권역 (수성동·내장상동) 면 지역 생활 체험형 권역 (칠보면·산내면 등)	경유형 관광→ 장기체류형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 사계절 테마 축제 및 체류 편의시설(주차·숙박) 개선 (농촌) 빙집·폐교 활용 워케이션 및 촌캉스 거점 조성, 힐링 프로그램 운영
권역별 맞춤형 기능 보완	생활환경 보완 권역 (북면·신태인읍) 체류 유인 강화 권역 (연지동·초산동·시기동) 기초 생활 보장 권역 (산내면·산외면 등)	지역별 취약 요소 선별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단) 직주락 일체형 배후 주거·문화 단지 조성 (구도심) 지역 특성별(교육·산업) 취약 기능 선별적 보강 (소멸 위기) 필수 의료·교통 서비스 확충 (기초 생활 보장)



제5장

정읍시 체류인구 정주화 인구정책 방향

1. 정읍시 체류인구 정주화 인구정책 기본 방향
2. 정읍시 체류인구 정주화 인구정책의 세부 추진 과제



제5장 정읍시 체류인구 정주화 인구정책 방향

1. 정읍시 체류인구 정주화 인구정책 기본 방향

가. 방향 설정

■ (정책 목표)

- 단순 거주 인구 중심에서 생활인구 중심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일회성 비정기적 체류인구를 정기적 체류인구로 나아가 이들을 정주인구로 전환하는 단계적 인구 유입 선순환 체계 구축 마련을 이루고자 함

■ (정책 대상)

- 1차 대상(비정기적 체류인구): 단순 일회성 여가, 휴식, 관광 목적의 방문객 등
- 2차 대상(정기적 체류인구): 정기적 통근·통학인구, 주말 거주자(5도 2촌), 장기 여행자, 농촌유학생 등

■ (단계 전략) 유입(체류)-전환(관계)-안착(정주)의 단계적 전략 추진

- 기존 인구정책은 단순 관광객 유치(방문객 증대)와 인구 늘리기(전입)으로 이분화되어 있어, 방문 경험이 실제 이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부족한 실정임. 그러나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방문’을 ‘정주’의 전 단계이자 잠재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접근이 필요함
- 이에 일회성 방문을 정기적 방문으로 유도하는 체류 단계와 지역과의 관계를 깊게 하여 실제 거주로 이어지는 정주 단계를 연결하여, 유입(비정기적 체류)-전환(정기적 체류)-안착(정주)의 단계별 맞춤 전략을 추진함

나. 비전과 목표

■ 비전

- 정읍시 체류인구 정주화 인구정책 비전의 경우, 일회성 소비에 그치는 방문이 아닌, 체류 경험을 매개로 사람과 도시가 연결되며, 그 관계가 생활로 스며들어 정착으로 이어지는 ‘정읍 라이프 전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있음
- 이를 위해 정읍시는 관광 중심의 단기 방문뿐만이 아니라, 통근·통학, 주말 거주, 워케이션 등 다양한 생활인구의 움직임을 도시의 잠재 자원으로 전환하고, 체류 단계에서 머무를 이유(매력·편의)를 만들고, 전환 단계에서 관계와 소속감(연결)을 강화하며, 안착 단계에서 정주 장벽(주거·교육·생활정보·공공 서비스)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정읍시 인구정책 비전을 “스쳐가는 방문에서, 스며드는 생활로: 정읍 라이프 이음”으로 설정함

■ 목표

- 단순 방문을 반복 체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류 편의·콘텐츠·이동 여건 등을 개선하여 (1) 체류시간 연장 및 재방문 기반을 강화
- 체류 과정에서 형성된 경험과 관계가 실제 전입으로 이어지도록, 정보·주거·일자리·생활 서비스 등 (2) 정주 전환 장벽 완화를 통한 전입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다. 전략

- 정읍시 비정기적 체류인구를 정기적 체류인구로 전환하고 이들을 향후 정주인구로의 단계적 전환을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1) 체류시간 연장, (2) 도시 매력도 증대, (3) 지역 애착도 형성, (4) 정주 탐색 기반 마련, (5) 맞춤형 정주 인프라 확충, (6) 생활 공동체 기반 형성이라는 6가지의 전략을 설정함

(1) 체류시간 연장

- 비정기적 체류인구를 정기적 체류인구로 전환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지역 체류시간의 연장이라 볼 수 있음. 단기 관광객이 지역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은 단순한 방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의 접점과 상호작용을 확대하는 출발점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재방문과 정서적 유대 형성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됨
- 구체적으로, 체류시간 증대 시 숙박, 식사, 쇼핑, 문화·여가 활동 등 지역 내 소비가 다각적으로 확대되고, 방문객은 단순한 구경을 넘어 지역의 일상과 생태를 체험하게 됨. 이는 외부 체류인이 정읍시를 관광지 이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궁극적으로 ‘살아보고 싶은 도시’, ‘재방문하고 싶은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동기부여를 마련함
- 정읍시 비정기적 체류인구 특성 분석 결과, 주요 방문객은 내장산을 가을철에 짧게 둘러본 후 이동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이는 관광 콘텐츠 부족, 숙박시설 한계, 주차·편의시설 미비 등 지역 내 체류 기반 인프라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 이런 정읍시 체류 환경의 제약은 방문객이 지역에 오래 머무를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지역 내 소비 유출, 방문객 만족도 감소, 재방문 의사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요 관광지 및 도심 인근 주차장 확대,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숙박 인프라 확충,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쉼터·수유실 등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 등이 필요함. 아울러 단순 자연 관광 방문(내장산, 구절초 지방 정원)에서 탈피하고 야간관광, 문화 공연, 로컬 야시장 등 야간 체류형 콘텐츠를 보완하여 ‘숙박해야 하는 이유’를 마련해야 함

(2) 도시 매력도 증대

- 도시 매력도는 비정기적 체류인구를 정기적으로 유입하기 위한 주된 요소임. 방문객이 단순 관광 목적으로 지역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주는 감성적·문화적·환경적 분위기에 매력을 느끼고 ‘또 오고 싶은 곳’으로 인식하게 될 때 체류는 반복되며 정기화됨

-
- 특히, 정기적 방문으로의 연결은 방문객의 주관된 도시 경험에 크게 의존하며, 단발성 흥미 요소로는 관계 지속을 이끌기 어렵기에 지속적이고 일관된 도시 이미지와는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이 요구됨
 - 정읍시는 가을 단풍 관광이라는 강점이 있으나, 봄·여름·겨울에는 뚜렷한 방문 유인 요소가 거의 부재하며 방문 수요가 가을에만 집중·편중되는 계절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청년층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방문객 전반이 정읍시를 가을 철 관광지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니즈와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지역적 매력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한계로 작용함
 - 따라서 사계절 로컬 브랜딩 전략이 시급히 요구되며, 단순한 계절 이벤트 나열식이 아닌 정읍시의 정체성과 연계된 통합적 기획을 통해 사계절 지역 브랜드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 아울러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를 포함하여 디지털 기반 정보 탐색에 익숙한 방문객 층을 겨냥한 감성형 온라인 홍보 전략과 이를 통한 지역 이미지 구축이 필요함. 이에 SNS, 유튜브, 솟폼 영상 등 다양한 채널에 정읍시 지역 일상을 ‘경험 가능한 매력’으로 전환하여 ‘방문하고 싶은 도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즉, 도시 매력도 제고는 처음 방문한 외지인이 도시/지역 자체의 라이프스타일에 호감을 갖고 다시 찾게 되는 심리적 장벽을 완화시키며, 반복방문으로 이어지는 인식 전환과 방문의 정기화(재방문) 기반을 마련하는 결정적 역할을 함

(3) 지역 애착도 형성

- 비정기적 체류인구가 지역에 반복 방문 및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단순 물리적 체류를 넘어서는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어야 함. 도시/지역 매력이나 편의성만으로는 관계 유지가 어려우며, 방문객 스스로 해당 지역을 제3자의 공간이 아닌 ‘나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정기화가 가능함
- 정읍시 체류인구 특성 분석 결과, 1회성 방문 비중이 높고, 재방문 주기가 긴 경향이 나타나 방문객과 지역 간 지속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로 나타남. 이는 방문 이후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물리적 인프라 이상의 관계 기반 체류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일회성 방문에서 벗어나 정기적 체류인구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방문객이 지역에 소속감을 느끼고 역할을 부여받는 경험이 중요함. 이에 정읍시 방문 마일리지, 관계 인구 시민증 등 지속 방문을 인증하고 자긍심을 부여하는 제도 기반 참여 플랫폼 마련 등이 필요함
- 단순 기념품 제공·정보 제공을 넘어 정기적 방문자만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여 정읍시의 일부 구성원이라는 심리적 소속감을 유도해야 하며, 방문객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도시와의 정서적 연결과 성취 경험을 축적시킬 필요가 있음
- 즉, 심리·정서적 애착과 실질적 관계가 함께 형성될 시, 비정기적 체류 인구가 재방문에서 정기적 방문으로 이어지는 인구 구조 전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정주 의향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관계망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

(4) 정주 탐색 기반 마련

- 정기적 체류인구가 정주 인구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거 환경과 지역 지원 서비스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탐색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정주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심리적 진입 장벽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 특히, 정읍시에 유입되는 대다수 정기적 체류인구 높은 소비·구매력과 은퇴 준비 니즈를 갖춘 4050대 중장년층으로, 이들은 단순한 시골살이가 아닌 도시의 편리함과 전원 생활 로망을 동시에 추구하는 니즈가 존재함. 그러나 현재 정주 여건 탐색 구조는 이러한 중장년층의 복합적인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실제 이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자산 가치 보전이나 구체적인 생활 편의성 검증에는 한계가 존재함
- 그러므로 이주를 망설이는 이들에게 수성동·내장상동의 편리한 도심 생활과 내장산 인근의 여유로운 전원 라이프를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단순 거주 체험을 넘어 은퇴준비 시점의 니즈를 고려한 자산 관리 측면의

전문적 컨설팅과 정착 로드맵을 제시하여, 이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주 적합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실질적이며 단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맞춤형 정주 인프라 확충

- 정기적 체류인구가 지속적으로 정읍시를 방문하고 있음에도 지역 정주 인구 및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프라 부족과 지역 간 정주 환경 격차에서 비롯됨. 특히, 정읍시로 유입되는 정기적 체류 인구는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고 문화·의료·교육 인프라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지역 내 생활 기반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정주를 보류하는 경향이 높았음
- 정읍시 내장상동과 수성동 등은 기본적인 정주 기반이 양호하나, 연지동·초산동·시기동은 각각 교육·산업·기초 인프라가 취약하고, 산외면·산내면 등 농촌지역은 필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장기 거주 매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권역별 특성과 유입 대상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정주 기반 조성이 필요한 상황임
- 정읍시 권역별로 먼저, 정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성동과 내장상동 중심으로 정주 우선 유도를 위해서 해당 권역을 중심으로 가족 친화형 여가·교육 인프라 확충, 고품질 의료 서비스 유치, 정주형 공동체 커뮤니티 조성 등 고소득 정주자를 타겟으로 한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함
- 다음으로 북면과 신태인읍 중심의 생활환경 보완이 필요한 권역은 직주근접형 공공임대 공급, 문화·운동 인프라 확충, 생활편의 서비스 패키지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연지동과 초산동 및 시기동 중심의 체류 유인 강화 권역은 교육특화지구(연지동), 도시형 일자리 특구(초산동), 도시 재생형 주거정비(시기동) 등 권역별 기능 맞춤형 전략 추진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산내면과 산외면 등 기초 생활의 보장이 필요한 권역은 외부 체류인구 유입보다는 기존 고령층 정주 주민을 위한 복지형 정주 안정화 및 의료 접근성 보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즉, 정주 인프라는 권역별 특성에 맞는 하드웨어적 기반 확충을 기본 전제로 하되, 물

리적 시설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요 유입층인 4050대 중장년층의 즉각적인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서비스 확충도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함. 이를 통해 생활 전반의 수준을 높이는 종합적인 정주 환경 마련이 필요함

(6) 생활 공동체 기반 형성

- 정주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망이며, 이는 기존 주민과의 연결성과 소속감에서 비롯됨. 실제로 타 지역 외지인이 특정 지역으로 이주해 와 정착하게 되는 강력한 동인은 해당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감이 좁혀지며 실질적인 생활의 연속성이 가능해짐
- 그러나, 현재 정기적 체류인구는 직장·학교 등으로 인한 반복적인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취약하여 타 지역 외지인으로서의 거리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매일 같이 정읍시로의 통근·통학으로 인해 방문하는 정기적 체류인구가 정읍 시 생활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체 기반의 다양한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즉, 지역 주민과의 정서적 교류와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함께 이루어질 때, 정기적 체류 인구는 지역사회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이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 정주로의 실질적 전환 가능성을 높이게 됨

비전

스쳐가는 방문에서, 스며드는 생활로: 정읍 라이프 이음

목표

체류시간 연장 및 재방문 기반 강화

정주 전환 장벽 완화

전략

체류시간 연장
(인프라·시스템 혁신)

도시매력도 증대
(콘텐츠·제미 강화)

지역 애착도 형성
(정서적 경계망 구축)

정주 탑재 기반
(심리적 진입장벽 제거)

맞춤형 정주 인프라
(삶의 질 개선)

생활 공동체 형성
(사회적 소속감 고취)

세부
과제

정읍 스테이
업그레이드
- 키즈·파밀리
특화 리모델링
- 빅데이터 활용
감성 숙소

공유 주차장 &
스마트 패스
- 유튜브 차장
광유 시스템
- 지털 맞춤주차장
& POS 연동 지역상
권 활성화

KTX 정읍
'워크·무라이트'
- 정읍역 도착 시내
맞춤형 인프라 프로그
램
- KTX연계 우편 및
전기차 충전기 구상

정읍 어드벤처
플랫폼 구축
- 역사 미션투어
- 인문학 산책로 조성
- 개일 꿈여행 활용
빅데이터 기반
동선 분석

정읍 코인(Coin)
인센티브
- 게임 보상+지역
회화면 연동
- 제휴점포·게임
연계 활용 지역
소비 활성화

정읍 마이 브루잉
(Brewing 페스)
- 양조장 연계 브루잉
체험
- 숙성 알落入·한식
연계 재방문

정읍 관계인구
성장·사다리
- 단계별 멤버쉽(팀·색
·주주)
- 토털 크라우드 펀딩
(투자)

듀얼 트랙(Dual Track)
살아보기
- 수성동·내장성동
아파트 활용 도심
살아보기
- 4050 귀촌로망 반영
빈집 활용 솔루
라이프 체험

정주 마스터 플랜
서비스
- 은퇴준비·자산관리
에 관심 있는 중장년
층 대상 정주 자산
컨설팅 서비스
- 생활 패턴 고려 거주
후보지 추천 등 정주
의사결정 지원

정읍 메디·힐링
멤버십
- 정읍 한방신약과
지역 의료기관 연계
를 통한 정을힐링
주지의 서비스
- 내장산 활용 숲·정
프로그램 영상
네라비 운영

고품격 다이닝
솔루션
- 정기적 제공인구
대상 정을 축제수산
를 정기배송
- 산단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파인
다이닝

정읍 문화·인적 교류
네트워크
- 취향 기반 프리미엄
동호회
- 체류인구 전용 커뮤
니티 센터

우리 동네 정착
멘토링
- 1:1 정착 멘토 매칭
- 일자리 창출 활동비
지원

[그림 5-1] 정읍시 체류인구 정주화 인구정책 방향(안)

2. 정읍시 체류 인구 정주화 인구정책의 세부 추진 과제

1) (체류시간 연장) ‘경유지’를 ‘목적지’로 전환하는 인프라·시스템 혁신

■ 현황 및 필요성

- 정읍시는 내장산, 구절초 지방정원 등 주간 관광 거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지역 내에서 숙박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의 부재와 성수기 주요 관광지의 극심한 주차 혼잡은 재방문 의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주로 낮에 관람하는 자연 관광자원에 치중되어 있어 체류시간 증대 및 숙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및 노후시설 등 유휴 자원을 재생하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교통편의 시스템 도입, KTX 연계 야간 체류 유인프로그램, 워케이션 및 전문 체류인구 창출 등을 통해 ‘오래 머물며 즐기는 체류 거점’으로의 전환이 시급함

■ 세부 과제 내용

① 빈집 및 노후 숙소의 재발견, 「정읍 스테이 업그레이드」

- (키즈·패밀리 특화 전환) 도심 내 노후 모텔 등이 유흥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가족 여행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함. 키즈룸·파티룸 설치 및 밝은 조명·인테리어 개선을 유도하여, 부족한 가족 체류형 숙박 인프라를 저예산·고효율로 확충함
- (빈집 활용 감성 스테이)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발굴하여 현대적 감각의 독채 펜션 (Private Stay)으로 리모델링함. 이를 통해 최근 급증하는 ‘총카스’ 수요를 흡수하고, 단순 관광을 넘어 정읍의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게 하여 체류시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함

② 주차 효율성 극대화, 「공유 주차장 & 스마트 패스」

- (공유 주차장 지정) 성수기 주차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학교, 관공서, 종교시설 등

유휴 주차장을 지자체 협약으로 개방하고 셔틀버스를 연계하여 절대적인 주차 면수를 확보

- (스마트 안내 시스템) T맵 등 내비게이션 및 도로 전광판과 연동하여 주차장별 잔여 면수를 실시간으로 제공, 만차 시 공유 주차장으로 차량을 사전에 분산시켜 혼잡을 예방함
- (무정차 자동 결제 도입) 서울·울산 등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차량 번호 인식만으로 주차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지갑 없는 주차장’ 시스템을 구축, 성수기 출차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POS 연동 지역상권 활성화) 관내 식당·카페 결제 단말기(POS)와 주차 시스템을 연동 함. 이를 통해 방문객이 지역 상권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주차권 제시 없이 자동 주차 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무료 주차를 위해서라도 지역 내 소비를 하게 만드는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

③ 별밤과 비즈니스의 만남, 「KTX 정읍 ‘워크-문라이트’」

- (야간 체류 유인 프로그램 도입) 현재 주간 활동에 편중된 관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별밤’ 컨셉의 야간 체류 유도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 남원 광한루원 사례와 같이 오후 6시 이후 주요 관광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가로 개방하여 늦은 시간 도착객의 숙박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을 벤치마킹 함
- 이를 위해 오후 6시 이후를 ‘문라이트(Moonlight, 별밤) 시간’으로 설정하고 정읍시의 주요 관광·문화시설을 무료·할인 방식으로 연장 개방하여 야간 체류 및 숙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킴. 또한, 달빛 걷기·야간 역사·문화 탐방·조명 연출(미디어파사드 등)·별밤 미식콘텐츠(야시장, 야간 음식축제) 등 야간 전용 콘텐츠를 정기 운영하고, KTX 도착 시간대에 맞춘 ‘저녁 도착→야간 프로그램→숙박’ 코스를 표준화하여 1박 이상 체류하는 관광 구조를 구축
- (KTX 연계 워케이션 및 전문 체류인구 창출) KTX 접근성을 활용하여 정읍역~구도심을 업무·체류 동선으로 연결하고 역 인근 및 구도심 유휴공간에 공유오피스·숙소·회의/세미나 공간이 결합된 ‘워크+스테이’ 거점을 조성. 일례로 정읍의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인프라와 연계하여 관련 연구자 및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프로젝트형 체

류(자문·공동연구·세미나 등)를 유치하고 업무 이용과 야간 프로그램 및 숙박을 묶은 패키지로 구성하여 낮에는 집중 업무, 저녁에는 지역 소비·문화 체험을 자연스럽게 연결. 이를 통해 KTX 기반 ‘업무-야간 체험-숙박’이 하나로 연결되는 체류 구조를 정착시키고, 반복·정기 체류로 전환하는 전문직 워케이션 모델을 확산

■ 기대 효과

- (관광 수용력 및 만족도 상승) 공유 주차장으로 물리적 수용 한계를 극복하고, 지갑 없는 주차장으로 대기 불편을 해소하여 다시 오고 싶은 퀘직한 관광 도시 이미지 구축 가능
- (체류형 경제 활성화) 숙박 인프라 개선으로 체류 시간을 늘리고, 구매 조건부 주차 감면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또한 혜택을 받는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 확립 가능

2) (도시 매력도 증대)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정읍 어드벤처’ 플랫폼 구축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게임이 아닌 영역(관광, 교육, 건강 등)에 게임 메커니즘(포인트, 퀘스트, 보상 등)을 접목해 참여자들의 몰입과 동기를 유도하는 방식

* 대표 사례로는 스타벅스 별 적립 시스템(로열티 마케팅), 나이키 런클럽(NRC)의 운동 기록 시스템, 당근마켓의 활동 배지 부여 시스템 등이 있음

■ 현황 및 필요성

- 정읍시의 체류인구 분석 결과, 20~30대 청년층의 유입 비중이 타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방문 목적 또한 내장산 등 자연경관 중심의 단순 관람에 치중되어 있음. 이는 역동적이고 감각적인 도시 이미지가 부족하고, 청년층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기반이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함
- 최근 관광 트렌드는 단순한 시각적 관람을 넘어 미션 수행과 스토리 기반 참여를 결합한 체험형·목적형 관광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MZ세대는 재미 요소와 자기 주도적 활동 경험을 중시하는 성향이 뚜렷함. 이에 정읍시가 보유한 역사·문화 자원에

디지털 기술과 게임적 요소를 접목한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체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를 동시에 유도하는 콘텐츠 전략이 필요함

- 특히, 본 전략은 지역 고유 자산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통합 브랜딩하고, 방문객 참여를 기반으로 관계를 구축하는 접근 방식으로, 중앙정부의 로컬브랜딩 공모사업과의 연계 추진 시 국비 확보 및 전국 확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세부 과제 내용

①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 개발, 「길 위에서 만나는 역사 미션투어 & 인문학 시그니처 로드」

- (관광 동선의 게임화) 동학농민혁명, 내장산 전설 등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동선을 미션 수행 방식으로 재구성함. QR코드 스캔, AR 기반 보물찾기, 퀴즈 풀이 등 방문객 참여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현실 기반 역할수행게임(RPG) 형태의 앱을 개발함
- (인문학 산책로 조성) 고운 최지원, 충무공 이순신, 녹두장군 전봉준 등 역사적 인물의 스토리를 연결한 인문학 탐방로를 개발. 이를 옥정호(운암 저수지) 등 수변·생태 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꽃길과 연결하여 배움과 힐링이 공존하는 정읍만의 도보 코스를 조성
- (데이터 기반 정책 연계) 앱 내 축적되는 이동 경로, 체류시간, 미션 참여도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선호 관광지, 비선호 구역, 시간대별 체류 분포 등을 정밀 분석하고, 이를 향후 관광 및 인구 유치 정책 수립에 반영함

② 디지털 보상 연계형 지역경제 활성화 체계 구축, 「정읍형 코인 인센티브 시스템」

- (코인의 지역화폐 연동) 미션 수행을 통해 지급되는 디지털 코인(포인트)을 지역화폐(정읍사랑상품권) 또는 모바일 쿠폰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함
- (관광소비의 실시간 전환) 정읍시 내 제휴 점포(카페, 편의점, 숙박업소 등)에서 코인을 실물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콘텐츠 참여가 곧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함

■ 기대 효과

- (고유 콘텐츠 기반 도시 마케팅)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자원을 디지털 방식으로 재해석 함과 동시에 역사 인물 스토리를 엮은 인문학 시그니처 도보 코스를 조성함으로써 정 읍만의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구축 가능
- (MZ세대 유입 기반 확보) 디지털 콘텐츠와 몰입형 게임 요소를 결합한 감성형 플랫폼 을 통해 MZ세대 및 청년층의 도시 체류 유인을 강화하고, 기존 이미지를 벗어나 즐 길 거리가 있는 젊은 도시로 브랜딩 가능
- (체류 시간 및 소비 확대) 퀘스트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장소를 탐색하게 되어 체류 시간이 증가하고, 획득한 코인을 활용한 지역 내 소비가 발생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관광 수익의 지역 내 환류 효과 창출 가능

3) (지역 애착도 형성) 방문객을 관계인구로 전환하는 정서적 유대 전략

■ 현황 및 필요성

- 정읍시 체류 인구 분석 결과, 다수의 방문객이 일회성 체류에 그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재방문하는 인구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역과의 물리적 연결은 발 생하나, 방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매개가 부재하 기 때문임
- 인구감소 시대에는 기존 정주 인구 확대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만큼 타 지역의 외지인 과 다양한 연계 형태가 필요하며, 이에 단순 관광객을 지역과 감정적·경제적으로 연결 된 관계인구로 전환하는 전략이 요구됨
- 관계인구 전환을 위해서는 방문객이 정읍에 일정한 지분(Stake)을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유대와 공동체 소속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적임

■ 세부 과제 내용

- ① 정기 재방문을 부르는 숙성 프로젝트, 「정읍 ‘마이 브루잉(Brewing) 패스’」
- (브랜딩 기반 조성: 좋은 물·좋은 술의 고장 정읍) 정읍의 지명 유래(井(우물 정), 邑(고을 읍))에 기반한 ‘좋은 물의 고장’ 이미지는 고품질 주류 생산의 필수 요소와 직결됨. 이에 좋은 물로 좋은 술을 빚는 ‘술의 마을’로 브랜딩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방문객 체험 몰입도를 제고하는 콘텐츠로 강화
 - (양조장 연계 마이 브루잉 체험) 태인양조장(무형문화재 송명섭 막걸리), 산외양조장(산외 막걸리), 신태인주조공사(신태인 막걸리) 등 정읍의 대표 양조장과 협력하여 체험객이 누룩 선택, 술 배합 등 전통 양조 과정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내가 만든 술의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제공. 또한, 1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숙성 단계별 중간 시음 방문을 운영해 맛·향 변화를 직접 확인하게 하여 ‘내 술이 익어가는 시간’을 매개로 정기 방문으로 확장하는 구조로 설계.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지역 우수 양조장 선정을 통해 전통주 시음·만들기 체험 및 지역 관광 연계 문화공간으로 육성)’과 연계하여 참여 양조장의 체험 프로그램 고도화·공간 개선·관광코스 결합을 패키지화 가능. 특히, 태인양조장은 2014년 해당 사업에 선정된 경험이 있어, 기존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마이 브루잉’을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숙성 알림-수령식 연계 재방문) 발효·숙성에 소요되는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양조장이 정기적으로 사진, 숙성도 분석 등 맞춤형 콘텐츠를 카카오톡, 월간 뉴스레터 등 ‘내 술의 성장 스토리’를 제공해 방문 공백기에도 지역과의 연결감을 유지 및 다음 방문 동기를 강화. 숙성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마이 브루잉 홈커밍 데이(시음 및 수령식)’을 개최하여 재방문을 유도하고, 전문 소믈리에 해설과 함께 전통주와 어울리는 지역 특화 안주를 개발·제공하는 ‘페어링 테이블(전통주-안주 궁합 시음 코너)’을 운영함으로써 시음식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 먹거리 소비로 연계
- ② 방문객의 참여와 소속감 강화하는 단계별 관계인구 전환 시스템, 「정읍 관계인구 성장 사다리」
- (등급화된 관계인구 육성 체계) 방문객의 지역 관여 수준에 따라 ‘탐색가 → 팬 → 파트

너(주주) → 정주자'로 단계 구분하고, 각 단계에 적합한 인센티브(예: 웰컴키트, 명예 시민증, 전용 행사 초청 등)를 제공하여 상위 참여층으로의 유도를 체계화함

- (로컬 펀딩 기반의 정서적·경제적 공동체화) 고관여층(파트너 등급 이상)에게는 지역 청년 창업, 빈집 재생 숙소 프로젝트 등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로컬 크라우드 펀딩 참여 기회를 제공함. 수익은 지역 농산물, 숙박권 등으로 배당함으로써, 방문객이 정읍의 성장을 응원하는 실질적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기대 효과

- (재방문 유도 및 관계인구 확대) 지속 방문 동기('내 술' 숙성기), 경제적 이해관계(소액 투자) 등 다층적 매개를 통해 일회성 방문객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방문하는 진성 관계인구로 전환 가능
- (잠재 이주 기반 조성) 관계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이 정읍을 제2의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게 하여, 은퇴 후 귀촌, 청년 창업 등 실질적 정주로 이어지는 인구 유입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음

4) (정주 탐색 기반 마련) 4050 로망 실현형 「정읍 시그니처 리빙 랩」

■ 현황 및 필요성

- 경제력을 갖춘 40·50대 중장년층의 경우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 여유를 누리는 '세컨드 라이프' 실현에 대한 니즈가 있음. 이러한 니즈 충족을 위해 정읍시는 정읍시가 보유한 생태자연 자산을 활용하여 4050 세대의 로망인 마당 있는 삶과 편리한 도심 생활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주 체험을 실현해야 함
- 그러므로 일정 기간 '정읍 시민으로 살아보기'에 준하는 체험 기회와 수요자 맞춤형 정착 정보를 결합하여 정주 전환의 심리적·정보의 한계 장벽을 완화시키는 단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세부 과제 내용

① 도시의 편리함과 전원의 낭만, 「듀얼 트랙(Dual-Track) 살아보기」

- (도심형: 프리미엄 레지던스) 정주 여건이 가장 양호한 수성동·내장상동의 아파트를 활용하여, 이주를 망설이는 정기적 체류인구에게 최적의 정주 환경을 미리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착을 결심하게 만드는 체험 품 운영
- (전원형: 정읍 가든 스테이) 4050 세대의 귀촌 로망을 반영하여, 내장산 자락 또는 구 절초 지방정원 인근 빙집을 리모델링한 프리미엄 독채를 제공하여 정읍만의 슬로 라이프(Slow Life)를 체험하도록 지원

② 내 집 마련과 정착의 나침반, 「정주 마스터 플랜 서비스」

- (자산가치 분석 지원) 은퇴 준비 및 자산관리에 민감한 4050대 정기적 체류인구를 대상으로, 단순 매물 소개를 넘어 지역 내 부동산 가치 전망, 귀농·귀촌 주택 구입 세제 혜택, 유후 부지 활용법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신 ‘정주 자산 컨설팅’ 서비스 연계
- (정주 의사결정 지원) 가구 구성, 직장 위치, 생활 선호에 따라 거주 후보지를 추천하고,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교육·의료 정보를 원스톱으로 연결함으로써 정량지표와 체감 만족도 간 격차를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맞춤형 정주 로드맵’ 제공

■ 기대 효과

- (정주 불확실성 완화를 통한 전입 결정 촉진) 단순 방문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의 실제 거주 가치를 실거주 체험을 통해 사전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이주 실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완화 및 정주 적합성에 대한 확신을 형성해 전입 결정을 조기에 유도
- (정보 비대칭 해소 및 체감 정주 매력도 제고) 외지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생활 밀착형 정보(학군, 생활편의·상권, 의료 접근 등)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정주 여건을 구체적으로 인지시키고, 체감 만족도를 향상시켜 도시의 실질적 정주 매력도를 제고

5) (맞춤형 정주 인프라 확충) 정읍 온리(Only) 라이프 케어, 「J-웰니스 특화 서비스」

■ 현황 및 필요성

- 구매력이 높은 4050대 정기적 체류인구는 대도시 수준의 의료·문화·여가 등 생활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을 중시하나, 정읍에서는 대도시 수준의 선택지·상시성 확보가 제한적이며 이를 둘러적 인프라 확충만으로 단기간에 보완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큰 편임
- 이에 하드웨어 확충과 병행하되, 정읍의 고유 자원(내장산, 쌍화차·한우 등 로컬푸드)을 ‘경험·서비스’로 패키지화한 J-웰니스 특화 멤버십을 도입하여, 체류인이 ‘정읍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체감하도록 정주 유인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세부 과제 내용

① 건강한 100세 인생 설계, 「정읍 메디-힐링(Medi-Healing) 멤버십」

- (양·한방 협진 케어) 정읍의 강점인 한방 산업(쌍화차 거리, 약용작물)과 지역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전입자 및 정기 체류자에게 체질 진단, 한방 면역 케어, 정기 건강검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정읍형 주치의 서비스’ 도입
- (자연 치유 프로그램) 내장산을 활용하여 ‘숲 명’ 프로그램 또는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 하는 ‘명상 테라피’를 상설 운영하여 도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상설 힐링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② 일상과 여유를 요리하는, 「고품격 다이닝 솔루션」

- (프리미엄 식재료 구독) 정읍에서 머무는 동안 장보기의 번거로움을 덜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기적 체류인구를 대상으로 고품질을 자랑하는 단풍미인 한우, 귀리, 신선 채소 등으로 구성된 제철 정읍 밥상 꾸러미를 정기 배송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
- (찾아가는 파인 다이닝) 산단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 유명 셰프나 명인이 직접 찾

아가 정읍의 식재료로 요리 수업을 하거나, 주말 브런치/디너 파티를 열어주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 운영

■ 기대 효과

- (웰니스 정주 도시 브랜드 구축 및 중장년층 유입 촉진) 대규모 의료 인프라 확충 한계를
정읍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예방·치유 중심 케어 서비스로 보완하여, 건강·노후 대비
수요가 큰 4050대 중장년층에게 정읍 정주의 차별적 이점을 제시하고 전입 동기를
강화
- (대도시와 차별화된 라이프스타일 및 정착 만족도 견인) 청적 식재료 구독·다이닝 등 정
읍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통해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건강한 삶의 가치를 제공함
으로써, 단순 거주를 넘어 능동 및 만족스러운 정착 생활을 유도

6) (생활 공동체 기반 형성) 라이프스타일로 연결되는 「취향 기반 로컬 커뮤니티」

■ 현황 및 필요성

- (높은 소비력 대비 낮은 지역 연결성) 정기적 체류인구는 소비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 활동은 정읍시 내에서 발생하기보다 인근 대도시 등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비중이 큰 것으로 해석됨. 이는 체류인구가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약속(모임)·교류·네트워킹 기회가 제한되어, 퇴근 이후 여가와 만남이 자연스럽게 외부 생활권에서 형성·소비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임
- (취향 기반 관계망 부재) 경제력과 문화적 취향을 가진 정기적 체류인구는 전통적 공동체보다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문화 교류 및 직업·관심사 중심의 네트워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기존 주민과 체류인구가 자연스럽게 섞이고 관계를 누적할 수 있는 취향 기반 사회적 연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세부 과제 내용

① 가치와 품격을 나누는, 「정읍 문화·인적 교류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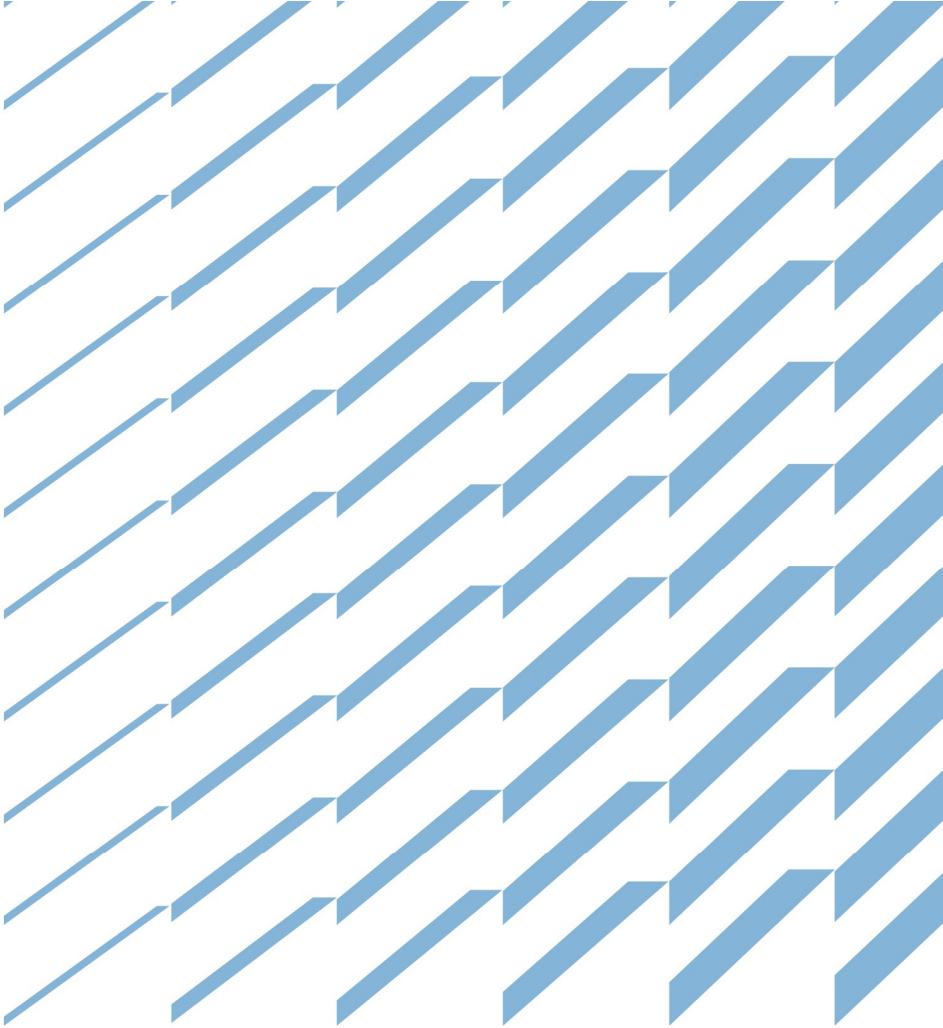
- (주제별 심화 커뮤니티 지원) 구매력이 높은 4050 체류인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와인, 골프, 인문학, 등산 등 관심사 기반 프리미엄 동호회 구성을 지원함. 운영비를 지원해 되, 회원 구성 시 '지역주민과 체류인 비율 5:5' 원칙을 적용하여 물리적 거주지를 넘어선 인적 네트워크의 화학적 결합을 유도함
- (체류인구 전용 교류 거점 조성) 도심 내 접근성이 좋은 유휴 공간이나 카페를 '정읍 체류인구 커뮤니티 센터'로 지정·운영함. 퇴근 후나 주말에 자유롭게 방문하여 지역 정보를 교류하고 휴식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식처를 마련함

② 지역 정착의 든든한 멘토, 「우리 동네 정착 멘토링」

- (1:1 맞춤형 인적 매칭) '아는 사람이 있어야 정착한다'는 정주 결정 요인을 고려하여, 정주 의향이 있는 체류인에게 연령대·직업·관심사가 유사한 지역 주민(통장, 청년 활동가, 동일 직종 종사자 등)을 '정착 멘토'로 위촉 및 매칭함
- (밀착형 적응 활동 지원) 멘토-멘티가 함께하는 지역 탐방, 관공서 동행, 로컬 시장 장 보기 등의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식비, 체험비)를 지원함. 이를 통해 초기 정착 과정의 낯설음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조기에 형성함

■ 기대 효과

- (사회적 연결성 제고) 단순한 거주지 공유를 넘어 공통의 관심사와 비즈니스를 매개로 한 긍정적 교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외지인이 겪는 심리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함께 공존하는 이웃이라는 사회적 신뢰 구축 가능
- (정주 전환의 촉매제 역할) 지역 주민과의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읍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고, 이것이 향후 실질적인 전입을 결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정주 트리거로 작용 가능



제6장

요약 및 제언



제 6 장 요약 및 제언

가. 세부과제 요약 및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 본 장에서는 앞선 제5장 2절 정읍시 체류인구 정주화 인구정책의 세부 추진과제의 내용을 현재 정읍시가 추진 중인 인구정책 사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제안하는 과제의 차별적 요소를 명확히 하고, 신규 도입이 필요한 영역과 기존 사업의 고도화가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여 향후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표 6-1] 정읍시 인구정책 세부 추진과제 요약 및 기존 사업과의 비교

전략 구분	세부 추진과제명	주요 내용	사업 구분 (기존개선/신규)	기존 사업명
체류 시간 연장	빈집 및 노후 숙소의 재설계 「정읍 스테이 업그레이드」	· 도심 노후 숙박·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가족형·감성형 숙소 공급 확대 및 체류시간 연장 유도	기존 개선	빈집정비 및 재생사업
	주차 효율성 극대화 「공유 주차장 & 스마트 패스」	· 유휴 주차장 개방·실시간 안내·자동결제·이용점포 연계 감면으로 혼잡 완화와 소비 유도 동시 달성	신규	-
	별관과 비즈니스의 만남 「KTX 정읍 '워크·문라이트」	· 야간 연장개방·야간콘텐츠를 KTX 시간대와 결합해 1박 코스 표준화 및 워케이션 체류 확산	기존 개선	정읍천 관광호텔레이스 조성사업
도시 매력도 증대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 개발, 「길 위에서 만나는 역사 미션투어 & 인문학 시그니처 로드」	· 지역 역사·인물 스토리를 QR/AR 미션투어와 도보코스로 묶어 참여형 관광 매력 강화	신규	-
	디지털 보상 연계형 지역 경제 활성화 체계 구축, 「정읍형 코인 인센티브 시스템」	· 콘텐츠 참여 보상을 지역화폐/쿠폰으로 전환해 참여→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	신규	-
지역 애착도 형성	정기 재방문을 부르는 숙성 프로젝트, 「정읍 '마이 브루잉(Brewing) 패스」	· '나만의 술' 제작·숙성 과정을 단계 방문으로 설계해 정기 재방문을 구조화	신규	-
	방문객과 참여와 소속감을	· 방문객을 단계별 등급화하고	신규	-

전략 구분	세부 추진과제명	주요 내용	사업 구분 (기존/신규)	기존 사업명
	강화하는 단계별 관계인구 전환 시스템 「정읍 관계인구 성장 시다리」	인센티브·참여기회를 차등 제공해 관계인구 전환을 촉진		
정주 탐색 기반 마련	도시의 편리함과 전원의 낭만, 「듀얼 트랙(Dual-Track) 살아보기」	· 도심형(편의)·전원형(낭만) 두 유형의 살아보기 패키지로 정주 탐색 선택지를 확대	신규	-
	내 집 마련과 정착의 나침반 「정주 마스터 플랜 서비스」	· 주거·자산·생활정보를 맞춤 상담하고 행정·교육·의료 연계를 묶어 정착 의사결정 지원	신규	-
맞춤형 정주 인프라 확충	건강한 100세 인생 설계 「정읍 매디힐링(Med+Healing) 멤버십」	· 의료·한방·웰니스 프로그램을 멤버십으로 묶어 건강 중심 정주 유인을 강화하는 패키지	기존 개선	정읍형 치유농업클러스터 조성
	일상과 여유를 요리하는, 「고품격 다이닝 솔루션」	· 식재료 구독+다이닝/쿠킹 클래스 등으로 체류 중 식생활 불편 해소 및 생활서비스 품질 제고	신규	-
생활 공동체 기반 형성	가치와 품격을 냉는 「정읍 문화인적 교류 네트워크」	· 외지인·지역민을 살롱/클럽/등 교류 프로그램으로 연결해 관계 형성과 지역 애착을 강화하는 네트워크 구축	신규	-
	지역 정착의 든든한 멘토, 「우리 동네 정착 멘토링」	· 이주·정착 과정의 주거·일자리·교육·생활 적응을 지역 멘토가 동행 지원해 초기 불확실성과 이탈을 방지	신규	-

주) 기존 사업의 경우 정읍시 2025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내 사업과 비교

■ 기존 사업 고도화 및 개선 방안

- 앞선 [표 6-1]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추진과제(안) 중 기존 정읍시에서 추진 중인 인구정책 사업과 일부 맥락이 유사한 과제에 한하여, 기존 사업의 고도화 및 개선 방향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음

(1) 빙집 및 노후 숙소의 재발견, 「정읍 스테이 업그레이드」

- ‘빙집정비 및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기존의 철거·정비 중심 하드웨어 사업을 ‘체류형 관광 숙박 거점’으로 기능하는 전환이 필요함

-
- 기존 사업이 주민공간 제공 및 단순 주거임대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개선사업의 경우 관광객 및 정기적 체류인구 수요에 맞춘 감성형·가족형 독채 숙소로 리모델링하여 상품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도심 노후 여관·모텔은 리노베이션을 통해 트렌디한 숙소로 전환하고, 농촌 빙집은 마당형 독채 스테이 등 촌캉스 수요 대응형으로 조성하여 체류시간 연장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운영 방식의 경우 물리적 정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 운영사 또는 지역 청년 창업가에게 위탁 운영을 연계하여, 예약·관리·브랜딩이 통합된 운영체계를 적용하여 시설 활용도와 재방문 가능성은 극대화해야 함

(2) 별밤과 비즈니스의 만남, 「KTX 정읍 ‘워크-문라이트’」

- ‘정읍천 관광핫플레이스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기존의 경관 시설과 체류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야간관광을 ‘관람형’에서 ‘체류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사업이 벽천분수·LED 조명 등 야간경관 조성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개선 사업의 경우 해당 하드웨어를 배경으로 KTX 시간대와 연계한 야간투어 등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결합하여 1박 이상 체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정읍천·정읍역을 중심으로 주간에는 업무 수행, 야간에는 경관·휴식 콘텐츠를 소비하는 워케이션 표준 코스를 개발하여 비즈니스 목적 방문객을 생활인구로 전환하는 연결고리 마련
- 미로분수·야간조명 주변에 푸드트럭·풀리마켓·야간 이벤트를 연계 배치하여, 시각적 즐거움이 지역 내 야간 소비로 직결되도록 ‘나이트 이코노미(Night Economy)’ 생태계 조성 확장 전략을 이루어야 함

(3) 건강한 100세 인생 설계, 「정읍 메디-힐링(Medi-Healing 멤버십)」

- ‘정읍형 치유농업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농업 중심의 치유 체험을 ‘의료·케어 융복합 웰니스 서비스’로 고도화하는 전략이 필요

-
- 기존 치유농업클러스터는 치유농업 확산과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농촌지역 소득 창출 도모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개선 사업은 양·한방 의료 서비스를 결합하여 건강검진·면역케어·체질진단 등 실질적 건강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통합 웰니스 모델로 확장하는 접근임
 - 구매력이 높은 4050 중장년층 및 은퇴 준비자를 핵심 타겟으로 설정하고, 지역 병원의 주치의 서비스와 내장산·치유농장 힐링 프로그램을 연계한 멤버십 패키지를 개발하여 체류인구의 정기적 방문을 구조화하는 방안임
 - 또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치유농장 프로그램과 의료기관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동하여 예약·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정읍형 웰니스’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도시 브랜딩을 고도화하는 전략을 이루어야 함

나. 제언

■ 추진 계획

- 본 연구에서 제안한 13개 세부 추진과제(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발성 예산 집행이 아닌 공모사업과 연계한 재원 분담 전략과 민간의 콘텐츠 투자를 결합한 모델을 적용해야 함
- 이에 정읍시는 국·도비 확보를 통해 거점 공간과 통합 브랜딩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은 개별 콘텐츠 개발과 내부 시설 투자를 담당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이루어야 함
- 그러므로 아래 [표 6-2]와 같이 확보 재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하드웨어(기반), 소프트웨어(시스템), 운영으로 투입 용도를 세분화하고, 각 재원별 용도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를 매칭하여 재원 운용 방안을 마련하였음

[표 6-2] 재원별 세부 투자 및 배분 계획(안)

재원	투자 비중	세부 투입 용도 및 매칭 과제
국비 (공모사업, 소멸기금)	50% (기반 조성 및 하드웨어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류 거점 및 노후 사설 리노베이션 「정읍 스테이 업그레이드」: 농촌 빙집 및 도심 노후 여관 리모델링 공사비 확보 「공유 주차장 & 스마트 패스」: 유휴 주차장 센서 설치 및 주차 관제 시스템 구축비 확보 야간 경관 및 관광 인프라 조성 「KTX 정읍 '워크-문라이트」: 정읍천 및 역세권 야간 조명, 미디어 아트 설치 「역사 미션투어 & 인문학 로드」: 탐방로 정비 및 안내판 등 기반 시설 조성 로컬 브랜딩 및 마스터플랜 수립 「J-웰니스 & 다이닝」: 통합 브랜드(BI) 개발 및 공간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정읍형 코인 인센티브 시스템(기획)」: 지역화폐 연동 설계 및 가맹점 확대 기획 용역
시비	30% (시스템 구축 및 초기 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플랫폼 개발 및 데이터 관리 「디지털 보상(정읍형 코인)」: 체류 마일리지 적립 및 정산 앱 개발 「정주 마스터 플랜 서비스」: 주거·자산·생활정보 통합 제공 및 상담 웹 플랫폼 개발 「정읍 관계인구 성장 사다리」: 방문객 DB 관리 및 등급별 혜택 부여 시스템 운영 관계 형성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듀얼 트랙(Dual-Track) 살아보기」: 도심형·전원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숙박 지원비 제공 「우리 동네 정착 멘토링」: 멘토-멘티 활동 수당 및 생활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정읍 '마이 브루잉' 패스」: 전통주 만들기 체험 키트 제작 및 초기 홍보비 제공 「정읍 문화 인적 교류 네트워크」: 외지인-지역민 교류 살롱, 포럼 개최 및 커뮤니티 지원비 제공 전문가 양성 및 교육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정읍 스테이/미식 다이닝 운영자 및 로컬 창업가 양성 아카데미 「J-웰니스 전문인력」: 치유프로그램 운영 및 헬스케어 전문가 교육
민자	20% (콘텐츠 운영 및 상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적 서비스 상품 개발 「J-웰니스 특화 멤버십」: 유료 판매용 양·한방 의료 패키지 및 치유 상품 구성 「고품격 다이닝 케어」: 지역 식재료(귀리, 한우) 활용 프리미엄 메뉴 개발 및 판매

재원	투자 비중	세부 투입 용도 및 매칭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내부 연출 및 영업 설비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읍 스테이 업그레이드(운영)」: 개별 숙소 컨셉에 맞는 내부 인테리어, 가구, 침구류 구축 - 「KTX 정읍 ‘워크-라이트’(콘텐츠)」: 야간 플리마켓, 푸드트럭 운영을 위한 집기 및 재료 구축 · 책임 운영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입주 보증」: 청년 창업가 및 위탁 운영자의 시설 입주 보증금 납부 - 「로컬 펀드 조성」: 수익 일부를 지역에 재투자하는 상생 펀드 참여

※실제 예산 규모는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

■ 2026년 단계별 실행 로드맵

- 본 연구에서 제안한 13개 과제는 기능적으로 상호 연계성이 높아, 개별 사업을 분산 추진하기보다는 ‘기반 구축 → 시설 조성 및 개발 → 시범 운영 → 전면 운영’의 단계로 구분하여 일관된 추진 흐름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함
- 1단계(기반 구축)는 연간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단계임. 이 단계에서는 「정읍 스테이」 위탁 운영자 및 로컬 크리에이터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 파트너를 조기에 확정하고, 「J-웰니스 & 다이닝」 통합 브랜드(BI) 구축과 공간 디자인 실시 설계를 병행하여 이후 조성 단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지원 근거를 담보하기 위해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및 시의회 상정 준비를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단계(시설 조성 및 개발)에서는 거점 시설 공사를 본격 착수하고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임. 구체적으로 빈집·노후 여관 리모델링을 착공하고 「KTX 워크-라이트」 관련 경관 시설을 연계 조성하여 하드웨어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정읍형 코인」 정산 시스템과 「정주 마스터 플랜」 웹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범 운영 시점에 기능 검증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함. 또한, 선발된 운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표준 교육을 실시하고 「정착 멘토링」 등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운영 품질의 균질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3단계(시범 운영)의 경우 핵심 과제를 파일럿 방식으로 가동하여 수요 반응과 운영 적

합성을 검증하는 단계임. 이 단계에서는 「정읍 스테이」 1호점을 우선 오픈하고 「マイ
ブルイグ パス」 체험단을 운영하여 체류형 상품의 시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듀얼 트랙 살아보기」 1기 입주 및 「우리 동네 정착 멘토링」 매칭을 병행함으로써 정
주 탐색과 정착 지원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함. 아울러 야간 「워크-문화
이트」 플리마켓을 시범 개최하여 야간경제 콘텐츠의 확장 가능성과 지역 상권 연계
효과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 4단계(전면 운영)에서는 유료 서비스 런칭과 가맹 확산을 통해 사업을 상용화
하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단계임. 이 단계에서는 「J-웰니스 멤버십」 및 「다이
닝 구독」 서비스를 정식 판매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이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정읍형
코인」 가맹점을 전면 확대하여 참여→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본격 가동할 필
요가 있음. 동시에 2026년 운영 성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이용자 수, 체류일수,
재방문율, 지역소비 유발 등)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7년 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정책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방문에서 정주로 전환하는 정읍형 인구정책의 전환 필요

- 본 연구는 인구감소 위기 및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 전입을 단기간에 유도하는 기준 접근에서 벗어나 비정기적 체류→정기적 체류
→정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정주화 모델을 제안하였음
- 앞서 제시한 세부 추진과제(안)과 단계별 실행 로드맵은 단순한 체류인구 유치를 넘어 정읍시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생활인구를 확보하고 정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임
- 이에 정읍시는 빙집·노후숙소 리모델링, 야간 체류 기반 조성, 웰니스·다이닝 등 체류
상품 고도화와 같은 공공의 기반조성 투자(H/W)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 운
영 주체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결합으로한 운영체계(S/W)를 구축하여 민관 협력 기반
의 거버넌스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정책 전환이 실행될 경우, 정읍시는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닌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정주 도시로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 전환 성과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 고 문 헌

REFERENCE

- 강권오, 김도은. (2024). 제주 읍면지역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분석 및 정주여건 개선방향,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국가데이터처, 행정안전부. (2024).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시범산정 보도자료 (2024.1.1. 보도).
- 김태영. (2025.04.20.). “유럽 ‘제2 주소제’로 세수·인구 확보…英·日 ‘세컨드홈’ 촉진해 농촌 활성화”,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GRLGIJGF6>(검색일: 2025.11.19.).
- 김필, 전대욱, 김해솔. (2023). 생활인구 개념에 기반한 생활인프라 수요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송우경. (202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의미와 주요 내용, 산업연구원
- 안소현, 이순자, 민성희, 김민아, 전봉경, 강민석. (2022). 인구감소시대, 체류인구를 활용한 지역 유형별 대응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 윤정재, 김동근, 안소현, 김고은, 박대근. (2025). 국토정책 Brief: 생활인구 개념의 도시기본계획 도입방안, 국토연구원.
- 이삼수, 이미홍, 윤병훈, 권영환. (2024). 도시 및 지역계획의 실현성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개념의 적용방안 연구, LH토지주택연구원.
- 이소영. (2021).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관계인구 활용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원도, 김주락. (2024). 데이터 기반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원도, 윤소연. (2025).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원도, 이소영, 홍근석. (2023).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재춘, 강미나, 박미선, 이길재, 황관석, 윤성진, 조윤지, 손은영, 이건우, 문소희, 이정민. (2024).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국토연구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20866호, 2025. 4. 1., 일부개정.
- 작은변화연구소 (2023. 03. 02.) “관계인구 형성을 위한 6가지 조건”, 『사회적 협동조합 지리산이음 작은 변화연구소 아카이브』, https://jirisaneum.org/lab_contents/?bmode=view&idx=14375540 (검색일: 2025. 11. 19.).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3).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5). 2025년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5).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 정영호. (2023). 속초시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강원연구원.
- 정창호. (2015). 지역 생활권 정주환경 지표 분석에 관한 연구 -부산·울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13(4), 301-317.
- 조원지, 횡영모, 이중섭, 이병훈, 정호중. (2023). 전북 농촌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 활용 방안, 전북연구원, <https://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924>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 채성주, 김진덕, 배민기, 변혜선, 오상진, 조택희. (2012). 충청북도 거점지역 정주여건 경쟁력 강화방안, 충북연구원.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 (2025.08.25.). “제2의 거주지에서 지역 맞춤형 지원받으세요!‘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 TR_000000000008&nttId=120002](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_TR_000000000008&nttId=120002)(검색일: 2025.09.11.).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 (2025.04.16.). “동네만의 특성 살려 지역활력 높인다 ‘생활권 로컬브랜딩’ 18곳 선정”,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8&nttId=117123(검색일: 2025.09.11.).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 (2025.05.08.). “생활인구 유입·체류 늘려 지역활력 높일 2025년 ‘고향올래’ 12개 사업지 선정”,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Q0CaLV7c-rWeIQzsGuj5oQXF.node4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7585(검색일: 2025.09.11.).

The Island Committee, Ministry of the Interior(2007), Finland: The Land of Islands and Waters, The Island Committee, Ministry of the Interior, Finland.

SUMMARY

Population Policy Roadmaps for the Settlement of the Floating Population in Jeongeup

Jiseon Lee · Juyeon Lee · Heejin Jeon · Jihoon Choi

1. Research Goals and Methods

■ Background and Goals

- In the face of impending regional extinction, an emerging requirement is a policy shift from an address-based resident population policy to a de facto population-grounded approach that focuses on people who stay in a given region and contribute to local vitality.
- Despite its rich natural and cultural assets, Jeongeup must overcome patterns of short-term visitation, as its floating population is heavily concentrated in the autumn foliage season, and the locality generates only limited spillover effects in local consumption.
-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formulated phased population policy roadmaps to addres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Jeongeup's floating population by converting such irregular floating communities into regular floating groups and, ultimately, facilitating their transition into resident populations.

■ Methods

- (Statistical Data Analysis) To assess Jeongeup's current status,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Jeongeup and other population-declining regions in Jeonbuk. For this purpose, de facto population (floating population)-related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Statistics Korea were used.

- (In-depth Interviews and Expert Consultation) Targeting irregular floating populations (tourists and short-stay visitors) and regular floating groups (commuters), this research carried out detailed interviews and expert consultations to identify the key factors and policy demands that enable the transition from one-time visits to regular stays and subsequently that from regular stays to permanent settlement.
- (Big Data Analysis) This study leveraged mobile telecommunications and credit transaction data to analyze the inflow patterns and consumption characteristics of regular floating populations across spatial and temporal dimensions. The analytical findings were also integrated with region-specific living infrastructure data to objectively assess settlement conditions and infrastructure levels.

2.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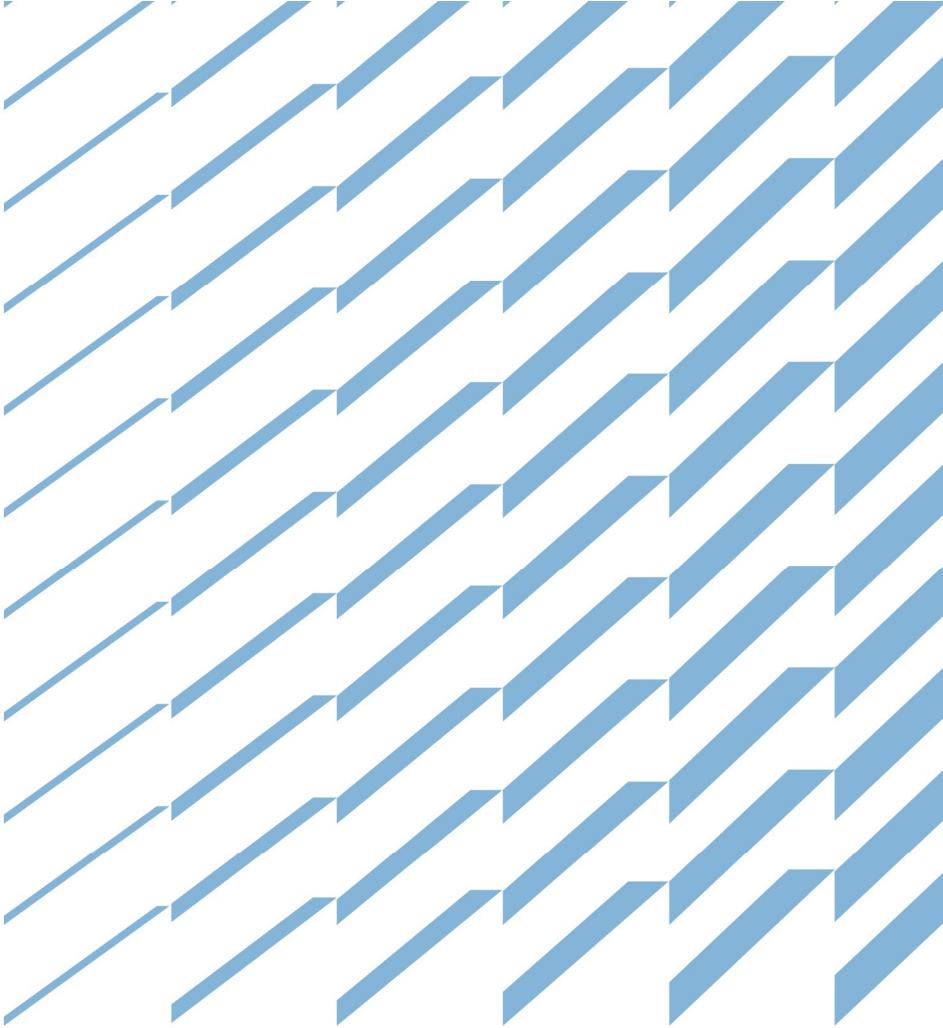
■ Draft Population Policy Roadmaps and Actions for the Phased Transition from Irregular Floating Populations to Permanent Settlement

- To convert Jeongeup's irregular floating populations into regular floating communities and, ultimately, into resident populations in a phased manner, the following strategies should be implemented under the population policy vision "From Passing Visits to Rooted Living: Jeongeup Life Connect":
 - (1) Encourage longer stays
 - (2) Enhance urban appeal
 - (3) Foster local attachment
 - (4) Lay the foundation for settlement exploration
 - (5) Expand customized settlement infrastructure
 - (6) Nurture community-based living environments
- The detailed actions proposed are as follows.

- Encouraging longer stays requires the regeneration of idle resources, such as vacant houses and aging facilities; the introduction of transportation convenience systems supported by smart technologies; and the conversion of day trips into overnight stays through KTX-linked overnight stay programs.
- Enhancing urban appeal necessitates the development of gamification-based storytelling content that structures Jeongeup's unique historical and cultural assets into connected routes and humanities-themed walking trail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a year-round experiential content operation grounded in digital reward linkage systems tied to local consumption.
- Fostering local attachment involves the promotion of continued visits through Jeongeup's traditional liquor brewing programs and the establishment of a phased system that facilitates the transition of participants into relationship populations. These tasks, in turn, require encouraging visitors to build enduring relationships with the local community and progress toward repeat visits and regular stays.
- Laying the foundation for settlement exploration calls for the provision of resident-for-a-day experiential programs designed to meet the needs of middle-aged adults in their 40s and 50s, along with the delivery of demand-responsive, customized living information, thereby lowering psychological and informational barriers to settlement.
- Expanding customized settlement infrastructure entails the introduction of the Jeongeup Medi-Healing Membership—healthcare services that integrate Jeongeup's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dustry with regional medical institutions—and high-end dining solutions, including the regular delivery of exceptional Jeongeup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and outreach fine-dining services for industrial complex workers. These initiatives are intended to satisfy the practical, lived-experience needs of regular-stay populations.
- Finally, nurturing community-based living environments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interest-based cultural and interpersonal exchange networks (e.g., wine, golf, and the humanities) and the design of settlement mentoring programs, with the aim of expanding social connectedness in the region.

Key Words

floating population, de facto population, settlement, regional extinction, Jeongeup, population policy



부록

1. 비정기적 체류인구 대상 심층면접조사지
2. 정기적 체류인구 대상 심층면접조사지
3. 전문가 자문 조사지



부 록

APPENDIX

1. 비정기적 체류인구 대상 심층면접조사지

관광 인구 유입 확대 및 숙박·재방문 관련 의견 조사	
<p>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기관은 「정읍시 체류인구 정주화를 위한 인구정책 방향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북 정읍시 체류인구 관련 정책 설계를 위해, 비정기적 체류인구(※) 인회성 방문 관광객의 정기적 체류화(재방문, 숙박·장기체류) 유도를 위한 실태 진단과 현장 수요를 파악하고자 합니다.</p> <p>귀하의 의견과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이 정읍시 인구정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래 질문에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한 내용은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며, 기재된 모든 내용은 절제히 <u>비밀 보장</u>됩니다.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2025년 11월 연구책임자 이지선(전북연구원 연구위원) 회신/문의 : 063-280-7190, jsl0619@ithink.kr</p>	
<p>I 방문·체류 배경</p>	
<p>1. 정읍시, 처음 방문하게 된 계기(주요 동기)와 첫인상은 어떠했습니까?</p> <p>[답변란]</p>	
<p>2. 지금까지 정읍시를 몇 회 정도 방문하셨고, 주된 방문 목적(장소, 활동 등)은 무엇이었나요?</p> <p>[답변란]</p>	
<p>3. 정읍 방문 시, 평균 1일 체류시간, 평균 숙박 일수(만약 숙박 경험있으시다면), 1일 평균 소비액은 어느 정도였을까요?</p> <p>[답변란]</p>	
<p>4. (만약 숙박 경험이 있다면) 주로 누구와 함께 방문(혹은 숙박) 하셨습니까?</p> <p>[답변란]</p>	
<p>5. 정읍시 방문(혹은 숙박) 시, 정읍 관련 정보(관광지, 식당, 교통, 숙박 등)는 어떤 경로로 얻으셨습니까?(인터넷검색, 유튜브, SNS, 지인 추천 등)</p> <p>[답변란]</p>	
<p>6. 정읍시까지의 교통 편의성(타 지역 → 정읍)과 관광지 간의 이동 편의성(정읍 내)은 어떠했습니까?</p> <p>[답변란]</p>	
<p>7. 정읍시 관광인프라(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숙소, 주차시설, 편의시설 등) 중 가장 아쉬웠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입니까?</p> <p>[답변란]</p>	

II 재방문(정기적 체류) 및 장기 체류 유도 요건

1. 향후 정읍시를 다시 방문(혹은 숙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다면/없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정읍 방문 경험 시, '조금 더 머물고 싶다' 라고 느낀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점 때문이었나요?

↳ (2-1) 반대로, '예정보다 일찍 떠나고 싶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점 때문이었나요?

3. 정읍시는 '가을에 가는 여행지'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가을 이외 사계절 내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매력 포인트나 콘텐츠(프로그램)를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새롭게 개발하거나 추진하면 좋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세요

4. 일회성 단순 방문을 넘어, 정읍시를 '의도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방문(예: 분기별 1회 등)'을 유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세요

V 체류 연장을 위한 필요조건

1. (당일치기 방문자의 경우) 숙박하지 않고, 당일치기 일정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예: 볼거리 부족, 양질의 숙소 부재 등)

↳ (1-1) (숙박 방문객의 경우) 정읍에서의 체류 일수를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2. 타 지역과 비교 시, 정읍시가 '체류 관광지'로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3. 방문객이 1박 이상 체류하게 하려면, 어떤 프로그램과 콘텐츠 등이 있어야 하며, 현 상황에서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할까요?
(예: 관광지 개선, 숙소 다양화, 할인혜택, 정보 제공처 확대 등)

VI 일반적 특성

1.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3. 귀하의 결혼 유무는? ① 미혼 ② 기혼

4. 귀하의 자녀유무는? ① 있음(만 세 명) ② 없음

5. 현재 거주지, 정읍시까지의 거리, 편도 소요 시간은? ① 거주지 _____ (시, 군) ② 정읍시와의 거리 _____ ③ 편도 시간 _____

2. 정기적 체류인구 대상 심층면접조사지

통근·통학 인구의 정읍시 정주에 대한 의견조사

안녕 하십니까?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기관은 「정읍시 체류인구 정주화를 위한 인구정책 방향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북 정읍시 체류인구 관련 정책 설계를 위해, 정기적 체류인구(통근·통학인구)의 정주(정착) 인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실태 진단과 현장 수요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의견과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이 정읍시 인구정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래 질문에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한 내용은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며, 기재된 모든 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됩니다.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11월

연구책임자 이지선(전북연구원 연구위원)

회신/문의 : 063-280-7190, jsl0619@jthink.kr

I 정읍시까지의 통근·통학 경험 실태

1. 귀하는 현재 통근(통학)하면서 겪는 가장 큰 불편 사항이나 관련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1-1) 위와 같이 응답하신 불편함과 어려움 해결을 위해 정읍시 차원의 어떠한 지원(정책)들이 필요하까요?

2. 귀하는 근무(학업)시간 이외 주로 정읍의 어떤 지역이나 시설을 이용하십니까? 또한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3. 귀하는 정읍시에서 소비(식사, 쇼핑, 여가 등)을 자주 하십니까? ① 매우 자주 ② 자주 ③ 가끔 ④ 거의 없음

4. 귀하는 현재 거주지와 비교했을 때, 정읍시의 정주환경 수준(일자리, 주거, 생활편의·의료시설, 교육·돌봄·복지환경, 문화·여가시설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환경 수준				
매우 낮음 ①	낮음 ②	보통 ③	높음 ④	매우 높음 ⑤

↳ (4-1) 위와 같이 정읍시 정주환경 수준을 평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II 정읍시로의 거주지 이전 및 정주 전환 요건

1. 현 거주지를 떠나 정읍시로 이주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다면/없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정읍시로 **아주**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일자리 등)

3. 정읍시에서 어떠한 획기적인 '지원 정책들이 제공된다면', 아주 및 정주를 고려하시겠습니까?

4. (현재 타 지역에 거주이 있으신 경우만 작성) **가족과 함께 정읍으로의** 아주를 고려한다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5. "가족단위"로 정읍시로의 정주 전환 확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원 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6. 정읍시는 **전입 독려 캠페인으로 '정읍愛 주소갖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첨임爰 주소 갖기) : 전입 지원금 1인당 15만원 지원 / 전입청년 이사비용 최대 50만원 지원 / 전입대학생 거주비용 연 50만원 지원
출생축하금 첫째 200만원 ~ 넷째 이상 1,000원 지원 / 육아수당 월 20만원 지원 /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연 300만원 최장 10년 지원

7. 정읍시가 통근·통학 인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주거 지원 정책을 한다면, 아주 및 정주 전환 의향이 높아질 것 같습니까?(예: 임차료 지원, 주택구입 지원금, 전월세 보증지원금, 임대 아파트 지원 등), 원하는 주거 지원 방식을 말씀해주십시오.

8. 정읍시에 추가로 체류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보다 확충 되어야 하는 생활인프라, 지원정책이 있으십니까?(예: 의료시설, 문화·여가시설, 교육시설, 보육시설 등)

III 응답자의 특성

1. 귀하의 연령은? 만 세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3. 현재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_____

4. 주요 통근/통학 수단은? _____

5. 귀하의 통근(통학) 소요 시간은? (편도) _____분/시간

6. 귀하는 지금까지 정읍시로의 통근(통학)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 개월/년

7. 귀하의 근무처 혹은 학교는 정읍시의 어디인가요? _____ 등/읍/면

8. 귀하의 통근/통학으로 정읍시에 머무는 시간은 1일 평균 몇 시간인가요? 평균 _____ 시간

3. 전문가 자문 조사지

정읍시 체류인구 유입·정주화 방안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과제는 「정읍시 체류인구 정주화를 위한 인구정책 방향 연구」로, 정읍시에 체류하는 인구를 ①비정기적 체류인구와 ②정기적 체류인구로 구분하고, 비정기적 체류인구(당일치기 단순방문 등)의 장기·정기적 체류인구화, 정기적 체류인구(통근·통학 등)의 정주 인구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구정책 방향 수립과 구체적인 세부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자문 내용은 정읍시 체류 인구 관련 인구정책 방향 설정과 세부 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귀한 시간을 내어 전문가님의 고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 익명으로 처리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1월

연구책임자 이지선(전북연구원 연구위원)

회신/문의 : 063-280-7190, js0619@ithink.kr

〈체류인구 유형 및 개념 정의〉

체류인구 유형	개념 정의	비고	
비정기적 체류 인구	단순방문 인구	• 본인 거주지 이외 지역에 일시적인 휴식·소비·의료·관광·업무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되, 숙박 없이 당일 방문하는 인구	• 방문 횟수에 따라 일회성 방문인구 • 단복성 방문인 구로 구분됨
	관광·휴양·여가 인구	• 본인 거주지 외 지역에서 관광·휴양·여가 또는 기타 레저활동 등을 목적으로 1박 이상 숙박하며 해당 지역에 단기간 체류한 인구	• 업무형 체류 인구, 5도 2촌 인구 포함 가능 • 일시적(일정)목적의 거주형 체류인구와 구분
정기적 체류 인구	통근·통학 인구	• 본인 거주지 외 지역에 근로·학업·군무·기타 생활 목적 등으로 정기적으로 이동하여 근무·교육 받는 인구	• 학업(교육) 목적의 거주형 체류인구와 구분
	거주형 체류 인구	• 본인 거주지 외 지역에 근로·학업·군무·기타 생활 목적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연속적으로 숙박하며 생활 거점을 형성한 인구 • 해당 지역에 주민 면적이 넓으나 거주지로 귀하하는 인구	

자료: 행정안전부·자생행정연구원(2025), 2024년도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인구감소지역 성장인구 특성 분석 연구

I 정읍시 체류인구 현황·특성의 전반적 평가

- '첨부한 현황자료(정읍시 체류인구 현황·특성 및 쟁점 사항)' 바탕으로, 정읍시가 체류 인구 정책 방향 수립 시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나 해결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읍시 체류 인구의 '낮은 외지인 유입 규모, 특정 계절(기울) 편중 현상, 짧은 체류시간, 저조한 소비 등을 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십니까?

II 비정기적 체류 인구의 장기 및 정기적 체류 인구화 방안

- (정책 설정) 아래는 비정기적 체류 인구를 장기적 및 정기적 체류인구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큰 틀에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중요성·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정책 방향을 선정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① 사계절 관광 사업 개발 및 인프라·서비스 구축

② 지역 특화상품(맛집 등) 개발,

③ 교통 접근성 개선

④ 홍보 및 마케팅 강화

⑤ 지역문화 체험시설·콘텐츠 확충

⑥ 기타()

↳ (1-1) 위와 같이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작성해주세요.

2. 정읍시가 '가을에만 가는 여행지'라는 이미지를 극복하고, 사계절 내내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을 제작한 비성수기 방문객 확대를 위한 관광·체험 콘텐츠,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구체적 정책 혹은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십시오.
3. 현재 정읍시 방문객의 '당일치기' 비중이 높음을 고려할 때, 1박 이상 숙박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비정기적 체류인구'가 '정기적 방문하는 체류인구'로 전환되려면, 어떠한 정책 방향과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까요?
↳ (4-1)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정읍시민의 정기적인 체류 인구 유도를 위한 '지자체 대표 브랜드 사업(로컬 브랜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5. 국내외 비정기적 체류 인구의 정기적 체류 인구로의 전환 사례(단순 일회성 방문객 → 정기적 방문객으로 전환) 중 정읍시에 적용 할만한 사례와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고려 사항은 무엇일까요?

III 정기적 체류 인구의 정읍 정주 인구화 방안

1. (정책 설정) 아래는 정기적 체류 인구를 정주 인구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큰 틀에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중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정책 방향을 선정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 ① 일자리와 주거 연계 지원 | ② 주택 공급, 주거 지원 등 주거 안정 환경 | ③ 생활편의 및 의료시설 개선·확충 |
| ④ 가족단위 정주를 위한 교육여건 및 돌봄(보육) 복지 환경 개선 | ⑤ 문화·여가시설(지원) 확충 | ⑥ 기타() |

↳ (1-1) 위와 같이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작성해 주세요.

2. '정기적 체류인구(통근 통학 인구)'가 실제로 정주 인구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적 장애 요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십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주거여건주택 공급, 기숙, 주거환경 등, 생활 인프라(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 경제·사회적 오연일자리, 지역사회 소속감 등, 제도·정책적 오연일주 조건, 행정지원 등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전략 제시

3. 가족 단위의 정주 전환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 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4. 정읍시는 전입 독려 캠페인으로 '정읍愛 주소갖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생각하셨을 때, 본 정책의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정읍愛 주소 갖기〉: 전입 지원금 1인당 15만원 지원 / 전입청년 이사비용 최대 50만원 지원 / 전입대학생 거주비용 연 50만원 지원
출생축하금 첫째 200만원 ~ 넷째 이상 1,000원 지원 / 육아수당 월 20만원 지원 /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아자 연 300만원 최장 10년 지원

5. 국내외 정기적 체류인구의 특정 지역 정주화 성공 사례 중 정읍시에 적용할 만한 사례와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고려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향후 미래 사회 변화(예, 4일제 근무, 고령화, 웰니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여 정읍시가 지속 가능한 체류 인구 확보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하거나 육성해야 할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미래 전망·증장기 전략)

정책연구 2025-32

정읍시 체류인구 정주화를 위한 인구정책 방향 연구

발행인 | 장성화

발행일 |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613-2 9533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5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분석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식 및 정책 수요조사 연구
전북자치도 기후변화에 따른 신선식품 가격변동 요인 분석 연구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운영 사례 검토 및 전북형 모델 개발 연구
농촌 식품시장 지수 개발 및 전북자치도 활용 방향
전북자치도 농촌지역 마을소멸 분석 및 대응 전략
전북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물발자국 정책 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 시대 공간계획 방향 설정을 위한 토지이용 특성 분석
전북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 경험 연구

기획연구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농생명 전통·미래 자산 에코뮤지엄 구축 방안
전북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연구
새만금 농생명용지 경관농업 적용과 추진방안
전북자치도 지역상권 활력제고 전략 수립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전북자치도 중추도시 육성 전략(공간체계 개편 중심)
체류인구 활성화를 위한 어메니티 웨딩(Amenity Wedding) 연구

미래전략연구

전북형 RE100 특구 도입 방안 연구
K-방위산업 MRO 클러스터 조성 방향 연구
K-컬처 복합 엔터테인먼트파크 조성 방향
전북자치도 초저온 산업 육성 전략 연구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북형 반일제 정규직 도입방안 연구

정책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실태와 발전방안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과 문화적 치유 방안 연구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활용방안 연구
전북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조성 방향 연구
전북자치도 정부 R&D사업 대응력 제고 방안 연구
전북 동부산악권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과제발굴 연구
전북형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운용 방안 수립 연구
프로스포츠구단 창단 타당성 분석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농산물 유통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시설농업 중심)
전북특별자치도 생성형 AI 적용방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상용차산업 근로자 복지 증진 방안
전북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방안 연구
농지관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대응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별도청사 신축·이전 타당성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활성화 방안

현안연구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구
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
전북자치도 시외버스 재정지원의 효율적 배분기준 연구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